

방송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다양성 연구

홍주현 · 조인숙 · 이종임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주제 연구보고서 2022-04

방송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다양성 연구

책임 연구 | 홍주현(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부교수)
공동 연구 | 조인숙(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겸임교수)
이종임(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강사)
보조 연구 | 이승리(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

발행인 | 표완수
편집인 | 김성재
발행일 | 2022년 10월 31일 초판 제1쇄 발행

한국언론진흥재단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전화 (02)2001-7744 팩스 (02)2001-7740
www.kpf.or.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닌 연구자의 연구 결과임을 밝힙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이 보고서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방송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다양성 연구

책임 연구 | 홍주현(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부교수)
공동 연구 | 조인숙(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겸임교수)
이종임(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강사)
보조 연구 | 이승리(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

본문 목차

요약문	1
01 서론	7
1. 문제 제기	7
2. 연구목적	10
02 이론적 배경	13
1. 방송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13
2.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등 여론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	19
3.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나타난 권력 관계 : 누가 영향력이 있는가	21
4. 방송 시사·보도 프로그램 포맷 변화	22
1) 정치를 매개하는 방송 시사·보도 프로그램	22
2) 시사·보도 프로그램 포맷 변화 요인과 평가	24
3) 시장주의와 방송 다양성의 경계에 놓인 시사·보도 프로그램	26
03 연구 방법	29
1. 연구 방법	29
1) 연구설계	29
2) 분석 시기 및 분석 프로그램	30
3) 표본추출 방법	32
4) 분석 절차	34
5) 분석 유목	35

04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다양성 분석 결과 37

- 1. 시사·보도 프로그램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37
 - 1) 시사·보도 프로그램 출연패널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37
 - 2) 시기별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 vs 문재인 정부 39
 - 3) 패널 구성 현황 및 영향력 상위 패널 분석 결과 46
 - 4) 시사·보도 프로그램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요약 및 함의 51
- 2. 지상파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54
 - 1) 지상파 출연패널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54
 - 2) 시기별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 vs 문재인 정부 56
 - 3) 지상파 채널별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62
 - 4) 패널 구성 현황 및 영향력 상위 패널 분석 결과 68
 - 5) 지상파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요약 및 함의 74
- 3. 종편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76
 - 1) 종편 출연패널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76
 - 2) 시기별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 vs 문재인 정부 79
 - 3) 종편 채널별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84
 - 4) 패널 구성 현황 및 영향력 상위 패널 분석 결과 93
 - 5) 종편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요약 및 함의 101
- 4. 보도 채널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103
 - 1) 보도 채널 출연패널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103
 - 2) 시기별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 vs 문재인 정부 104
 - 3) 보도 채널별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110
 - 4) 패널 구성 현황 및 영향력 상위 패널 분석 결과 112
 - 5) 보도 채널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요약 및 함의 117
- 5. 라디오 출연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119
 - 1) 라디오 출연 패널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119
 - 2) 시기별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 vs 문재인 정부 121
 - 3) 라디오 채널별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127
 - 4) 패널 구성 현황 및 영향력 상위 채널 분석 결과 142
 - 5) 라디오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요약 및 함의 149

05 결론	153
1. 매체별 속성에 따른 패널의 다양성 : TV vs 라디오	153
2. 패널의 다양성 문제 : 영향력 상위 패널의 중복 출연	155
3. 패널의 매체 가시성과 인지도·공신력	156
4. 시사·보도 프로그램 패널의 역할 : 긍정적·부정적 기능	158
5. 연구의 한계 및 제안	159
참고문헌	162

표 목차

[표 3-1] 연구설계	29
[표 3-2] 분석 대상 시사·보도 프로그램	31
[표 3-3] 매체별 최종 분석 프로그램 수	33
[표 3-4] 시기별 분석 대상 프로그램 수	33
[표 4-1] 패널 영향력 상위 40인(연결 중심성 순)	39
[표 4-2] 박근혜 정부 종편 출연패널 영향력 상위 30인	41
[표 4-3] 문재인 정부 종편 출연패널 영향력 상위 40인	43
[표 4-4] 시사·보도 패널 영향력 상위 40인(연결 중심성·매개 중심성 기준)	46
[표 4-5] 시사·보도 프로그램 영향력 상위 패널 성별·연령대·직업·정치 성향 기초 빈도분석 결과	48
[표 4-6] 성별·연령대별 직업 교차분석 결과	49
[표 4-7] 시기별 영향력 상위 패널 성별·연령대·직업 교차분석 결과	50
[표 4-8] 지상파 출연패널 영향력 상위 40인(연결 중심성 순)	56
[표 4-9] 박근혜 정부 패널 영향력 상위 10인	57
[표 4-10] 문재인 정부 패널 영향력 상위 30인	59
[표 4-11] 정부별 영향력 상위 패널 직업 교차분석 결과	60
[표 4-12] KBS 패널 영향력 상위 15인(연결 중심성 순)	63
[표 4-13] MBC 패널 영향력 상위 20인(연결 중심성 순)	65
[표 4-14] SBS 패널 영향력 상위 15인(연결 중심성 순)	67
[표 4-15] 지상파 패널 영향력 상위 20인(연결 중심성·매개 중심성 기준)	69
[표 4-16] 지상파 중복 출연패널의 연결 중심성·매개 중심성·위세 중심성 값	70
[표 4-17] 지상파 영향력 상위 패널 성별·연령대·직업·정치 성향 기초 빈도분석 결과 ..	71
[표 4-18] 채널별 영향력 상위 패널 성별·연령대·직업·정치 성향 교차분석 결과	72
[표 4-19] 성별·연령대별 직업 교차분석 결과	73
[표 4-20] 종편 출연패널 영향력 상위 40인(연결 중심성 순)	78
[표 4-21] 박근혜 정부 종편 출연패널 영향력 상위 30인	80
[표 4-22] 문재인 정부 종편 출연패널 영향력 상위 30인	81
[표 4-23] TV조선 패널 영향력 상위 30인(연결 중심성 순)	85
[표 4-24] MBN 패널 영향력 상위 30인(연결 중심성 순)	87
[표 4-25] 채널A 패널 영향력 상위 30인(연결 중심성 순)	89

[표 4-26] JTBC 패널 영향력 상위 30인(연결 중심성 순)	92
[표 4-27] 종편 패널 영향력 상위 20인(연결 중심성·매개 중심성 기준)	94
[표 4-28] 두 개 이상의 채널에서 영향력 30인에 포함된 패널	95
[표 4-29] 중복출연한 패널의 연결 중심성·매개 중심성·위세 중심성	97
[표 4-30] 종편 영향력 상위 패널 시기·성별·연령대·직업·정치 성향 기초 빈도분석 결과 ..	98
[표 4-31] 성별·연령대별 직업 교차분석 결과	99
[표 4-32] 시기별 영향력 상위 패널 성별·연령대·직업 교차분석 결과	100
[표 4-33] 채널별 영향력 상위 패널 직업 분석 결과	101
[표 4-34] 보도 채널 패널 영향력 상위 30인	104
[표 4-35] 박근혜 정부 보도채널 출연패널 상위 20인	105
[표 4-36] 문재인 정부 보도 채널 출연패널 상위 30인	107
[표 4-37] 시기별 영향력 상위 패널의 직업 교차분석 결과	108
[표 4-38] 연합뉴스TV 영향력 상위 20인	111
[표 4-39] YTN 영향력 상위 20인	112
[표 4-40] 보도 채널 패널 영향력 상위 20인	113
[표 4-41] 보도 채널에 중복출연한 패널의 연결 중심성·매개 중심성·위세 중심성	114
[표 4-42] 보도 채널 영향력 상위 패널 성별·연령대·직업·정치 성향 빈도분석	115
[표 4-43] 채널별 영향력 상위 패널 성별·연령대·직업·정치 성향 교차분석 결과	116
[표 4-44] 성별·연령대별 직업 교차분석 결과	117
[표 4-45] 라디오 패널 영향력 상위 40인(연결 중심성 순)	121
[표 4-46] 박근혜 정부 라디오 출연 패널 영향력 상위 30인	122
[표 4-47] 문재인 정부 패널 영향력 상위 40인	124
[표 4-48] 시기별 영향력 상위 패널의 직업 교차분석 결과	125
[표 4-49] KBS라디오 패널 영향력 상위 20인(연결 중심성 순)	128
[표 4-50] MBC라디오 패널 영향력 상위 40인(연결 중심성 순)	131
[표 4-51] SBS라디오 패널 영향력 상위 15인(연결 중심성 순)	133
[표 4-52] CBS 패널 영향력 상위 10인(연결 중심성 순)	135
[표 4-53] TBS 패널 영향력 상위 40인(연결 중심성 순)	138
[표 4-54] YTN라디오 패널 영향력 상위 40인(연결 중심성 순)	140
[표 4-55] 라디오 패널 영향력 상위 40인(연결 중심성·매개 중심성 기준)	143
[표 4-56] 라디오 중복 출연 패널의 연결 중심성·매개 중심성·위세 중심성 값	145
[표 4-57] 라디오 영향력 상위 패널 성별·연령대·직업·정치 성향 기초 빈도분석 결과 ..	146
[표 4-58] 채널별 영향력 상위 패널 성별·연령대·직업·정치 성향 교차분석 결과	147
[표 4-59] 성별·연령대별 직업 교차분석 결과	149

그림 목차

[그림 2-1] 뉴스 회피 경험	17
[그림 2-2] 계층 모델	20
[그림 4-1] 10년간 시사·보도 패널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38
[그림 4-2] 박근혜 정부 시사·보도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40
[그림 4-3] 문재인 정부 종편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42
[그림 4-4] 정부별 패널 직업 네트워크 분석 결과	45
[그림 4-5] 시사·보도 프로그램 패널의 중복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51
[그림 4-6] 지상파 패널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55
[그림 4-7] 박근혜 정부 지상파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57
[그림 4-8] 문재인 정부 지상파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58
[그림 4-9] 정부별 패널 직업 네트워크 분석 결과	61
[그림 4-10] KBS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62
[그림 4-11] KBS 패널 직업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64
[그림 4-12] MBC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64
[그림 4-13] MBC 패널 직업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66
[그림 4-14] SBS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66
[그림 4-15] SBS 패널 직업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68
[그림 4-16] 지상파 중복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70
[그림 4-17] 10년간 종편 패널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77
[그림 4-18] 박근혜 정부 종편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79
[그림 4-19] 문재인 정부 종편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81
[그림 4-20] 정부별 패널 직업 네트워크 분석 결과	83
[그림 4-21] TV조선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84
[그림 4-22] TV조선 패널 시기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86
[그림 4-23] MBN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86
[그림 4-24] MBN 패널 시기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88
[그림 4-25] 채널A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89
[그림 4-26] 채널A 패널 시기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90
[그림 4-27] JTBC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91
[그림 4-28] JTBC 패널 시기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92

[그림 4-29] 종편에 중복출연한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96
[그림 4-30] 보도 채널 패널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103
[그림 4-31] 박근혜 정부 보도채널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105
[그림 4-32] 문재인 정부 보도 채널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106
[그림 4-33] 정부별 패널 직업 네트워크 분석 결과	109
[그림 4-34] 연합뉴스TV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110
[그림 4-35] YTN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111
[그림 4-36] 보도 채널 중복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114
[그림 4-37] 라디오 패널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120
[그림 4-38] 박근혜 정부 라디오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122
[그림 4-39] 문재인 정부 라디오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123
[그림 4-40] 정부별 패널 직업 네트워크 분석 결과	126
[그림 4-41] KBS라디오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128
[그림 4-42] KBS라디오 패널 시기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129
[그림 4-43] MBC라디오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130
[그림 4-44] MBC라디오 패널 시기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132
[그림 4-45] SBS라디오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133
[그림 4-46] SBS라디오 패널 시기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134
[그림 4-47] CBS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135
[그림 4-48] CBS 패널 시기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136
[그림 4-49] TBS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137
[그림 4-50] TBS 패널 시기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139
[그림 4-51] YTN라디오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140
[그림 4-52] YTN라디오 패널 시기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141
[그림 4-53] 라디오 중복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144

요 약 문

이 연구는 종편 개국 이후 방송에서 의견의 다양성이 담보되는지 규명하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방영된 종편, 지상파, 라디오, 보도 채널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분석을 했다. 본 조사에 앞서 연구자 두 명이 이 기간에 방영된 모든 프로그램을 검색해 분석 대상 프로그램을 찾았다. 한 달간 종편, 지상파, 라디오,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해 영향력이 있는 패널이 누구인지 밝혔다.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형식적인 측면의 다양성은 얼마나 다양한 전문가가 패널로 출연했는지, 한 패널이 여러 채널에 얼마나 중복해서 출연했는지로 볼 수 있다. 내용적인 측면의 다양성은 현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공중의 입장이 논의되는지, 이슈에 대한 찬반 의견이 모두 논의되는지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내용적 측면에서 특정 이슈와 관련해서 다양성이 담보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 연구는 형식적인 측면의 다양성에 주목했다. 현안과 관련된 여러 공중의 입장이 전달되는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는 방송의 다양성 측면에서 내용의 다양성 분석이 이뤄져 왔지만, 이 연구는 누가,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출연했는지 패널의 다양성도 방송의 다양성 구현에 중요하다고 보고 매체별, 채널별로 누가 자주 출연하고,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형식적인 측면의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한 프로그램에 패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단순 빈도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패널의 영향력을 가늠하기 어렵고, 수백 명의 패널에 대한 교차분석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우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영향력이 있는 패널을 찾아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매체별로 영향력 상위 패널을 추출한 후 시기별로 영향력이 있는 패널을 찾았다. 영향력 상위 패널의 직업을 내용분석하고, 그룹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직업별로 영향력이 있는 패널이 누구인지 알아냈다. 이어서, 매체의 채널별로 출연한 패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찾아낸 영향력 상위 패널의 속성에 대해 내용분석을 했다. 이들이 출연한 프로그램들

코딩하고, 교차분석을 했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종편, 지상파, 라디오, 보도 채널에 모두 똑같이 적용했다. 끝으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 전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가장 영향력이 있는 패널을 찾아냈고,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밝혔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패널 전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10명 중 약 9명이 남성으로 남성 편중 현상이 심했다. 패널의 연령대는 10명 중 4명이 50대로 나타났다. 직업을 보면 10명 중 3명이 국회의원이었는데,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여야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들을 선호한 것으로 짐작된다. 국회의원 다음으로 변호사가 많이 출연했는데, 이들이 법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데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사평론가는 종편의 출범과 함께 영향력이 크게 자리매김한 직업군이다. 이들은 정치 이슈의 배경이나 뒷이야기, 정치인 발언의 의미 등을 전달한다. 제작자 측면에서 시사평론가는 프로그램 포맷이나 제작비를 고려할 때 필요한 직군이라고 할 수 있다. 영향력 상위 패널의 성별, 연령대와 직업을 교차 분석한 결과, 여성은 변호사와 언론인일 경우 패널로 출연할 기회가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는 변호사, 50대는 국회의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수, 시사평론가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출연한 보수 패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 유튜버로 자리매김하면서 영향력을 넓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변호사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패널로 쌓은 인지도를 이용해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약하거나 정계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특정 패널이 한 채널에 편중적으로 등장하거나 특정 패널이 여러 채널에 중복해서 등장하는 양태로 나타났다. 지상파 패널의 경우, 시사평론가 패널의 영향력이 매우 높았고, 다빈도 출연 직업군으로는 국회의원 패널로 확인되었다. 일부 국회의원은 두 정부 시기에 방송 3사를 종횡하며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빈도 높게 출연했다. 지상파에 출연하는 국회의원 패널의 정치적 성향은 적어도 표면적으로 이념적 쏠림 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지상파 패널 가운데 정당, 소속, 정파성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교수, 변호사, 전문가 등의 비가시화된 정파성 직군의 특정 패널이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방송사별로 비가시화된 정파성 직군의 출연 빈도에 차이가 있고, 방송 3사

중 MBC에서 이들의 출연 빈도가 가장 높았다. 방송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치 중립적 해설과 논평을 기대하고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민들을 위해 패널의 여야 정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CBS, TBS, YTN 등 6개 라디오 채널에 출연한 패널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높았고, 정치 성향은 진보가 많아 이념적으로 편향된 양상이 나타났다. 라디오에서 특정 여론과 정보가 많이 전달되는 환경은 자칫 저널리즘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반향실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진보 정당의 일부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에서 높은 빈도로 출연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보였다.

종편에 출연한 패널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영향력이 큰 패널에 차이가 있었다. 물론, 두 정부에서 모두 활발하게 출연한 패널도 있지만, 이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다. 종편의 채널별로 살펴본 결과 선호하는 패널에 차이가 있었다. TV조선은 전·현직 언론인이 영향력 상위에 올랐고, 시사평론가도 선호했다. MBN은 다른 채널에 비해 시사평론가와 변호사를 선호했다. 채널A도 TV조선처럼 언론인을 선호했으나, TV조선이 타 언론사 출신의 전직 언론인을 출연시킨 것에 비해 채널A에 등장한 언론인은 주로 동아일보 출신의 전·현직 자사 기자였다. JTBC는 보수 성향의 종편과 차별성이 드러나는데, 다른 세 개의 채널에 비해 시사평론가가 출연하는 비율은 낮고, 상대적으로 국회의원이 많이 등장했다. JTBC가 보수 성향의 종편에 비해 여러 패널이 출연해 현안을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이 적고, '밤샘 토론' 같은 정통 토론 프로그램에 여야 국회의원이 패널로 출연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종편에 출연한 패널 중 일부는 국회로 진출하거나 정치인이 되었으며, 보수 성향의 전직 언론인이나 시사평론가 중 일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종편에 출연하지 않게 되면서 보수 유튜브로 변신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종편에 패널로 자주 등장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면서 종편이 이들의 정계 진출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종편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이들의 인지도, 신뢰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일정 기간에 한 패널이 특정 채널에 집중적으로 출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러 채널에 중복해서 출연하는 것도 프로그램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2개 이상의 채널에 출연한 패널에 대해 교차분석을 하고, 중복 출연에 대한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중복해서 출연한 패널이 상당수 있었다.

종편 프로그램 분석 결과 분석 기간에 2개 이상의 종편 채널에, 20회 이상 출연한 패널이 19명이나 된다는 것은 방송이 검증된 패널을 선호하고, 이들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패널의 중복성뿐만 아니라 패널의 편중성도 심각하다. TV조선은 20회 이상 출연자 3인, MBN은 40회 이상 출연자 3인, 채널A는 25회 이상 출연자 5인, JTBC는 20회 이상 출연자 1인으로 나타나 방송이 특정인에 의존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시청률을 중요시하는 방송사가 새로운 패널을 출연시키는 모험보다 검증된 패널을 출연시키는 안전을 선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연합뉴스TV와 YTN 등 보도 채널에 출연한 영향력 상위 패널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교수 패널과 시사평론가, 변호사 패널의 영향력이 현저히 높았다. 영향력 상위 패널 중 일부 패널은 지상파 방송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보였던 인물로서, 이들은 여러 채널에 빈도 높게 중복 출연하고 있었다. 국회의원 직군은 문재인 정부시기에 보도 채널 패널에 많이 출연하면서 영향력이 높은 상위 패널에 포함되었다. 정치와 무관한 중립적 직군으로 소개되는 교수, 시사평론가, 변호사, 전문가 등의 비가시화된 정파성 직군의 출연 빈도가 국회의원, 정치인 등의 가시화된 직군이 노출 비율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러한 양상은 연합뉴스TV와 YTN이 유사했다. 이는 보도 채널에서 비가시화된 정파성 직군을 패널로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기별로 라디오 패널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문가와 시사평론가 직업군이 약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변호사 직군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들 패널의 공통점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오랫동안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종편과 보도 채널 등에서 다양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있다. 또 라디오는 TV 방송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유치원 학부모 등의 일반 시민 패널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라디오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입장과 관점을 담아내고 있다고 보인다.

방송의 다양성 관점에서 소수 패널의 중복 출연은 방송의 품질과 신뢰를 떨어뜨리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분석 결과,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 1,229명 중에서 영향력 상위 40인에 포함하는 패널들은 종편과 지상파, 보도 채널 및 라디오 까지 넘나들면서 여러 프로그램에 중복 출연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패널은 두 정부시기에 공히 영향력 높은 패널로 자리하고 있었다.

영향력 상위 패널의 직업군은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사평론가, 교수,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원 패널의 출연 빈도는 문재인 정부시기에 두드러졌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낙천 낙선한 여야 의원들의 활약이 컸다. 또 영향력 상위 패널로서 여러 채널과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이른바 ‘비가시화된 정파성’ 직군의 패널들은 ‘시사평론가’, ‘교수’, ‘변호사’, ‘연구소장’ 등의 직함으로 불리면서 방송에 중복 출연하고 있었다. 이 중 일부는 총선 기간에 당의 공천을 받아 정계 진출에 성공하지만 본선 경쟁에 들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 다시 기자, 변호사, 교수 등의 직함을 달고 방송사의 패널로 출연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와 비슷한 맥락으로 각 사안을 평론하고 있다. 이것이 비가시화된 정파성 패널의 논평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

패널은 복잡한 현안을 쉽게 풀어주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겹치기 출연하는 변호사가 각종 사건사고에서 정치경제 이슈 전망까지 하는 모습은 정파성도, 전문성도 아닌 그저 ‘질 낮은 방송’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전문성을 겸비하지 못한 소수 패널의 겹치기 출연은 방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방송의 품질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인다.

1. 문제 제기

방송의 다양성은 방송의 역할에서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편성 및 방송 시간의 제약, 방송사의 시청률 경쟁 등 환경적 요인으로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특히,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내용의 다양성이 중요한데, 내용의 유사성이나 동질성이 사회 내 의견 다양성과 시청자의 선택적 노출을 억압하고 축소시키며, 다양성의 결여 및 획일화를 가져온다는 점 역시 계속 지적되어왔던 부분이다(최민재·조영신, 2009). 기존 지상파에 집중된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비판하에 2011년에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였고, 시청자들은 보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뉴스 구성의 변화를 기대했었다. 이처럼 종합편성채널은 지상파 3사에 한정된 보도 기능을 보완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유권자들이 더 많은 정보 습득과 정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출범했으나 종합편성채널 10년을 맞이한 현재, 과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상파를 포함한 여러 매체들은 보도 경쟁에서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표출됨으로써 의견의 편향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종편을 포함한 방송이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시사·보도 프로그램¹⁾의 내용인 뉴스의 다양성이

1) 이 보고서에서는 방송의 다양성을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장르적 정의 측면에서 최근 뉴스 프로그램, 시사 토론프로그램, 시사토크프로그램 등의 명칭으로 제작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형식 구분도 쉽지 않을뿐더러, 프로그램에 패널이 출연해 사회·정치·문화적 이슈를 동시에 논하는 방식이

사회 내 의견 다양성 및 민주주의 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정수영·구지혜, 2010). 그러나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시사·보도 프로그램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의적 뉴스 의제에 정확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보다 안정적 시청률이 보장되는 패널을 찾는다.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지상파 3사와 보도채널 2개, 종합편성 채널 4개 등 9개의 채널을 통해 정치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만, 여러 채널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패널과 이 패널이 여러 채널에서 비슷한 논조의 의견을 밝히기에 핵심 쟁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다. 프로그램마다 비슷한 형식과 동일한 패널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프로그램과 패널의 편향성이 시청자의 알 권리와 시청자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편성채널은 소위 ‘종편저널리즘’이라 불리며, 방송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정치과잉’을 가져왔다는 평이 지배적이다(김고은, 2021. 11. 23.). 특히 종편의 대담 프로그램은 선정성과 편파보도, 자의성과 불공정 시비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재를 받아왔다(유민지, 2016). 동일 패널이 반복해서 여러 프로그램에 등장하고 비슷한 의견을 표출하는 현상을 방송 제작자들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편 등장 초기에는 제작비 절감과 시간 때우기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종편이 이러한 토크 형식의 시사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이러한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4월 종합편성채널의 조건부 승인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국내 방송 보도 양식은 변화하였는지, 시사보도 프로그램 간 차별적 내용 구성과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국내의 방송 환경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종편 출범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패널의 중복성, 편향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특정 패널이 비슷한 주제로 여러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의견을 밝힌다면, 시청자로서는 비슷한 의견을 반복해서 시청하게 되고 다양한 의견을 접할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방송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게 언급되는 기준 중 하나가 다양성이다(Anderson, 2014).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 차원은 구조와 내용으로 구분할 수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도 계속 변화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해, 시기별 맥락에 따라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명칭을 선택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많은 수의 프로그램 종류와 형태를 통해,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가능한 많은 주제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방송 패널의 다양성은 서로 다른 지적 배경이나 이력을 보유한 패널들의 관점, 의견, 주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의 시민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중대한 이슈,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에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이지만, 이들의 정치적 식견이 풍부하지 않다. 모든 사안에 대해 전문적 정보를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잡한 현안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패널의 역할은, 시민의 사적 자치를 위한 의사결정뿐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시사 및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은 정치인, 변호사, 교수, 사설연구소 관계자, 전현직 공무원 등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 패널의 편파성 논란을 제기해 왔다(김관규, 2013). 그러나 최근 들어 변호사, 교수, 연구소 관계자 등 비가시화된 정파성 직군의 정파성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하기 시작했다(손화정·이영주, 2019). 변호사, 교수, 연구소 관계자 등이 출연할 때 방송사에서 정당, 소속, 정파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가시적으로는 중립적 직군 패널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사실상 관련 정당의 입장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소수 패널의 겹치기 출연 또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편파성 문제뿐 아니라 평론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방송의 품질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루 3개의 종편에 출연하는 패널들의 발언은 외부 출연자라는 이유로 사실 확인과 내부 데스크링 과정이 대폭 생략되어 있어서다. 이들의 발언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겹치기 출연하는 변호사가 각종 이슈에 논평하며 사람의 심리를 추론하고 있고, 시민단체 관계자가 각종 사건·사고부터 정치경제 이슈 전망까지 하는 모습은 정파성을 띠는 패널도 아닌, 전문가의 역할도 아닌 그저 ‘질 낮은 방송을 만드는 구성원이자 패널’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소수 패널의 제한적 식견의 반복적 제공은 시청자가 식견 있는 시민(informed citizen)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기존 연구들도 패널들의 편파성, 겹치기 출연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증적 연구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방송프로그램의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분석 기간을 3~6개월 등으로 제한해왔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사안을 측정해 그 안에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 종단적 변화를 읽어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과제는 지난 10년간 지상파방송 3사, 종합편성채널 4사, 보도전문채널 2사의 주요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포맷이 어떤 변화를 보였고, 패널의 특성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 그 결과를 기반해 프로그램 및 출연 패널의 특성 변인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 파악을 하는 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치적 견해와 이념에 따라 하나의 사건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는 풍토가 만연된 작금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이 과제는 종합편성채널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와 대통령·정치인에 대한 태도 및 정치 이슈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방송프로그램 장르의 다양성, 시청자의 노출의 다양성 등 방송의 다양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떠한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송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포맷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방송사 간에 프로그램 포맷이 얼마나 유사한지 알아본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견을 밝히는 패널은 쟁점에 대한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따라서, 방송사별로 주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히고, 제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이 목표이다.

방송의 다양성은 방송의 공공성 논의와 맞물려 방송 사업자의 주요 관심사이자 핵심 논의 주제 중 하나이다. 방송은 다른 미디어와 달리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전파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방송의 공적 책무, 공익 추구는 방송의 의무로 여겨졌다(McQuail, 2010). 방송의 다양성이 방송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이유는 방송의 효과 때문이다. 언론은 시간적 제약과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뉴스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뉴스 가치를 근거로 사회에서 힘이 있는 기관, 인물을 중심으로 취재하고, 보도한다. 따라서, 언론에 많이 보도될수록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힘이 없는 국가, 집단, 사람들, 영향력이 적은 이슈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Shoemaker & Reese, 1996). 쟁점에 대한 다양한 입장, 사회적 약자, 소수의 의견이 표출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것이다. 뉴스 취재 관행만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국가에 특파원이 파견되고, 주요 출입처는 대통령, 정부, 국회, 대기업이다. 특파원과 출입처 중심의 뉴스가 생산되기 쉬운 구조이다. 이러한 관행은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도 반영된다.

이론적 측면에서 방송의 다양성은 전통적으로 프로그램 장르의 다양성이 논의되었고,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하고, 뉴미디어의 발달로 OTT 서비스가 등장한 이후 방송 사업자 간 편성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서영남·김창숙·박종민, 2008; 송인덕, 2016; 오경석·박주연, 2020).

종합편성채널이 뉴스·시사보도 프로그램과 같은 일부 장르에 집중 제작됨으로써 방송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시청자의 선택 폭이 감소하였음을 논의하거나(정지영·유세경, 2015), 미디어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한다(유의선, 2009). 총선기간동안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의 보도행태를 분석한 논의에서는 출연 패널들은 충분한 정보와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 논증을 거치기보다 약식 논증과 비논리적인 발화 양태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유경한·심훈·김경모, 2017).

시사·보도프로그램이 어떠한 구성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는지, 프로그램 출연 채널들의 정치적 이념이나 전문성 등이 시청자들의 여론형성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방송의 다양성, 미디어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국내 방송 환경을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과제의 독창성은 이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다양성을 분석했다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했을 때 기존 미디어와 신규 미디어의 프로그램 다양성을 비교했고, 장르·주제·패널의 다양성을 분석했다(조익환·이상우, 2012; 신선경·박주연, 2016).

이 연구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과 같은 통계분석뿐만 아니라 내용분석 결과를 토대로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패널의 중복성, 편향성의 전반적인 경향과 채널별로 어느 패널이 자주 등장하는지, 패널별 영향력은 어떤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용분석이 특정 인물이 미디어에 얼마나 자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가시성(visibility)을 수치로 나타냄으로써 전반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네트워크 분석은 패널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네트워크 관계에서 파악할 수 있다(Hansen, Shneiderman, Smith & Himelboim, 2019). 또한, 그룹 분석을 통해 채널별, 패널 직업별, 성별, 연령대별 패널의 중복성을 비교함으로써 다른 패널과의 관계에서 특정 채널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다.

내용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의 두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내용분석이 갖고 있는 한계, 즉 경향을 파악하지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밝힐 수 있다.

이 연구의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1. 방송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뉴스는 높게 평가받는 텔레비전 장르다. 뉴스가 지녔다고 주장되는 객관성과 정치 단체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은 민주주의 작동의 필수적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뉴스는 동시에 상품이기에 때문에, 뉴스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데 더 비용이 많이 들며, 광고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시청자를 창출해야 한다는 모순적 상황에 놓인다. 존 피스크(1987/2010)는 뉴스는 다른 텔레비전 형식만큼이나 관습적이라고 설명한다. 마감 시간의 독재가 관습으로서만 가능한 속도와 효율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뉴스의 관습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은 시청자로 하여금 뉴스의 상업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다. 국내의 경우, 종합편성채널의 출범은 기존의 지상파 뉴스에 대한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근거로 했다. 하지만 종편은 시작부터 제도적 특혜를 받았고, 과도한 보도와 시사토론 관련 콘텐츠로 집합적 정체성을 구현하면서 정치적 정파성을 드러냈다(이기형, 2014). 그리고 이러한 시사 보도 프로그램 제작 방식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뿐,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종편 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사담’의 양식을 통해 생산된 담화가 특정한 이념적 시각에서 구성된 현실상을 객관화, 자연화하고, 특정 집단을 부정적인 감정의 대상으로 타자화 하는 양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시사 토크 쇼’의 이야기는 시청자를 국민으로 호명하고 감정이 담긴 발언을 통해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작동시킨다(박지영·김예란·손병우, 2014)는 점은 종편의 현재의 평가를

이끄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종편은 채널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담화 형식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했고,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지적한 연구들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을 분석, 지상파 뉴스 보도에 요구되었던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기준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논의, 그리고 이러한 종편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출연자, 출연자들의 발언, 그리고 이러한 보도 내용이 시청자와 담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최선규·유수정·양성은(2012)은 당시 국내 미디어 보도의 편향성의 수치를 측정해 보도의 특징을 제시하였는데, 뉴스보도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용자들의 믿음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원희영·윤석민(2015)은 18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공정성을 측정하였다. 대통령 선거가 보도의 공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사례이기도 한데, 등장인물의 균형성과 발언의 편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수 채널의 편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정 집단에만 소구하는 뉴스는 상이한 집단 간의 소통을 어렵게 하는 집단 양극화(group polarization)를 가속화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윤영철, 2007; Morris, 2007; 원희영·윤석민, 2015, 재인용). 즉, 소통의 양극화 및 미디어 간 이념적 갈등이 이미 극심한 상황인 우리 사회에서 편향성이 강한 종편 뉴스가 이념을 달리하는 정치 및 사회집단 그리고 미디어 간의 대립 및 갈등을 한층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유경한·심훈·김경모(2016)는 20대 총선과 관련해 종편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 논리적 합리성의 차원에서 얼마나 이성적인 논증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데올로기 차원에서의 정치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선거 관련 이슈를 전달했는지 분석하였다. 종편의 주요 시사 대담 프로그램은 20대 총선 국면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은 편파적으로 배척하는 프로파간다 성향을 나타냈으며, 출연 패널들은 충분한 정보와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 논증을 거치기 보다 약식 논증과 비논리적인 말화 양태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화정·이영주(2017)는 종합편성채널 시사 대담 프로그램의 출연 패널 특성 및 패널 발언과 입장 간의 상관성을 연구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패널의

직군은 정치와 관련이 없는 중립적 직군으로 소개되었으나 이들의 정파성을 고려하여 재분류하면 정당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널 발언의 정파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패널은 여당 혹은 야당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정당과 연관성이 많을수록 패널의 정파적 발언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제작진의 자율규제 강화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 다양성은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멜처(Meltzer, 2015)는 미디어의 비시민성이 정치적 냉소주의를 유발하고 공적 신뢰와 시민 참여의 쇠퇴를 유도하는지 검증하고 그 경로를 이론화하는 데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미디어의 비시민성은 정치적 신뢰뿐만 아니라 전달자에 대한 비난(blaming the messenger)의 형태로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국내의 경우, 종합편성채널이 미디어 시장에 새로 진입하면서, 기존의 지상파에 집중되어 있던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보다 자극적이고 공격적이며 편향적인 콘텐츠가 증가한 해외의 사례(금희조·조재호, 2015)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금희조·조재호(2015)는 종합편성채널 시사 토크쇼 시청이 시민들의 정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시사 토크쇼 시청이 정치적 신뢰를 증진한 측면도 있지만, 정부와 정치 성향에서 공감대가 높은 사람들이 종합편성채널의 주 시청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토크 쇼가 비판적 의견이 다양하게 형성되는 과정을 저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종합편성채널의 주요 패널로 등장하는 정치평론가들이 논조의 획일성과 과도한 당파성, 원색적이고 선정적인 표현, 자의적인 판단 등이 문제인 것처럼(강찬호, 2013), 종합편성채널의 패널들이 정치적 성향을 갖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이들의 정치적 이력과 정파성이 은폐되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기되는 견해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크다(손화진·이영주, 2019). 특정 정당과 직접적인 연결성을 가진 패널의 경우 이들의 정파성을 제시해, 패널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직함만 방송 자막으로 표시하여 짧게 비추어지면 정당을 대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패널들의 발언을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거나 혹은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는 중립적인 것으로 착각할 여지가 크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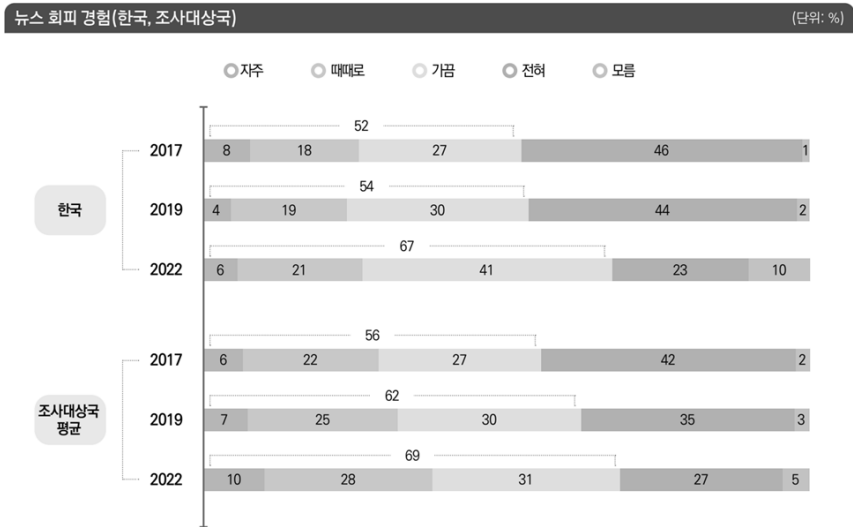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뉴스의 정확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미디어의 경쟁 여부보다도 수용자들의 믿음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지의 여부다. 수용자들의 믿음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뉴스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고 정확한 뉴스를 원하는 수용자는 다양한 곳에 위치한 미디어들의 뉴스를 모두 소비하여 사실에 대한 정보를 재구성함으로써 사실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여러 정당들 간의 정치적 경쟁은 주요 사안에 대한 수용자들의 믿음을 다양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뉴스의 정확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최선규·유수정·양성은, 2012).

결국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정확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다양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패널의 섭외, 패널의 발화를 사전에 구성하고 방송으로 제작하는 과정에 참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의 다양성이다. 언론의 다양성은 그동안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왔는데 첫째는 내적 다양성(internal diversity), 둘째는 외적 다양성(external diversity)이다. 내적 다양성은 언론사 내부에서 이뤄지는 언론보도의 다양성으로 편집기준과 편집과정, 취재원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외적 다양성은 언론시장 내에 얼마나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와 연관된다(권혁남, 2002; 김은규, 2007). 그리고 이러한 언론사의 다양성은 여론 다양성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기준이자 바탕이 된다.

국내의 경우, 지상파,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 등 많은 보도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앞서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했듯이, 미디어가 매개하는 토론과 담론 형성의 장이 원활히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참여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수행한 <디지털뉴스 리포트 2022>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뉴스를 선택적으로 회피(selective news avoidance)하는 이용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데, 한국의 응답자들 중 ‘뉴스를 신뢰할 수 없거나 편향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뉴스 회피 경험



*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했기 때문에 세목과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 -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온라인 설문조사 (2022년 1월 11일 ~ 2월 21일)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 한국)²⁾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고 디지털 기술의 뉴스정보 확산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자극적이고 공격적이며 편향적인 콘텐츠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의 시청자/이용자들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기보다는 계속 채널을 돌리며 관심사와 부합하는 채널을 선택하는 등 끊임없이 이동하는 미디어 소비행태를 보인다. 미디어 생산자들은 이러한 이용자의 시청패턴, 정보 소비패턴 맞춤형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감정에 기반한 사담 형식의 토론과 뉴스 보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뉴스 아젠다에 해당되는 등장인물 관련 스캔들, 사생활 보도, 자극적 추측 등 드라마와 예능 장르에서 선택하는 구성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류동협·홍성일(2013)은 종편이 이데올로기를 적극 차용하는 점에서 폭스뉴스와 유사하다고 설명하면서, 시사토크쇼의 집중편성은 경제적 압력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결국 시청자의 주목도를 끌기 위한 전략으로 선택한 자극적 보도로 종합편성채널의 등장 이유가

2) 최진호(2022). 뉴스신뢰하락과 선택적 뉴스회피 증가, <MEDIA ISSUE> 8권 3호, 한국언론진흥재단, 2쪽, 재인용.

사라졌고, 오히려 저널리즘의 가치와 민주주의 및 공공성을 해치는 반대급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역할과 영향력은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하버마스(Habermas, 1987)는 텔레비전 토론이 시민의 공적 관여가 자유롭게 이어지는 진정한 공개토론이 아닌 단순한 홍보와 수동적 관객의 영역이 되었으며, 따라서 일반인의 관심을 정치적 행위에서 멀어지게 하는 의사공론장을 제공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미디어는 정치를 한편의 볼거리로 규정하였고 공중들에게 미리 정리된 간편한 사고를 제공함으로써 공중들을 수동적인 소비자의 역할에 맞게 조건화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는 더 이상 공중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합리성을 확보해주는 대상자가 아니라 공중을 방관자로 전락시켜버리는 수단이 되었고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을 하는 통로의 구실을 하는 대신에 여론을 조작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토론프로그램의 순기능을 논했던 뉴컴과 허쉬(Newcomb & Hirsch, 1984)는 텔레비전 시사토론은 사회의 다양한 입장들이 경합하는 포럼이며 시사적인 공적 토론과 논쟁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문화적 포럼이므로, 토론에서 분명한 합의나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제기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능동적인 역할을 부여한다고 설명한다(김훈순·김은정, 2002).

국내 방송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종편 출범 10년 현재, 디지털 플랫폼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감정적 토론, 사담 형식의 토론프로그램의 현재가, 편향적 정보원이나 패널의 중복 출연, 패널의 전문성보다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현재의 시사 보도프로그램은 공중 참여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공중을 방관자로 혹은 뉴스를 회피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등 여론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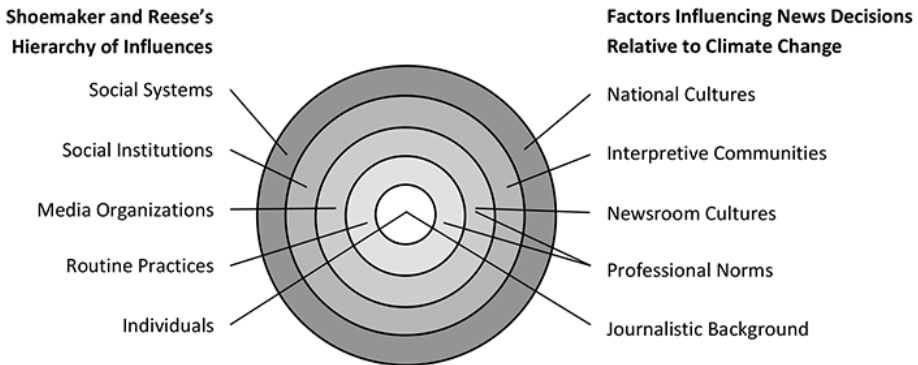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동인으로는 여러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연구는 미디어 사회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 Reese, 1996)의 계층 모델을 중심으로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 주목한 매체의 특성과 조직의 성격은 뉴스 아이템을 선정하고, 주제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친다.

<그림 2-2>의 가장 안쪽 원은 기자의 개인적 성향을 의미한다. 기자의 교육 수준이나 성별, 종교, 인종 등이 뉴스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디어 관행이 있는데, 관행은 조직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이다. 미디어 관행으로는 뉴스 가치, 출입처 제도, 특파원 제도, 게이트키퍼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뉴스 가치는 방송사가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권위 있는 정보원을 선호하고, 시청률이 잘 나오는 정보원을 선호하는 것도 뉴스 가치와 관련이 있다.

이밖에 조직의 정치 성향도 패널을 선정할 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조직이 보수인지, 진보인지에 따라 진행자를 선정하는 것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매체의 정치 성향은 뉴스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손영준, 홍주현(2018)은 언론이 복핵 문제를 다룰 때 신문사의 정치 성향이 보수인지, 진보인지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다고 비판했다. 언론의 정치 성향은 복핵 문제에 대한 해법, 복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복핵 문제 해결 주체 등 현실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정치 성향과 함께 미디어 조직이 공익성과 책임이 중요시되는 지상파 방송인지, 종편이나 라디오 방송인지 매체에 따라서 전달하는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영상을 통해 패널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지상파, 종편과 달리 라디오는 목소리만으로 패널을 알 수 있기에 인지도가 높은 패널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계층 모델의 최상위에 있는 사회 제도, 사회 체제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미디어 조직의 정치 성향과 함께 보수 정부인지, 진보정부인지에 따라 시사 프로그램의 성격, 앵커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2] 계층 모델



이와 같이 여론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은 결국 미디어 다양성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 Reese, 1991)가 설명한 것처럼, 미디어 다양성은 시장의 구조, 정부정책, 미디어 조직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지만 특히 매체 간의 경쟁이 아이디어 시장에서 다양성을 유도할 뿐 아니라 중요한 이슈에 대해 폭넓은 토론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tman, 1979, 강명현, 2016). 강명현(2016)은 리트만(Litman)의 논의처럼 네트워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다양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논의뿐 아니라, 경쟁이 가속화될 경우 다양성이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반과 클렌버그(Van der Wurff & Cuilenburg, 2001)의 비판적 논의도 살펴봐야 함을 제안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케이블채널인 CNN과 지상파 네트워크 주제 선정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지상파 뉴스와 YTN 뉴스 프로그램 비교 연구에서도 뉴스 주제의 분포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심훈, 2004).

따라서, 여론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주제의 다양성은 진행자, 뉴스 주제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중계되는 사회자와 패널 간의 토론, 관계성 등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매체 간, 플랫폼 간 연동되는 정보 생산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대중의 정보소비 패턴을 고려해 여론 다양성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성의 의미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나타난 권력 관계 : 누가 영향력이 있는가

이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누가 자주 등장하고, 영향력이 있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방송에 많이 나온다는 것은 시청자에게 특정 인물이나 조직, 사건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리즈 & 슈메이커, 1996). 선행연구에 따르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뉴스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뉴스 조직의 출입처는 힘이 있는 권력 기관, 선진국, 대기업에 있고, 기자는 취재원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을 선호한다.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공신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뉴스는 특정 인물이나 조직, 국가를 더 자주 보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누가 중요한지 알려준다. 따라서,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누가 많이 등장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는 사람들을 타인들의 비슷한 경험에 노출시킴으로써 개인 경험을 정치화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미디어 보도는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미디어는 공간을 초월해서 사건들을 집합화하고 그 문제들을 국가 차원으로 정의내리게 하기 때문이다(Mutz, 1998, 양승찬 옮김, 2000, 192쪽).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근거로 개인 경험이 이야기하는 정치적 효과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기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뉴스 아젠다뿐 아니라 그 아젠다가 누구를 통해 발화되는가는 중요한 근거일 것이다. 결국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누가 많이 출연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는 여론을 형성하고 뉴스 아젠다의 다양성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나타난 권력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패널의 구성을 주목하였고, 영향력이 있는 패널을 찾기 위해 이 연구는 네트워크 접근을 선택했다. 네트워크 접근은 같이 패널로 출연한 사람 중에서 상대적으로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알려주는 접근 방법이다(Menczer, Fortunato, Davis, 2022). 한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한 패널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근거로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특정 패널의 상대적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네트워크 접근은 영향력 상위 패널을 찾아내는데 유용한 수단이다.

이 연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 영향력을 알려주는 값인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페이지 랭크 값을 기준으로 영향력을 판단했다. 연결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노드와 연결된 모든 연결선 개수를 의미한다. 연결 중심성이 클수록 네트워크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노드와 연결된 최단 거리의 합을 평균한 값으로 매개 중심성이 크면 네트워크에서 아는 사람이 많다,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세 중심성은 나와 연결된 사람들의 중요도를 근거로 측정한 값으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려주는 값이다. 위세 중심성이 크면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 방송 시사·보도 프로그램 포맷 변화

1) 정치를 매개하는 방송 시사·보도 프로그램

텔레비전 방송에서 사회적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은 ‘정치’ 관련 프로그램이며, 그중에서 시사·보도 프로그램일 것이다. 텔레비전은 정치를 매개하지만 동시에 정치를 수행함과 동시에 정치적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텔레비전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이영주, 2016, 37).

정치에 있어서 텔레비전은 이전에는 정치에 대해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수용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정치 정세를 전달함으로써 그들을 정치적인 방향으로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로퍼(B. W. Roper, 1971)는 텔레비전이 모든 미디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미디어로서 정치에 관한 핵심 정보원이며 가장 신뢰도가 높은 미디어라고 평가한다. 오늘날 정치는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시청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김환열, 2000, 20쪽).

뉴스를 보도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가장 극단적이고 양극화되어 있는 견해를 밝히고 양극단에 있는 진영으로서 이들을 보여줄 수 있는 대변인을 찾는 것이다. 논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한 집단을 다른 집단에 맞서서 싸우게

하는 법정 소송과 같은 장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 생각하는 바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Tannen, 1999, 3-4; 이준복, 2013, 33쪽).

국내의 경우, 공적 토론은 주로 텔레비전에 의해 중계됨으로써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방송 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선거, 정치적 이슈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정치적 이슈를 선정해 정보를 전달하고 출연 패널들의 의견에 따라 여론이 좌우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기 이전에는 공중과 텔레비전 채널에서 제작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주를 이뤘다.

현재 국내에서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거치면서 프로그램 간 경쟁이 심화되었고,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 이슈를 다루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 지상파에 집중되었던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출범한 것이 종합편성채널이지만, 사회정치적 이슈를 선택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보다 시청률이 담보되는 패널 간의 사담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면서,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종편의 등장은 저널리즘의 시장 지향적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대중화되고 전통적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와 의존도가 감소하면서 미디어 기업들은 대중들의 관심과 흥미에 소구하기 위해 뉴스를 연성화하고 이성과 논리가 아닌 감정에 소구하는 발화 스타일을 취하고 있다(Brant & Haan,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종편의 시사 토크쇼의 등장은 방송 담론의 사사화, 저널리즘의 친 시장전략, 시사 토크쇼의 장르 변형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중첩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방송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주목해본다면 정치적 편향성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출연패널들의 전문성이나 내용의 충실함에 집중하기보다 상대를 공격하고 대중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발언 끊임없이 생산되는 상황이다.

2) 시사·보도 프로그램 포맷 변화 요인과 평가

국내의 경우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변화는 사회정치적 환경과 밀접한 것이라고 본다. 1987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대담형식이, 이후에는 논쟁형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장르의 변화를 보여준다. '6.29' 선언 이전의 토론프로그램들이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주제선정이나 비판적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함으로써 정치성과 비판의식이 결여되었고, 형식적으로도 좌담형식이 주종을 이루었다(김훈순·김은정, 2002, 72쪽). 제한적이었던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형식은 1990년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수동적 역할로서의 시청자가 아니라 사회정치적 이슈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성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시청자 전화 참여 형식일 것이다. 이후 시사 토론프로그램은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적 토론은 텔레비전에 의해 제공되어왔다. 특히 텔레비전의 시사 토론프로그램의 경우, 민주주의의 핵심인 여론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사 문제를 주제로 삼아 시청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를 알리고 정보를 확산시킴으로써 환경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방송 토론 프로그램은 특히 전통적으로 저널리즘적 성격이 취약한 방송의 기능을 강화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미수, 2003, 108쪽).

국내에서 시청자 전화참여 형식을 도입한 토론 프로그램은 KBS <생방송 심야토론>, MBC <100분 토론>, SBS <토론공방>이며, 방송국의 대표적인 간판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토론이 여타의 대담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형식성이다. 이효성(1997, p. 35)은 토론은 특정한 절차, 시간제한, 조직 등과 같이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토론을 지배하는 규칙들은 사전에 협상되어 청중에게 확실하게 명시되고 토론자들에게도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한다. 선거 시기 방송사에서 편성한 선거 토론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형식적인 엄격함을 유지해왔었다. 여당과 야당에게 동등한 발언 기회와 시간을 부여하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사회자의 경우 엄격한 토론규칙이 부재하는 시사토론의 경우에도 소극적인 방식으로 토론자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왔다. 사회자는 텔레비전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야 했고, 지상파 방송사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그리고 토론 프로그램 역시 비슷한 위치를 유지해왔다. 이종수(1997)는 선거토론 방송에서는 사회자가 주위를 많이 끌게 되면 토론의 진행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토퍽을 바꾸거나, 후보들의 차이점을 명백히 하거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로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시사토론의 경우는 사회자가 곧 형식이라 할 만큼 사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어진 논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강태완, 2002, 13쪽).

지상파 중심의 전통적인 저널리즘이 취하던 이성적이고 객관화된 담화양식이 해체되고 새로운 담화양식이 방송 영역에서 제도화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 사회자의 역할, 패널의 발언 방식과 패널들 간의 관계 등 기존과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토론 도중 화를 내거나 설전을 벌이는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 두고 강준만(2013, 100쪽)은 증오, 대립, 분노의 정치를 통해 최근 한국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희은(2011)은 종편 시사 토크쇼는 일상적, 비공식적인 언어로 거리낌 없이 개인의 사건과 감정을 표현하는 담화 양식을 취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인터넷 언론이 부상하면서 기존의 전통적 언론이 시청자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시장지향적 전략의 일환으로 내세우는 담화를 도입했던 변화 역시 종편 시사 토크쇼의 등장을 예견했던 맥락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종편에서 제작하는 시사 토크쇼의 경우 개인의 사건과 감정을 비공식적인 일상의 언어로 거침없이 표현하고 감정을 매개로 소통을 시도한다. 박지영·김예란·손병우(2014)는 종편의 시사 토크쇼는 공적인 이슈를 다루거나 시청자들에게 의견 표명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기존 지상파의 시사토론 프로그램과 차이를 갖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선정적이고 자극적 언어표현을 통해 시청자들을 자극하고, 출연의 빈도에 기반한 친밀감을 시청자들과 형성하게 된다는 점은 1990년대 등장한 미국의 버라이어티 토크쇼와 유사성을 띠는다고 설명한다.

전통적인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서 사회자는 대화를 통제하는 권위를 지니며, 패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대화의 맥락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관습을 따른다. 하지만 종편의 경우, 의도적으로 전통적인 지상파의 토론프로그램과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사회자가 패널의 토론을 통제하기 어려운 방식이 그에

해당된다. 사회자의 말을 끊고 주장을 펼치거나 사회자와 친밀감을 드러내는 웃음을 짓거나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친밀감을 방송 토론중에도 드러낸다. 이러한 제작방식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패널의 중복 출연이 이어지면서, 시청자들은 반복적으로 출연하는 패널들의 주장과 발화방식에 익숙해지게 되었고, 이후 종편의 제작 관행이 지상파 토론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지상파 방송사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지상파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권순택, 2016. 3. 29.).

신선경·박주연(2016)은 KBS 1TV <시사진단>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을 분석하였는데, 두 시사 프로그램은 모두 특정 주제에 치중해 주제의 다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두 프로그램 모두 패널들의 정치 성향이 보수 편향으로 나타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접하기 어려웠다. 분석된 두 프로그램의 주제 및 패널 다양성은 서로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내용 다양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총선 시기에는 지상파와 보도 채널, 종편 채널 모두 정책 보도 없이 선거전략이나 정당 내부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는 보도에 대한 비판도 컸고,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패널의 겹치기 출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패널 중심의 구성으로 온전한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담론이 컸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한 종료’, ‘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결론’, ‘가습기 살균제 추가 독성물질 확인’ 등 시사토크프로그램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남지원, 2016. 3. 14.).

3) 시장주의와 방송 다양성의 경계에 놓인 시사·보도 프로그램

앳키슨(Attkisson, 2020)은 미국의 경우 채널 간 보도하는 뉴스 정보의 특성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러한 매체 환경이 형성된 데에는 폭스 뉴스의 책임이 크다고 설명한다. 폭스 뉴스가 편향적 케이블 뉴스의 전형인 영합주의를 개척했고, 폭스뉴스가 생산하는 뉴스정보가 비교적 높은 효과를 얻었는데, 이후 다른 경쟁사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뉴스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른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폭스 뉴스가 대중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이후 CNN과 기타 방송사들 역시 폭스뉴스의 영합주의를 그대로 따랐다(Attkisson, S, 2020, 서경의 옮김, 2022, 272쪽).

류동협·홍성일(2013) 역시, 국내 종편과 비슷하게 기존의 방송계에 새로 진입한 미국 폭스뉴스 채널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뉴스 정보 생산과정에 이데올로기를 적극 차용하면서 정치와 뉴스의 경계가 흐려지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지적하였다.

우리 사회 전반에 민주화가 정착되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예측할 수 없는 갈등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와 종편 채널은 사회적 이슈를 실시간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튜브나 인터넷 등을 통해 비전문가, 선동가가 생산하는 정보가 소비되고 있고, 그에 대한 페이크 뉴스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방송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역할을 그래서 더 막중하다.

리프만(Lippmann, 1922)은 ‘머리 속의 상’(pictures in our head)라는 개념을 통해 대중이 직접 경험으로 현실을 인식하기 보다는 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는 모습대로 현실을 인식한다는 경향을 주목하였는데, 매스미디어 시대의 리프만의 지적이 소셜미디어 시대의 현재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가능하다는 부분은 아이러니하다. 앞서 살펴봤듯이, 오늘날의 텔레비전 뉴스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대중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뉴스를 시청할 수 있는 시청자 수는 제한되어 있고, 채널은 많기 때문에, 시청자의 주목을 끌기 위한 뉴스 프로그램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은영·유선영(2014)은 그랜트(Grant, 1984)의 논의를 통해, 소수의 시청자에게 도달하기 위해 케이블 채널의 수가 많아질수록 프로그램 장르의 다양성은 증가할 수 있지만, 채널 내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수직적 다양성은 채널의 수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채널 수가 훨씬 많은 케이블 방송에서의 프로그램 다양성 보다 공영방송(PBS)에서의 프로그램 다양성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는 공급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내용의 다양성이 항상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수영·이지혜(2010)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서의 뉴스 다양성은 뉴스 매체 상호 간의 보완 및 대체 관계와 함께, 지상파TV의 매체적 속성 및 시청자의 시청

습관이 고려되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시청자의 취향과 관심 영역이 아무리 분화되고 다양해져도 공적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전달해야 할 뉴스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상파 시사·보도 프로그램과 종편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비교했을 때,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패널의 섭외와 주제의 선정, 사회자의 역할 등이 저널리즘적 기능에 부합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것인지는 여전히 비판적 논의가 큰 상황이다. 집중해 시청해야 하는 방송 시사·보도 프로그램, 이동하면서도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와 기존 방송사의 유튜브 뉴스 채널, 그리고 비전문가의 채널에서 이야기되는 시사 정보 등 하나의 아젠다가 다양한 플랫폼과 사회자, 패널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지켜져야 하는 원칙으로서의 방송 다양성은 현실적 적용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정치적 이슈도 어려운 부분이다. 한진만(2010)의 논의처럼, 방송사 혹은 채널이 지니는 성격에 따라 각각의 전문화나 특성화가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방송의 다양성이기 때문이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속 뉴스 주제 다양성은 결국 내용적으로 얼마나 차별화된 정보와 의견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프라이어(Prior, 2007)는 매체가 다양해지고 선택범위가 넓어질수록 이용자들이 뉴스 정보 콘텐츠보다 오락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설명한다. 종편 뿐 아니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이 대중화되면서 빠르게 소비할 수 있고, 주목도가 높은, 그 정보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일지라도, 정보를 시청자들은 선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청자들이 언론인들의 의제설정 과정을 거친 지상파 뉴스보다, 전통적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고 오락적 형식을 가미한 형식의 케이블 TV의 시사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게 된 취향 변화(Sobieraj & Berry, 2011; 금희조·조재호, 2015)를 지적했듯이, 국내 종편 이후 시사 토론프로그램 내용구성의 오락적이고 선정적 방향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프로그램 구성에 시청자들이 크게 호응도 크다는 점은 같은 맥락에서 현재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저널리즘적 기능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1.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종편 개국 이후 10년간 방송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 분석을 통해 방송의 다양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향력 상위 패널을 추출한 후 패널의 속성을 내용분석 했다. 구체적으로 분석 대상 프로그램 출연한 패널을 시기별,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로 네트워크 분석해 영향력이 있는 패널을 찾고, 여기서 추출된 패널의 속성을 알아봤다. 패널의 속성은 성별, 연령대, 직업과 국회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 정치 성향을 알아봤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매체별, 채널별로 선호하는 패널이 누구인지, 어떤 패널이 중복해서 출연하는지 밝혔다.

[표 3-1] 연구설계

연구주제	연구방법	분석 내용
방송의 다양성	네트워크 분석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영향력 있는 패널 선정 시기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직업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패널의 속성 분석(성별, 연령대, 직업, 정치 성향)

2) 분석 시기 및 분석 프로그램

방송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10년간 보도 프로그램과 시사 프로그램을 검색했다. 이 연구는 정부별로 패널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석 시기를 보수 정부(2012년 12월 1일~2017년 5월 9일)와 진보 정부(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로 구분하고, 약 10년간 프로그램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4월 1일부터 한 달간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10년간 지상파, 종편, 보도 채널, 라디오에서 방영된 모든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표 3-2>와 같이 정리했다. 각 채널의 홈페이지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찾고, 방영 중인 프로그램과 종영 프로그램을 검색해 방영 시기를 알아냈다. 개별 프로그램 정보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의 내용을 참고로 했다. 주로 홈페이지의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동영상을 분석했다. 프로그램이 방영된 모든 기간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도 있지만, 최근 한 달간만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³⁾.

종편, 지상파 보도 프로그램에 여러 명의 패널이 출연해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의 뉴스는 거의 없어 분석에서 제외했다. JTBC에서 패널이 출연해 의견을 개진하는 뉴스 형식을 진행한 적이 있으나 JTBC만 포함하면 다른 세 개의 종편과 균형이 맞지 않아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YTN이나 연합뉴스 같은 보도채널의 경우 뉴스의 한 코너에 여러 명의 패널이 출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도 프로그램이지만 이 연구에 적합한 패널이 출연했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최종 분석 대상 채널은 종편 4개 채널(TV조선, MBN, 채널A, JTBC)과 지상파 3사(KBS, MBC, SBS) 라디오 채널 6개(KBS라디오, MBC라디오, SBS라디오, YTN라디오, CBS, TBS), 보도 2개 채널(연합뉴스TV, YTN)이다.

3) 2017년 이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몇몇 방송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거나 동영상 접근이 어렵다는 답을 들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프로그램도 있다.

[표 3-2] 분석 대상 시사·보도 프로그램

	채널	프로그램명	방영기간
시 사 프 로 그 램	KBS	이슈더이슈/더라이브(동일프로)	2019년9월23일부터
		사사건건 여의도사사건건	2018년5월18일부터
		정치합시다2	2022년1월4일부터
		정치합시다(중영)	2019년11월21일부터 2020년 4월12일까지
		저널리즘토크쇼(중영)	2018년6월17일부터 2020년 12월13일까지
		오늘밤김제동(중영)	2018년9월10일부터 2019년 8월29일까지
	MBC	100분 토론	방영 중
		뉴스외전(중영)	2018년9월10일부터 2019년 8월29일까지
		뉴스M(중영)	2017년4월10일부터 8월10일까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017년 1월2일부터
	TV조선 ⁴⁾	최병목의이것이정치다	2017년11월30일까지
		전원책의이것이정치다(중영)	2017년1월13일부터 6월23일
	채널A	뉴스TOP10	2017년10월9일부터
		뉴스A라이브	2017년10월9일부터
	MBN	뉴스파이터	2014년12월1일부터
	JTBC	썰전라이브	2021년6월7일부터
		썰전(중영)	2013년2월21일부터 2019년 3월17일까지
	KBS라디오	최경영의최강시사 ⁵⁾	2018년5월25일부터
		김경래의최강시사 ⁶⁾	2018년12월3일부터 2021년 2월5일
		정준의 최강시사	2018년8월13일부터 11월30일
		최강욱의최강시사	2018년5월28일부터 8월10일까지
		최영일의 시간본부 ⁷⁾	2018년6월15일부터
		안녕하십니까윤준호입니다 ⁸⁾	2016년9월1일부터 2018년 5월25일까지
	라디오중심목진휴입니다 ⁹⁾	2015년1월1일부터 2016년 5월6일까지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	2020년1월13일부터
		양지열의시선집중	2017년12월14일부터 2018년4월6일까지
		변창립의시선집중	2017년11월20일부터 2017년12월13일까지
신동호의시선집중		2013년5월13일부터 2017년 9월4일까지	
손석희의시선집중		2000년10월23일부터 2013년5월10일까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2020년6월1일부터	
	이재익의시사특공대	2020년6월1일부터	
	이재익의정치쇼(중영)	2019년부터 2020년5월30일	
	시사전망대	2016년7월4일부터 2019년 7월9일	
	SBS전망대(시사전망대 전신)	1999년1월1일부터 2016년 7월3일까지	
CBS	김현정의뉴스쇼	2015년9월4일부터	
	김종대의뉴스업(한판승부)	2020년10월26일부터(2021년7월30일부터)	
YTN라디오	뉴스정면승부	2012년1월1일부터	
TBS	김어준의뉴스공장	2016년9월26일부터	
	최일구의허리케인라디오	2017년10월23일부터	
보 도 프 로 그 램	YTN	뉴스N이슈	2012년2월부터 2016년3월21일부터
	연합뉴스	뉴스포커스	2012년2월부터

3) 표본추출 방법

표본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10년간 분기별 마지막 달의 첫째 주를 선택해 그 주에 방영된 프로그램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매주 특정 요일에 방영된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면 주기성으로 인해 동일 패널이 반복해서 추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분기별 마지막 달의 첫째 주에 방영된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예를 들면 2012년 12월 첫째 주, 2013년 3월,

- 4) 2016년 5월 23일부터 방영한 TV조선의 대표적인 시사프로그램인 <신통방통>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최근 한달 만 제공한다. 이전 프로그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TV조선에 문의했는데,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 5)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2018년 5월 25일부터 시작했으나 다시 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분석은 유튜브에서 2021년 1월부터 제공한 방송 내용으로 대신했다.
- 6) <김경래의 최강시사>는 2018년 12월 3일에 방송을 시작했으나 다시 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2019년 5월부터 유튜브에서 제공한 방송 내용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 7) <최영일의 시사 본부>는 2018년 6월 15일부터 방송을 시작했으나 다시 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9년 5월부터 유튜브에서 제공한 방송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 8)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는 다시 보기 서비스를 2018년 1분기만 제공하고 있어 해당 기간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 9) <라디오 중심 목진휴입니다>는 다시 보기 서비스를 2016년 1분기만 제공해 해당 기간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6월 9일, 12월 첫째 주가 분석 대상이다. 분석 대상 기간에 방영된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시청률, 해당 채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여부, 다시 보기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된 최종 분석 프로그램 수는 <표 3-3>과 같다. 지상파 183개, 종편은 665개, 보도 채널 199개, 라디오 637개였다.

[표 3-3] 매체별 최종 분석 프로그램 수

지상파	채널명						전체
	KBS	MBC	SBS				
	45	47	91				183
종편	TV조선	MBN	채널A	JTBC		665	
	123	307	161	114			
보도 채널	연합뉴스TV		YTN			199	
	88		111				
라디오	KBS 라디오	MBC 라디오	SBS 라디오	CBS 라디오	TBS	YTN 라디오	637
	66	189	49	69	105	159	
합 계							1634

매체별 분석 프로그램을 시기를 구분해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분석 수는 533개, 문재인 정부 시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분석 수는 1,262개로, 문재인 정부 시기가 더 많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는 박근혜 정부는 33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150개로 문재인 정부 시기가 분석 프로그램이 많았다. 종편의 경우 박근혜 정부시기에는 214개, 문재인 정부시기에는 451개였다. 보도 채널은 박근혜 정부에서 52개, 문재인 정부에서는 147개였다. 라디오도 박근혜 정부는 200개, 문재인 정부는 437개로 문재인 정부가 두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시기별 분석 대상 프로그램 수

	지상파	종편	보도	라디오	전체
박근혜 정부	33	214	52	200	533
문재인 정부	150	451	147	437	1262
합계	183	665	199	637	1634

4) 분석 절차

본 조사에 앞서 예비 조사를 통해 매체별로 출연한 패널과 패널의 직업, 성, 연령, 정치 성향을 파악했다. 예비 조사는 연구자 두 명이 4월 1일부터 3주간 실시했다. 예비 조사 결과 매체별로 출연한 패널이 1천 명에 이르러 이들을 대상으로 교차분석을 한다면 셀이 너무 많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내용분석을 통해 영향력이 있는 패널을 찾고, 패널별 중복률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종편, 지상파, 보도채널, 라디오 채널에 누가, 얼마나 자주 출연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그다음으로 여러 채널에 출연한 패널을 대상으로 속성 분석을 했다. 패널의 속성은 성별, 연령대, 직업, 정치 성향을 기준으로 알아봤다.

연구자 두 명이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을 리스트 하고, 자막을 참고로 패널의 직업, 소속을 알아냈다. 자막이 없는 경우 네이버 인물 검색을 통해 직업을 찾고, 연령대도 네이버 인물 검색을 통해 파악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을 표기했다.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지상파와 종편에 출연한 패널을 분석했다. 보도 채널과 라디오는 연구자 두 명이 7월 1일부터 한 달간 분석했다.

먼저, 매체별로 누가 얼마나 많이 출연했는지, 누구와 같이 출연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패널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채널별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을 기준으로 영향력이 있는 패널을 추출한 후 다시 시기와 채널을 구분해 영향력 상위 패널을 찾아냈다. 네트워크 분석은 KM+프로그램과 NodeXL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행했다(Shneiderman & Smith, 2011). 연결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노드와 노드간 연결선 개수를 합산한 값으로 이 연구에서는 패널이 다른 패널과 함께 등장한 횟수를 알려준다. 매개 중심성은 노드와 노드 간의 최단 거리의 합을 평균 낸 값으로 특정 노드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노드와 연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세 중심성은 특정 패널이 얼마나 중요한 패널과 연결되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값으로 위세 중심성이 크다면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패널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매개 중심성 값이 차이가 커 이 연구에서는

매개 중심성 값을 기준으로 노드의 크기를 달리했고, 다음으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낸 연결 중심성 값을 기준으로 노드의 색상을 다르게 표시했다.

다음으로 영향력 상위 패널이 어떤 채널에 출연했는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알아봤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패널이 중복해서 출연한 채널을 밝혔다. 끝으로 패널의 속성을 내용분석 했다. 내용분석을 위한 코딩은 연구자 2인이 참여했다. 내용의 코딩은 패널의 예비 조사를 거쳐 출연한 프로그램, 직업, 연령, 성, 정치 성향을 포함한 표준화된 코딩 용지를 이용했다. 신뢰도는 측정 도구의 정확성이나 정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 분석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작위로 추출해 코딩한 후 두 코더 간의 신뢰도를 측정했다. 내용분석의 코더 간 신뢰도는 여러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일치도 관점에서 ‘신뢰도 = $2M/N1+N2$ ’ 라는 공식을 제안한 홀스티 지수(Holsti, 1969)를 이용했다. 여기서 M은 코더 간에 일치한 코딩 수이고, N1과 N2는 각각의 코더가 코딩한 전체 수를 가리킨다. 종편 채널의 분석 유목에 대한 코더 간 신뢰도 측정 결과, 홀스티 지수는 패널의 직업은 .95, 패널의 정치 성향은 .89로 측정되었다. 지상파 채널의 분석 유목에 대한 코더 간 신뢰도 측정 결과, 홀스티 지수는 패널의 직업은 .96, 패널의 정치 성향은 .90으로 측정되었다. 라디오 채널의 분석 유목에 대한 코더 간 신뢰도 지수는 패널의 직업은 .94, 패널의 정치 성향은 .90으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보도 채널의 분석 유목에 대한 코더 간 신뢰도는 패널의 직업은 .95, 패널의 정치성향은 .91로 측정되었다.

5) 분석 유목

(1) 패널 직업

패널의 직업을 교수, 언론인, 변호사, 국회의원, 정치인, 시사평론가, 전문가, 공무원, 기타로 분류했다. 정치인은 정당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패널을 의미한다. 전문가는 형사, 심리학 박사, 여론조사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거나 오랜 기간 경력을 쌓은 패널을 의미한다. 기타에는 연예인, 개그맨 등이

포함됐다. 패널의 직업은 프로그램에 출연할 당시의 직업을 기준으로 코딩했다. 분석 기간이 10년간이기에 출연 시점에 따라 패널의 직업이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으로, 전문가에서 국회의원으로 바뀌는 등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2) 정치 성향

설진아·이종임·홍주현(2021)은 정치적 성향에 대한 논의를 게링(Gerring, 1997)의 논의를 기반으로 설명한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련의 상호 연결된 가치와 신념체계를 이념의 핵심 개념으로 규정한다. 이념은 대체적으로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인 형태로 설명되는데, 보수와 진보는 불편의 개념이라기 보다 사회체제와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규정되는 상대적 개념이기도 하다(박태진·한규석, 1990). 국내의 경우 보수, 진보, 중도의 개념을 기반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파악하는 경향을 따라서 분석을 하였다. 분석 대상 중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 성향을 보수, 진보, 중도로 구분해 측정했다. 소속 정당을 근거로 정치 성향을 판단했다.

(3) 인구통계학적 변인

패널의 속성 중에서 성과 연령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분석했다. 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연령대는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했다. 패널의 연령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인물 정보의 생년월일을 참고하여 측정했다.

04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다양성 분석 결과

매체별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누가 출연하고, 영향력이 있는 패널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먼저, 종편, 지상파, 보도, 라디오에 출연한 패널 전체를 대상으로 영향력이 있는 패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매체별로 출연한 패널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했고, 시기를 구분해 영향력이 있는 패널이 누구인지 알아냈다. 그리고 채널별로 출연한 패널에 차이가 있는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매체별로 영향력 상위 패널을 추출한 후 패널의 속성(성, 연령대, 직업, 정치성향)을 내용분석을 통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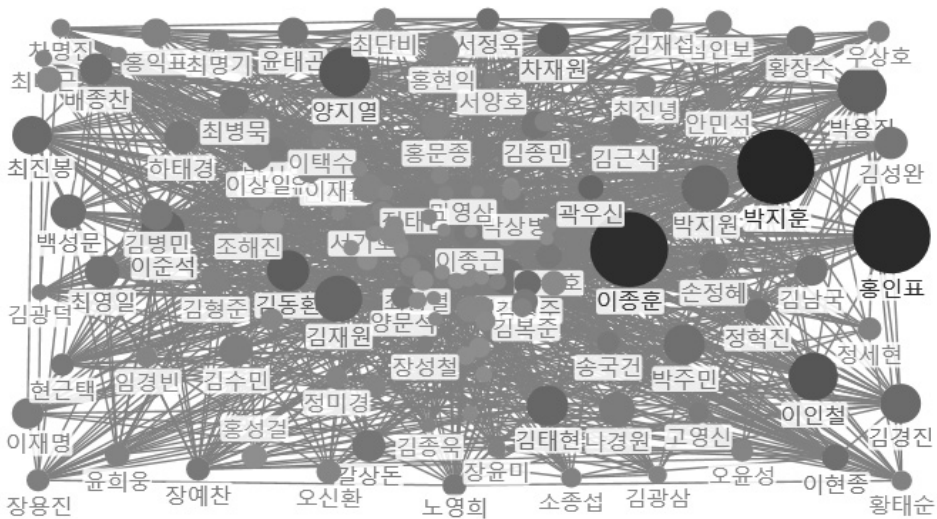
1. 시사·보도 프로그램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1) 시사·보도 프로그램 출연패널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은 1,229명이었고 이들은 네트워크에서 5,861의 연결을 나타냈다. 분석 기간 10년간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 중에서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노드의 크기는 매개 중심성 값을 나타낸다.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크다는 의미이다. 노드의 색상은 연결 중심성 값을 보여주는데, 파란색일수록 연결 중심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그림 4-1>을 보면, 박지훈, 이종훈, 홍인표의 노드 크기가 크고, 노드 색상이 파란색으로 나타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 중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다음으로 양지열, 이인철, 김재원, 김동환, 박용진, 최진봉, 김경진, 김태현이 영향력 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이어서 배종찬, 박지원, 차재원, 최영일, 백성문, 하태경, 최병목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결 관계를 보면, 홍인표는 이인철, 박용진, 김태현, 박지원과 연결되었고, 이종훈은 배종찬, 최영일, 최진봉과 연결되었다. 박지훈은 이종훈, 홍인표, 김재원, 최진봉, 이준석 등과 연결되어 영향력이 큰 패널들이 영향력이 큰 다른 패널과 같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 10년간 시사보도 패널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¹⁰⁾¹¹⁾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시사·보도 프로그램 출연패널 중에서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값을 기준으로 영향력 상위 40인을 찾아냈다. 박지훈이 연결 중심성 150, 매개 중심성 80073.746으로 분석 대상 패널 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패널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홍인표가 연결 중심성 152, 매개 중심성 79555.019, 이종훈이 연결 중심성 146, 매개 중심성 74167.659, 이인철이 연결 중심성 138, 매개 중심성

10) 연결 중심성 값이 18 이상인 경우만 그래프에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성 값이 큼.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11) 패널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매개 중심성 값이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 매개 중심성 값을 기준으로 노드의 크기를 나타냈고, 연결 중심성 값은 색상으로 표시했다.

70358.981로 영향력 상위 4인에 올랐다. 다음으로 양지열, 배종찬, 박용진, 김동환, 박지원이 영향력 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이어서 김태현, 김경진, 김재원, 이준석이 영향력이 큰 패널이었다. 표 4-1을 보면, 다음 순위의 패널을 알 수 있다.

[표 4-1] 패널 영향력 상위 40인(연결 중심성 순)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박지훈	157	78464.366	0.012	이현중	55	7679.982	0.006
홍인표	152	78898.894	0.006	최영일	53	14012.425	0.005
이중훈	149	79150.717	0.010	김현식	52	15888.003	0.003
이인철	93	30752.846	0.006	김남국	51	11928.692	0.004
양지열	89	33488.652	0.008	정혁진	51	10314.475	0.006
김동환	81	22086.998	0.002	윤태곤	50	9315.338	0.004
박용진	78	30962.279	0.007	김종민	50	13176.914	0.004
차재원	72	12804.143	0.008	김성원	49	13041.289	0.006
김태현	70	21493.494	0.006	황장수	49	9253.845	0.006
김재원	69	28958.875	0.005	갈상돈	48	13041.289	0.005
이준석	69	24187.925	0.006	장예찬	47	5829.616	0.004
곽우신	67	6654.241	0.005	최병목	46	11372.888	0.004
박지원	66	27975.815	0.005	양문석	45	5677.395	0.006
최진봉	66	19231.381	0.006	하태경	45	13712.517	0.004
김경진	63	20439.925	0.005	김병민	45	11856.212	0.005
김형주	59	7946.601	0.006	손수호	45	6959.179	0.004
배종찬	58	12607.234	0.006	현근택	45	5342.995	0.005
박주민	58	20966.915	0.004	송국건	45	4744.353	0.005
서정욱	57	5121.854	0.006	손정혜	44	9250.125	0.004
백성문	55	15178.125	0.004	노영희	44	5822.929	0.005

2) 시기별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 vs 문재인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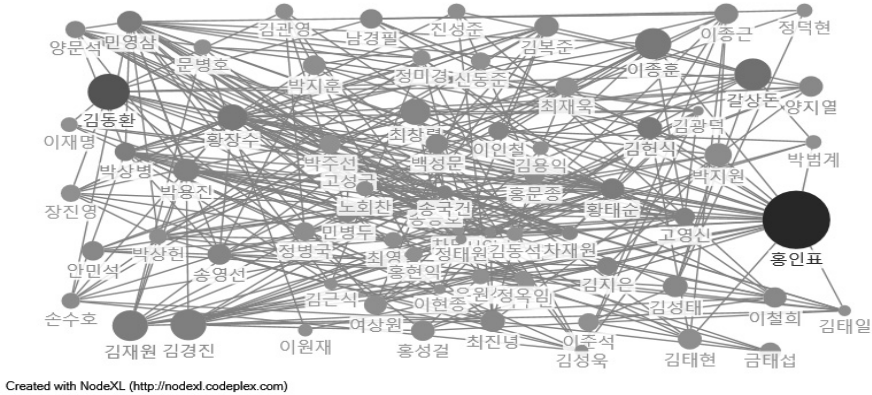
다음으로 분석 기간인 10년간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을 시기를 구분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먼저 박근혜 정부에서는 모두 602명의 패널이 출연했고, 이들은 네트워크에서 1,876의 연결을 나타냈다. 그래프를 보면, 홍인표의 노드 크기가 가장 크고, 노드 색상이 파란색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홍인표는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출연해 등장 빈도가 높았다. 홍인표는 경향신문 기자이지만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할 당시에는 고려대 연구교수로 직책을 표기해 교수로 분류했다.

이어서 김동환, 김재원, 갈상돈이 영향력 상위 그룹을 형성했다.¹²⁾ 이어서 김재원, 김경진, 이종훈, 최창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결 관계를 살펴보면, 홍인표는 김동환, 김경진과 연결되었다. 김동환은 박주선, 홍성걸, 최재운, 장진영과 연결되었고, 김경진은 이종훈, 박용진, 홍성걸과 연결되었다. 갈상돈은 김재원과 연결되었다. 이종훈은 갈상돈, 김경진, 민영삼과 연결되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패널과 같이 출연한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교수나 변호사, 시사평론가 등이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는데, 시사프로그램에서 이들 직업군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시사평론가와 변호사는 다양한 정치 이슈를 진단하고, 관련 당사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발언을 자주 한다. 주요 인물이 한 발언의 의미, 발언 배경, 파급 효과 등을 언급하는데 익숙하다. 변호사들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에 대한 패널로 등장했는데, 이들이 법적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변호사라는 직업의 신뢰도가 높기에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4-2] 박근혜 정부 시사·보도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¹³⁾



12) 김동환은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으로 MBC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출연했다. 갈상돈은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인데 역시 같은 프로그램에 빈번하게 출연했다.

13) 연결 중심성 값이 11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성 값이 큼.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박근혜 정부에 출연한 패널의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중심성 값을 보면, 홍인표의 연결 중심성이 132, 매개 중심성 47473.511, 위세 중심성 0.032로 가장 영향력이 큰 패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김동환이 연결 중심성 80, 매개 중심성 17737.266, 위세 중심성 0.021로 영향력이 컸다. 이어서 갈상돈, 이종훈, 황장수, 김현식, 민영삼, 김재원, 황태순, 박상병이 영향력 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이어서 김경진, 박용진, 고영신, 송국건, 최창렬, 이인철, 송영선, 김지은, 백성문, 양지열, 김복준이 자주 출연했고, 매개 중심성 값도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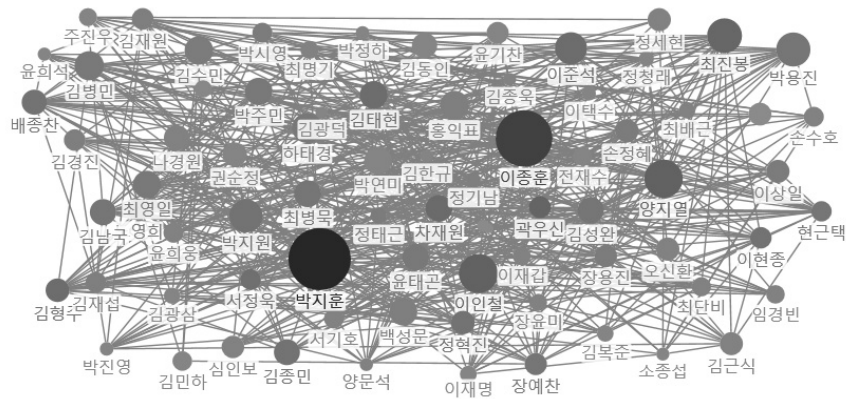
[표 4-2] 박근혜 정부 종편 출연패널 영향력 상위 30인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홍인표	132	47737.217	0.032	송영선	24	5134.070	0.004
김동환	81	17737.266	0.021	김지은	24	3600.408	0.006
갈상돈	48	13446.996	0.009	이인철	23	3533.173	0.007
이종훈	39	12941.856	0.010	김복준	23	5352.679	0.004
황장수	38	8435.034	0.009	양지열	23	5018.951	0.003
김현식	37	5678.161	0.009	백성문	23	4349.700	0.004
민영삼	36	5678.161	0.009	이철희	22	4811.309	0.002
김재원	34	12500.427	0.007	양문석	22	3287.358	0.006
황태순	33	5214.391	0.008	차재원	22	1827.986	0.006
박상병	31	3866.974	0.007	김성태	21	5635.663	0.002
김경진	30	12718.538	0.007	이종근	21	5038.507	0.004
박용진	29	6399.342	0.007	최진녕	21	5514.010	0.004
고영신	28	3630.462	0.007	안민석	20	4409.492	0.004
송국건	27	1711.544	0.008	남경필	20	4422.962	0.006
최창렬	26	8543.456	0.004	민병두	20	4275.882	0.006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두 865명의 패널이 출연했고, 이들은 네트워크에서 4,040의 연결을 나타냈다. <그림 4-3>을 보면, 박지훈, 이종훈의 노드 크기가 크고, 색상이 파란색에 가까워 이들이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박지훈은 변호사이고, 이종훈은 시사평론가이다. 이들 중 박지훈은 패널뿐만 아니라 진행자로서 영향력도 적지 않다. 패널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JTBC의 사건반장에 출연하고 있으며, MBC라디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2018년 2월 5일부터 2019년 3월 29일까지 진행했고, 2022년 4월 4일부터는 YTN라디오에서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최진봉, 양지열, 이인철과 국회의원인

박지원, 박용진이 영향력 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패널로 영향력이 큰 박지훈과 양지열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TBS TV의 ‘더룸’을 공동 진행하고 있다. 이어서 이준석, 김병민, 김태현, 박용진, 박지원, 차재원, 김수민의 영향력이 컸다. 매개 중심성 값과 연결 중심성 값이 큰 박지훈은 이종훈, 김남국, 이인철, 최진봉, 홍익표, 양지열, 차재원, 박지원 등 영향력이 큰 패널과 연결되었다. 이인철은 박지훈, 하태경, 주진우, 박지원과 연결되었다. 최진봉은 배종찬, 박지훈, 이준석과 연결되었다.

[그림 4-3] 문재인 정부 종편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¹⁴⁾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문재인 정부에서 영향력이 큰 패널 40인을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박지훈의 영향력이 가장 컸는데, 연결 중심성 147, 매개 중심성 51240.763, 위세 중심성 0.016이었다. 이어서 이종훈이 연결 중심성 112, 매개 중심성 42203.246, 위세 중심성 0.012, 이인철이 연결 중심성 73, 매개 중심성 19449.136으로 영향력이 컸다. 곽우신, 최진봉, 차재원의 연결 중심성이 60을 넘었고, 매개 중심성도 컸다. 이어서 김형주, 이준석, 김태현, 서정욱, 박지원, 배종찬, 정혁진의 연결 중심성이 50 이상이었고, 매개 중심성도 큰 것으로 나타난 영향력 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14) 연결 중심성 값이 20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성 값이 큼.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표 4-3] 문재인 정부 종편 출연패널 영향력 상위 40인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박지훈	147	51240.763	0.016	현근택	45	4509.060	0.008
이종훈	112	42203.246	0.012	김병민	44	10516.905	0.006
이인철	73	19449.136	0.006	윤태근	44	8388.926	0.005
양지열	72	18697.216	0.009	최영일	43	9424.064	0.005
곽우신	67	5355.384	0.007	박주민	42	9090.628	0.005
최진봉	64	15176.595	0.008	하태경	41	11107.271	0.005
차재원	60	8535.451	0.009	노영희	41	5049.897	0.005
김형주	58	6469.646	0.008	손정혜	40	6151.017	0.004
이준석	57	12852.478	0.007	김수민	39	9825.826	0.004
김태현	57	9244.082	0.006	강용진	39	5579.346	0.005
서정욱	55	4681.383	0.008	박시영	39	4295.889	0.005
박지원	51	13795.961	0.005	정태근	38	2494.924	0.006
배종찬	51	7477.278	0.008	이상일	37	6113.005	0.005
정혁진	51	6277.315	0.008	강성철	37	2191.924	0.006
이현종	48	5147.530	0.006	백성문	36	9337.329	0.004
박용진	47	14608.060	0.005	김재원	36	5263.883	0.005
김남국	47	8193.903	0.005	김재섭	36	4717.619	0.004
장예찬	47	5580.119	0.006	김경진	35	5187.101	0.004
최병목	45	8638.728	0.005	홍익표	34	9789.708	0.003
김성완	45	8159.420	0.007	경기남	34	1654.378	0.005

정부별로 영향력 상위 패널의 직업을 그룹 네트워크 분석했다. 그림 위는 박근혜 정부에서 출연한 패널의 직업 네트워크 분석 결과이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재원, 김경진, 박용진, 박지원, 남경필의 영향력이 컸다. 시사평론가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패널은 이종훈, 김현식, 황태순이었고, 이어서 박상병, 고성국, 서양호의 영향력이 컸다. 언론인 중에서는 송승호, 김지은이 눈에 띄었다. 교수 중에서는 홍인표, 최창렬의 영향력이 컸고, 홍성걸, 차재원이 영향력이 컸다. 전문가로는 김동환의 영향력이 컸고, 김복준과 박상헌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으로는 갈상돈, 황장수, 민영삼, 이철희, 양문석, 이준석의 영향력이 컸다. 정치인으로 분류한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으며, 정당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정당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변호사로는 최진녕, 여상원, 양지열, 김태현, 백성문, 이인철, 손수호, 김광덕이, 정치인으로는 이철희와 양문석이 영향력 상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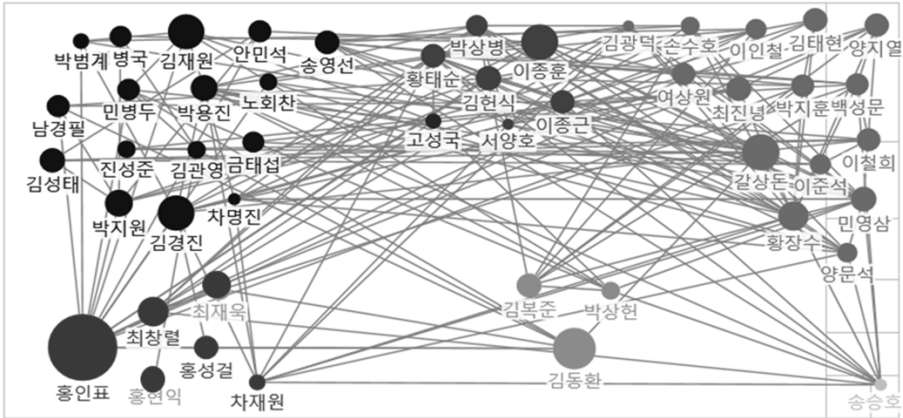
박근혜 정부에서 출연한 패널의 직업 중에서 국회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졌고, 다음으로 변호사가 영향력 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시사평론가와 정치인의 활약도 눈에 띈다. 교수와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었다.

아래 그림은 문재인 정부에 출연한 영향력 상위 패널에 대한 직업 네트워크 분석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커진 게 눈에 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과 시사평론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호사 중에서는 박지훈의 노드 크기가 가장 컸고, 이인철, 양지열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시사평론가 중에서는 이종훈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최영일, 김성완, 김수민, 장예찬이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박지원, 박용진, 하태경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고, 홍익표, 박주민, 김남국이 영향력 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정치인 중에서는 이준석, 김병민의 영향력이 컸다. 교수 중에서는 최진봉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영향력이 패널의 직업을 비교해보면, 두 시기에 국회의원은 비슷하게 많이 출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회의원 다음으로 시사평론가 그룹이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변호사 그룹의 영향력이 컸고, 시사평론가와 교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많았고, 전직 형사도 있다. 교수 중에서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의대 교수들이 패널로 출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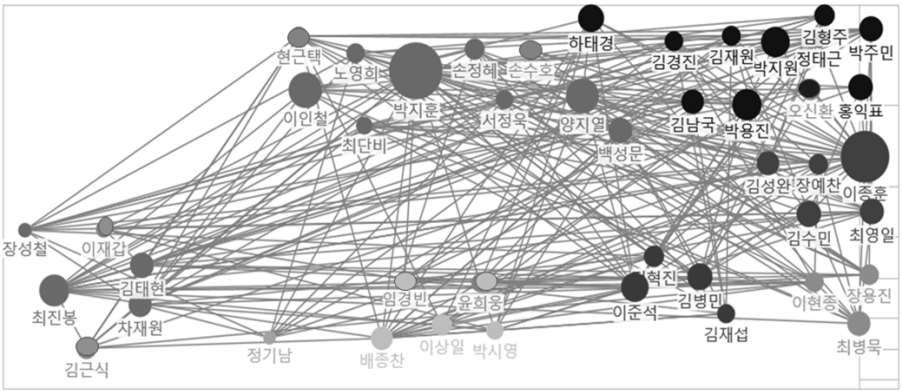
[그림 4-4] 정부별 패널 직업 네트워크 분석 결과¹⁵⁾

- 곤색: 국회의원
- 초록색: 시사평론가
- 하늘색: 변호사
- 붉은색: 교수
- 주황색: 전문가
- 연두색: 정치인
- 노란색: 언론인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 곤색: 국회의원
- 초록색: 시사평론가
- 하늘색: 변호사
- 붉은색: 정치인
- 주황색: 언론인
- 연두색: 교수
- 노란색: 전문가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15) 위: 박근혜 정부, 연결 중심성 11 이상인 경우만 표시, 아래: 문재인 정부, 연결 중심성 30 이상인 경우만 표시, 매개 중심성 값이 클수록 노드의 크기 큼

3) 패널 구성 현황 및 영향력 상위 패널 분석 결과

(1) 시사·보도 프로그램 영향력 상위 패널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 전체 중에서 영향력 상위 10인은 박지훈, 홍인표, 이종훈, 이인철, 양지열, 김동환, 박용진, 차재원, 김태현, 김재원으로 국회의원과 변호사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홍인표, 김동환, 갈상돈, 이종훈, 황장수, 김현식, 민영삼, 김재원, 황태순, 박상병이 영향력 상위 10인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사평론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지훈, 이종훈, 이인철, 양지열, 곽우신, 최진봉, 차재원, 김형주, 김태현, 이준석이 영향력 상위 10인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변호사와 교수가 많았다. 두 정부에서 영향력 상위를 차지한 패널은 이종훈, 김재원, 박용진, 김경진, 이인철, 최영일, 박지원, 양지열, 차재원, 김태현이었다. 이들의 직업은 국회의원, 변호사, 시사평론가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선호하는 직업군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영향력 상위를 차지한 박상병, 황태순, 황장수, 민영삼, 송국건, 고영신, 홍성걸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빈번하게 등장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영향력 상위를 차지한 패널은 박지훈, 이인철, 김태현 등 변호사, 전문가와 최진봉 교수, 이준석, 김남국 등 정치인이 눈에 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송영선만 여성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성 변호사가 영향력 상위에 포함된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4] 시사·보도 패널 영향력 상위 40인(연결 중심성·매개 중심성 기준)

패널 순위	시사·보도 전체 (1229명)	시기	
		박근혜 정부 (602명)	문재인 정부 (865명)
1	박지훈	홍인표	박지훈
2	홍인표	김동환	이종훈
3	이종훈	갈상돈	이인철
4	이인철	이종훈	양지열
5	양지열	황장수	곽우신
6	김동환	김현식	최진봉
7	박용진	민영삼	차재원
8	차재원	김재원	김형주
9	김태현	황태순	김태현

10	김재원	박상병	이준석
11	이준석	김경진	서정욱
12	곽우신	박용진	박지원
13	박지원	고영신	정혁진
14	최진봉	송국건	배종찬
15	김경진	최창렬	김종민
16	김형주	이인철	이현중
17	박주민	송영선	박용진
18	배종찬	김지은	장예찬
19	서정욱	백성문	김남국
20	백성문	양지열	최병목
21	이현중	김복준	김성완
22	최영일	차재원	현근택
23	김현식	양문석	윤태근
24	김남국	이철희	김병민
25	정혁진	이종근	최영일
26	윤태근	최진녕	박주민
27	김종민	김성태	하태경
28	김성완	민병두	노영희
29	갈상돈	안민석	손정혜
30	황장수	남경필	김수민
31	장예찬	손수호	장용진
32	최병목	박지원	박시영
33	양문석	홍문중	정태근
34	하태경	서양호	이상일
35	손수호	홍성걸	장성철
36	송국건	정병국	백성문
37	김병민	금태섭	김재원
38	현근택	김태현	김재섭
39	손정혜	송승호	김경진
40	최창렬	여상원	홍익표

(2) 영향력 상위 패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정치 성향 교차분석 결과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중에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영향력이 큰 상위 패널을 박근혜 정부 49명, 문재인 정부 46명을 선택했고, 이들의 성, 연령대, 직업을 분석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정치 성향을 분석했다. 각 정부에 출연한 영향력 상위 패널의 성별은 남성이 93.7%로 10명 중 약 9명이 남성이었다. 여성은 6.3%에 불과했다. 영향력 상위 패널의 연령대는 50대가 46.3%로 10명 중 약 4명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40대가 29.5%를 차지했다. 이어서 60대가 21.1%였으며, 30대는 3.2%에 불과했다. 패널의 직업을 보면, 국회의원이 30.5%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가 20.0%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시사·평

론가가 13.7%, 정치인 12.6%로 비슷하게 많았다. 다음으로 교수 9.5%, 전문가 6.3% 순이었다. 국회의원의 정치 성향은 진보가 59.3%로 보수 40.7%보다 많았다.

[표 4-5] 시사보도 프로그램 영향력 상위 패널 성별·연령대·직업·정치 성향 기초 빈도분석 결과

성별	빈도(%)
남성	89(93.7)
여성	6(6.3)
전체	95(100.0)
연령대	
30대	3(3.2)
40대	28(29.5)
50대	44(46.3)
60대 이상	20(21.1)
전체	95(100.0)
직업	
교수	9(9.5)
변호사	19(20.0)
언론인	6(6.3)
국회의원	29(30.6)
정치인	12(12.6)
시사평론가	13(13.7)
전문가	6(6.3)
공무원	1(1.1)
전체	95(100.0)
정치 성향	
보수	11(40.7)
진보	16(59.3)
전체	27(100.0)

성별, 연령대별로 직업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했다. 성별로 직업에 차이가 있는지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국회의원 비율은 비슷했다. 남성은 시사평론가, 정치인, 교수가 많았고, 여성은 변호사와 언론인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대와 직업을 교차 분석한 결과, 교수는 50대 이상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았고, 국회의원은 40대 이상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았다. 이에 비해 변호사는 40대가 50.0%로 가장 많았고, 30대도 33.3%였다. 시사평론가는 60대 이상, 40대, 50대 순으로 많았으며, 전문가는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표 4-6] 성별·연령대별 직업 교차분석 결과

성별	교수	변호사	언론인	국회의원	정치인	시사평론가	전문가	공무원	합계
남성	9 (10.1)	16 (18.0)	5 (5.6)	27 (30.3)	12 (13.5)	13 (14.6)	6 (6.7)	1 (1.1)	89 (93.7)
여성	-	3 (50.0)	1 (16.7)	2 (33.3)	-	-	-	-	6 (6.3)
전체	9 (9.5)	19 (20.0)	6 (6.3)	29 (30.5)	12 (12.6)	13 (13.7)	6 (6.3)	1 (1.1)	95 (100.0)
$\chi^2=6.749, df=7$									
연령*									
30대	-	1 (33.3)	1 (33.3)	-	1 (33.3)	-	-	-	3 (3.2)
40대	-	14 (50.0)	2 (7.1)	1 (3.6)	6 (21.4)	4 (14.3)	1 (3.6)	-	28 (29.5)
50대	6 (13.6)	3 (6.8)	3 (6.8)	18 (40.9)	4 (9.1)	6 (13.6)	4 (9.1)	-	44 (46.3)
60대 이상	3 (15.0)	1 (5.0)	-	10 (50.0)	1 (5.0)	3 (15.0)	1 (5.0)	1 (5.0)	20 (21.1)
전체	9 (9.5)	19 (20.0)	6 (6.3)	29 (30.5)	12 (12.6)	13 (13.7)	6 (6.3)	1 (1.1)	95 (100.0)
$* \chi^2=49.123, df=21, p<.01$									

시기별로 영향력 상위 패널의 성, 연령, 직업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시기 모두 남성이 각각 95.9%, 93.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대는 양 정부 모두 50대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60대 이상과 40대 순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40대, 60대 순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회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시사평론가는 양 정부에서 비슷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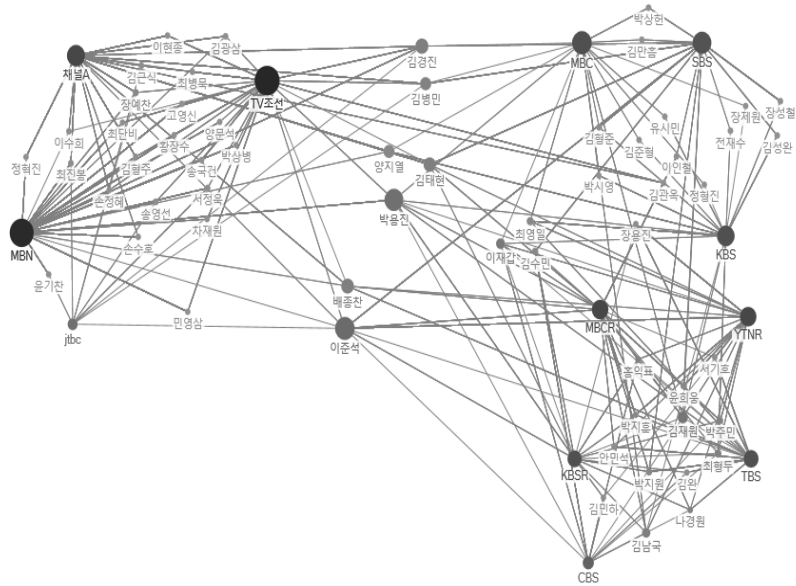
[표 4-7] 시기별 영향력 상위 패널 성별·연령대·직업 교차분석 결과

성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합 계
남성	47(95.9)	42(91.3)	89(93.7)
여성	2(4.1)	4(8.7)	6(6.3)
전체	49(51.6)	46(48.4)	95(100.0)
$\chi^2 = .854, df = 1$			
연령			
30대	1(2.0)	2(4.3)	3(3.2)
40대	12(24.5)	16(34.8)	28(29.5)
50대	23(46.9)	21(45.7)	44(46.3)
60대 이상	13(26.5)	7(15.2)	20(21.1)
전체	49(51.6)	46(48.4)	95(100.0)
$\chi^2 = 2.704, df = 3$			
직업			
교수	5(10.2)	4(8.7)	9(9.5)
변호사	9(18.4)	10(21.7)	19(20.0)
언론인	3(6.1)	3(6.5)	6(6.3)
국회의원	16(32.7)	13(28.3)	29(30.5)
정치인	6(12.2)	6(13.0)	12(12.6)
시사평론가	7(14.3)	6(13.0)	13(13.7)
전문가	3(6.1)	3(6.5)	6(6.3)
공무원	-	1(2.2)	1(1.1)
전체	49(51.6)	46(48.4)	95(100.0)
$\chi^2 = 1.458, df = 7$			

(3) 시사·보도 프로그램 영향력 상위 패널의 채널 중복 출연 네트워크 분석 결과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 중에서 영향력 상위 패널의 채널별 중복 출연을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는 <그림 4-5>와 같다. 이준석은 채널을 넘나들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승로 나타났는데, 종편과 라디오 채널에 중복 출연했고, 배종찬도 종편과 라디오 채널에 중복해서 출연하면서 영향력이 컸다. 박용진, 양지열, 김태현은 종편과 지상파에 중복 출연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재갑, 최영일, 김수민은 지상파와 라디오에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시사·보도 프로그램 패널의 중복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¹⁶⁾



Created with NodeXL Pro (<http://nodexl.codeplex.com>) from the Social Media Research Foundation (<http://www.smrfoundation.org>)

4) 시사·보도 프로그램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요약 및 함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결과, 10명 중 9명이 남성으로 여성보다는 남성 패널의 출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출연패널의 주 연령대는 50대였다. 50대는 전문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50대가 많은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패널의 직업을 보면, 10명 중 3명이 국회의원으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적극적으로 소속 당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짐작된다. 시사·보도

16) 파란색일수록 연결 중심성이 크고,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이 큼

프로그램에 출연한 국회의원의 정치 성향을 보면, 10명 중 약 6명이 진보 성향이였다.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사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인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이 더 출연한 것으로 짐작된다. 국회의원 다음으로 변호사와 시사평론가가 영향력 상위 패널의 직업이었다. 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전문성이 높고,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선호한다. 시사평론가는 법적인 전문성은 낮으나 다양한 정치 현안 관련 뒷이야기나 주요 인물의 발언 배경, 의도 등을 가감 없이 발언한다는 점에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출연자로 여겨진다. 시사평론가의 전직은 기자, 박사, 형사, 정당인 등 다양하다.

성별로 직업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변호사와 국회의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영향력 상위 패널 중 여성이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여성은 변호사, 국회의원 등 전문성을 겸비해야 패널로 출연할 기회를 얻은 것으로 여겨진다. 연령대별로 직업에 차이가 있는지 보면, 40대는 변호사가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은 국회의원이 가장 많았다. 50대 이상에서는 교수와 시사평론가가 뒤를 이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체 패널 1,229명 중에서 박지훈 변호사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박지훈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출연한 패널 중에서 영향력 1위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출연한 패널 중에서는 홍인표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홍인표는 MBC라디오의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출연해 표본으로 지속해 추출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영향력 사위를 차지한 시사평론가의 일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패널로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본인의 영향력을 넓혔다. 이들 동영상을 보면, 진보 정부에 대한 비판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극적인 발언과 감정적인 헤드라인으로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¹⁷⁾

17) 박근혜 정부에서 패널로 활약한 사람 중에서 영향력이 큰 유튜브로 변신한 패널은 다음과 같다. 진성호, 황태순, 황장수, 민영삼인데, 이 연구에서 진성호와 김광일은 영향력이 큰 패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둘다 TV조선에 자주 등장한 패널이자 TV조선의 진행자이기 때문이다(진성호 방송(구독자 187만명), 8월 20일 헤드라인 '추미애 방금 자폭! 이재명·박영선 망했다' 민주 지금 난리났다,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의 김광일쇼(조선일보 구독자 108만명), 8월 20일 문재인 정부 '알박기 논란' 출몰이 사의..."정부 바뀌면 '어공' 정부지도 바뀌어야"(조회 수 4만 8천회)). 황태순TV(구독자 38만명), 8월 10일 헤드라인 이준석 '닭 쫓던 개' 신세(조회 수, 4만 6천 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구독자 50만명), 8월 5일 헤드라인 4부: 이재명, 끝없이 드러나는 수단 방법 인기리는 의혹들(조회 수 23만회)에서 알 수 있듯이 구독자 수도 많고, 업로드한 영상의 조회 수도 높다. 민영삼은 배승희 변호사의 유튜브채널의

충성도 높은 보수 성향의 구독자를 확보하면서 굳이 방송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영향력이 큰 송국건과 문재인 정부에서 영향력이 큰 최병목은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 방송 출연을 통해 쌓은 인지도, 신뢰도를 활용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지훈, 이인철, 양지열, 서정욱, 김태현, 노영희, 손정혜 같은 젊은 층 변호사 패널의 활약이 눈에 띈다. 이 시기에도 이종훈, 장예찬, 최영일 같은 시사평론가의 활약이 두드러졌지만,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빈번하게 모든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시사평론가의 수는 줄었다. 변호사 외에 최진봉은 교수 중에서, 차재원은 언론인 중에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¹⁸⁾. 두 정부에서 모두 영향력이 큰 패널로 자리매김한 사람은 이종훈, 김재원, 박용진, 김경진, 이인철, 최영일, 박지원, 양지열, 차재원, 김태현으로 이들은 패널로서 인지도를 꾸준히 높인 것으로 보인다.

'민영삼 배승희 따다부따' 코너에 고정적으로 출연해 패널 역할을 하고 있다.(박근혜 시절부터 이어지는 내부총질의 계보, 민영삼, 생방송 난리난 발언, 조회 수 127만회)), 문재인 정부에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 중에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견을 알리는 사람도 있는데, 최병목(최병목의 FACT)과 송국건(송국건의 혼술)이 대표적이다.

18) 차재원은 국제신문에서 사회부 기자, 경제부 기자, 서울정치팀 팀장을 역임했고, 국회 국회의장 비서실장 경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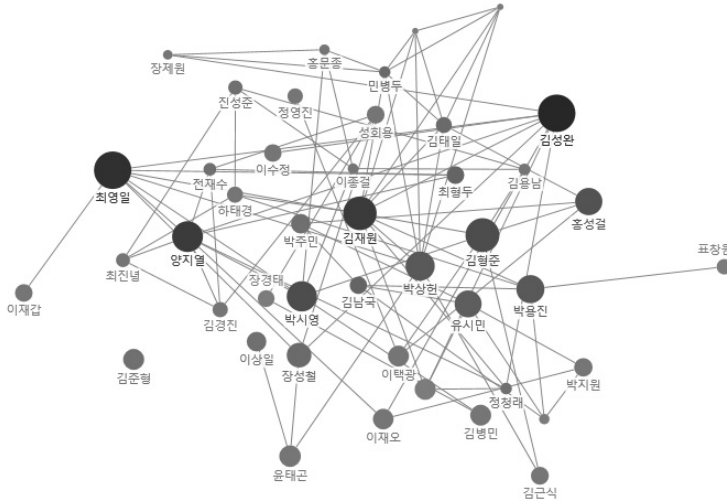
2. 지상파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상파 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은 종편에 비해 많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KBS의 <더 라이브>, <사사건건>, <오늘밤 김제동>(종영), <정치합시다>(종영)와 박근혜 정부에서 편성된 MBC <100분 토론>, MBC <뉴스M>,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도이다. 편성된 프로그램 중에서 방영 중인 프로그램은 <100분 토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더 라이브> 등 세 개 프로그램이다. 지상파는 박근혜 정부기인 2017년에 ‘경영진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목적으로 KBS와 MBC가 장기간 파업을 진행하면서 뉴스 등 다수의 프로그램이 무기한 중단되거나 진행자가 교체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박근혜 정부기의 시사 프로그램은 그 수도 적은데다 MBC의 100분 토론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의 방영 기간도 5개월부터 1년 정도로 안정적이지 않았다. 프로그램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에 편중되어 있어 분석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1) 지상파 출연패널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상파에는 212명의 패널이 출연했고, 이들은 네트워크에서 379의 연결을 나타냈다. <그림 4-6>을 보면, 김성완과 최영일의 매개 중심성 값이 비슷하게 큰 것을 알 수 있다. 노드의 크기는 연결 중심성 값을 보여주는데, 이들의 노드의 크기도 거의 같다. 김재원, 양지열, 김형준의 영향력이 크고, 홍성걸, 박시영, 박상헌, 박용진, 유시민이 그다음 그룹을 형성했다. 이들의 연결 관계를 보면, 최영일은 박시영, 양지열, 김형준, 김성환, 박성헌, 장성철과 연결되었고, 김재원은 김성완, 박용진, 박상헌, 하태경과 연결되었으며, 양지열은 박상헌, 최영일, 최형두, 김성완, 이재오, 정청래와 연결 관계를 나타냈다.

[그림 4-6] 지상파 패널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¹⁹⁾



Created with NodeXL Pro (<http://nodexl.codeplex.com>) from the Social Media Research Foundation (<http://www.smrfoundation.org>)

연결 중심성 값을 기준으로 10년간 지상파에 출연한 패널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패널 40인을 선정했다. <표 4-8>을 보면, 김성완의 연결 중심성이 20으로 가장 크고, 최영일 18, 김재원과 양지열 16, 김형준과 박시영 13 순이다. 최영일은 매개 중심성 값이 3606.555로 가장 컸고, 김성완이 3357.564로 그 뒤를 이었다. 김재원, 양지열, 김형준, 박시영 모두 매개 중심성 값이 2천을 넘어 이들의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 그룹으로 홍성걸, 박상현, 박용진, 유시민, 장성철의 연결 중심성이 8에서 12이고, 이들의 매개 중심성 값도 1400에서 2000 사이로 컸다. 위세 중심성 값을 보면, 김성완과 최영일, 양지열의 값이 커 영향력이 큰 패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김재원, 박시영, 김형준의 위세 중심성 값이 상대적으로 컸다.

19) 연결 중심성 값이 5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 중심성 값이 크고,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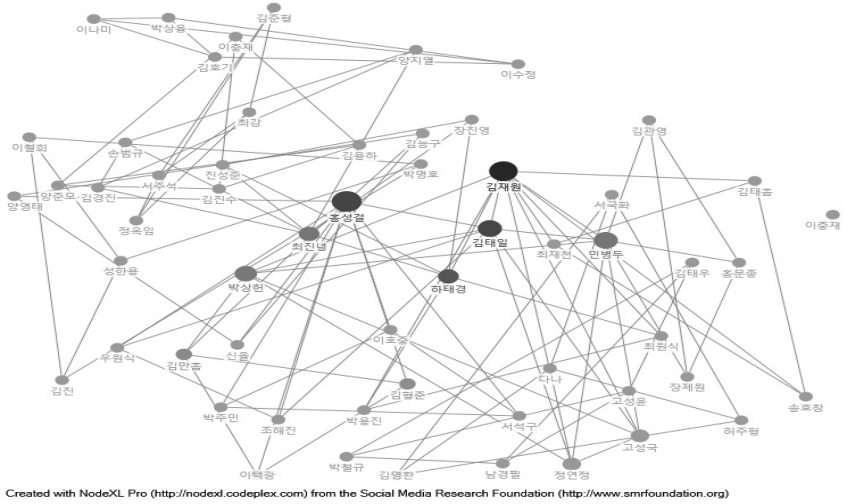
[표 4-8] 지상파 출연패널 영향력 상위 40인(연결 중심성 순)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김성완	20	3357.564	0.379	정청래	7	235.364	0.206
최영일	18	3606.555	0.317	윤태근	6	1040.268	0.061
김재원	16	2675.141	0.282	이택광	6	978.000	0.043
양지열	16	2250.414	0.304	김병민	6	975.906	0.032
김형준	13	2738.482	0.143	이재오	6	941.200	0.035
박시영	13	2147.480	0.168	박지원	6	743.952	0.121
홍성걸	12	1731.387	0.081	김근식	6	696.998	0.052
박상현	11	1991.089	0.193	성화용	6	683.952	0.050
박용진	11	1844.743	0.082	이재갑	6	664.000	0.065
유시민	10	1694.874	0.048	이수경	6	663.000	0.068
최형두	9	675.084	0.140	하태경	6	547.673	0.081
김남국	9	647.111	0.037	정영진	6	498.000	0.009
장성철	8	1406.411	0.129	김경진	6	486.275	0.085
김태일	8	535.954	0.143	최진녕	6	388.167	0.084
민병두	8	231.564	0.154	김용남	6	244.354	0.045
김준형	7	989.000	0.002	이종걸	6	173.955	0.055
박주민	7	850.200	0.033	홍문종	6	173.329	0.081
이상일	7	848.815	0.011	장제원	6	129.457	0.114
진성준	7	413.906	0.044	홍준표	5	998.614	0.146
전재수	7	309.384	0.097	장경태	5	605.536	0.013

2) 시기별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 vs 문재인 정부

시기별로 출연한 패널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출연한 패널을 구분해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먼저, 박근혜 정부에서 지상파에 출연한 패널은 78명이고, 이들은 네트워크에서 120번의 연결을 나타냈다. 홍성걸과 김재원의 노드 크기가 크고, 파란색에 가까워 이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영향력이 있는 패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태일, 민병두, 박상현, 최진녕이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을 보면, 이들을 제외하고는 패널들이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그림 4-7] 박근혜 정부 지상파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²⁰⁾



<표 4-9>는 박근혜 정부에서 영향력이 있는 패널 상위 10인을 보여준다. 홍성결과 김재원의 영향력이 비슷하게 컸고, 김태일, 하태경, 민병두, 박상현이 그다음으로 영향력이 컸다. 이 시기에 분석 프로그램이 적고 출연한 패널 수도 적어 매개 중심성 값이 크지 않았다. 위세 중심성 값을 보면, 김재원이 가장 컸고, 김태일, 민병두, 박상현, 홍성결 순으로 위세 중심성 값이 상대적으로 커 이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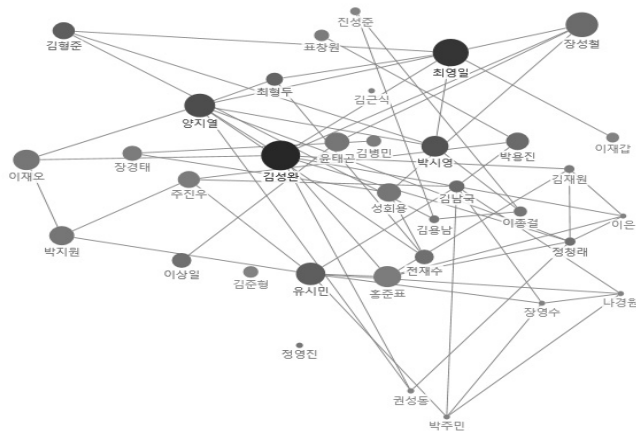
[표 4-9] 박근혜 정부 패널 영향력 상위 10인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홍성결	12	217.000	0.216
김재원	11	219.000	0.417
김태일	8	210.500	0.383
민병두	8	93.000	0.356
박상현	7	81.000	0.341
하태경	6	168.000	0.132
최진녕	6	93.000	0.041
정연정	5	0.000	0.314
고성국	5	0.000	0.314
김만홍	4	41.500	0.122

20) 연결 중심성 값이 3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파란색일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연결 중심성 값이 큼

문재인 정부에서 지상파에 출연한 패널은 모두 162명이고, 이들은 260의 연결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성완과 최영일의 영향력이 컸고, 이어서 양지열, 박시영, 장성철, 유시민이 자주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박지원, 이재오, 홍준표, 박용진 등 국회의원 그룹과 주진우, 김형준이 눈에 띄었다.

[그림 4-8] 문재인 정부 지상파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²¹⁾



Created with NodeXL Pro (<http://nodexl.codeplex.com>) from the Social Media Research Foundation (<http://www.smrfoundation.org>)

문재인 정부에서 지상파에 출연한 패널의 영향력 상위 20인을 보면, 김성완의 연결 중심성이 20, 매개 중심성 2855.826으로 영향력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최영일이 연결 중심성 17, 매개 중심성 2404.596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양지열, 유시민, 박시영, 장성철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이밖에 김형준, 최형두, 박용진, 김남국, 이상일, 전재수, 정청래의 연결 중심성이 컸다. 이재오, 박지원, 윤태곤, 성희용은 모두 연결 중심성 6이었지만 매개 중심성은 천을 넘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세 중심성 값을 보면, 김성완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 최영일, 양지열도 상대적으로 컸다. 이밖에 장성철, 박시영, 김형준과

21) 연결 중심성 값이 8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성 값이 큼.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전재수, 정청래, 이재오, 김재원, 홍준표 등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문재인 정부 패널 영향력 상위 30인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김성완	20	2855.826	0.445	이종걸	6	260.017	0.052
최영일	17	2404.596	0.372	홍준표	5	1397.106	0.221
양지열	13	1746.871	0.348	주진우	5	858.454	0.169
박시영	12	1337.650	0.222	장경태	5	667.762	0.170
유시민	10	1587.837	0.192	표창원	5	360.000	0.122
김형준	10	875.150	0.207	김병민	5	351.195	0.148
최형두	9	480.204	0.217	김재원	5	122.000	0.208
장성철	8	1963.917	0.246	김준형	4	362.000	0.137
이상일	7	647.152	0.163	이재갑	4	242.000	0.194
전재수	7	625.741	0.213	진성준	4	122.000	0.147
정청래	7	143.549	0.223	권성동	4	7.386	0.170
이재오	6	1301.394	0.232	김근식	4	3.000	0.025
박지원	6	1121.394	0.199	이은	4	0.000	0.144
윤태근	6	1109.471	0.198	박주민	4	0.000	0.013
성희용	6	1033.629	0.204	나경원	4	0.000	0.013

시기별로 영향력 상위 패널의 직업을 교차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양 정부 모두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출연했다. 종편과 달리 다음으로 교수가 많았고, 변호사와 전문가가 비슷하게 출연했다. 시사평론가가 종편에 많이 등장한 것에 비해 지상파에서 시사평론가의 출연 비율은 5.0%로 낮았다. 시기별로 직업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출연했고,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더 자주 출연했다.

[표 4-11] 정부별 영향력 상위 패널 직업 교차분석 결과

직업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합계
국회의원	17(42.5)	36(36.0)	53(37.9)
시사평론가	2(5.0)	5(5.0)	7(5.0)
변호사	6(15.0)	13(13.0)	19(13.6)
교수	6(15.0)	22(22.0)	28(20.0)
언론인	2(5.0)	5(5.0)	7(5.0)
정치인	0	0	0
전문가	6(15.0)	12(12.0)	18(12.9)
공무원	0	1(1.0)	1(0.7)
기타	1(2.5)	1(1.0)	2(1.4)
전 체	40(100.0)	100(100.0)	140(100.0)

시기별로 직업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알아봤다. <그림 4-9>에서 위 그림은 박근혜 정부의 직업별 네트워크 분석 결과이고, 아래 그림은 문재인 정부의 직업별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민병두, 김재원의 영향력이 컸고, 교수 중에서는 김태일, 정연정, 김형준이, 교수 중에서는 홍성걸이, 변호사 중에서는 최진녕이, 시사평론가 중에서는 박상현과 고성국의 영향력이 컸다. 언론인 중에서는 양영태, 김능구, 성한용이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의 직업별 네트워크 분석 그래프를 보면, 국회의원 중에서는 홍준표, 이재오, 박지원의 영향력이 크고, 박용진, 전재수, 이상일, 장경태가 뒤를 이었다. 변호사 중에서는 양지열의 영향력이 컸다. 교수 중에서는 홍성걸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김형준이 뒤를 이었다. 시사평론가 중에서는 최영일과 윤태곤, 김성완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성희용과 주진우가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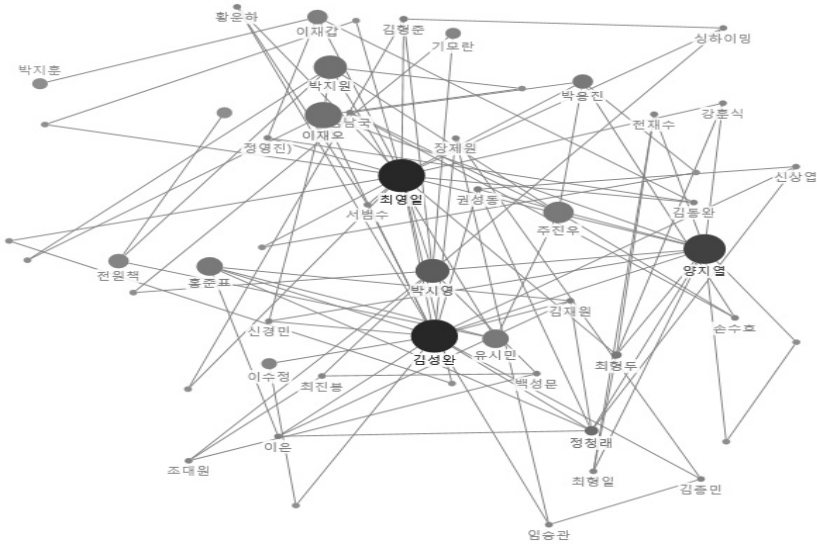
3) 지상파 채널별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상파 채널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수집한 자료의 사례 수가 적어 정부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채널별로 영향력이 있는 패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KBS

분석 기간에 KBS에 모두 68명의 패널이 출연했고, 이들은 네트워크에서 114의 연결을 나타냈다. <그림 4-10>을 보면, 최영일과 김성완의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큰 것을 알 수 있고, 양지열이 그 뒤를 이었다. 이재오, 박지원, 주진우도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 KBS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²³⁾



Created with NodeXL Pro (<http://nodexl.codeplex.com>) from the Social Media Research Foundation (<http://www.smrfoundation.org>)

23) 연결 중심성 값이 2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성 값이 큼.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패널 영향력 상위 15인을 보면, 최영일이 연결 중심성 17, 매개 중심성 641.833으로 영향력이 가장 컸고, 김성완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양지열의 연결 중심성 13, 매개 중심성 517.000이었다. 김성완, 최영일, 양지열의 위세 중심성 값도 상대적으로 커 이들이 KBS에서 영향력이 큰 패널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KBS에서는 최영일, 김성완 같은 시사평론가와 양지열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정청래, 이재오, 박용진, 최형두, 권성동, 김재원 같은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컸다. 이재갑 교수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패널로 자주 등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4-12] KBS 패널 영향력 상위 15인(연결 중심성 순)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최영일	17	641.833	0.375	박용진	5	110.000	0.003
김성완	17	638.417	0.446	최형두	5	14.667	0.168
양지열	13	517.000	0.371	이재갑	4	110.000	0.086
박시영	9	328.500	0.178	김형준	4	4.000	0.113
정청래	7	38.500	0.250	권성동	4	3.917	0.186
이재오	6	397.500	0.167	김재원	4	0.000	0.157
박지원	6	314.833	0.162				
주진우	5	260.000	0.014				
유시민	5	192.833	0.037				
홍준표	5	192.000	0.162				

KBS에 출연한 패널들에 대한 직업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좌측 파란색 국회의원 중에서는 박지원과 이재오가 영향력이 컸고, 홍준표, 박용진이 그 뒤를 이었다. 좌측 아래 정치인 중에서는 유시민이, 가운데 초록색 변호사 중에서는 양지열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전원책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 중에서는 박시영이, 언론인 중에서는 주진우가, 시사평론가 중에서는 김성완과 최영일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교수 중에서는 이재갑과 이수정의 영향력이 컸다.

MBC에 출연한 패널 중에서 영향력 상위 20인을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값을 기준으로 보면, 김재원이 연결 중심성 11, 매개 중심성 911.667, 위세 중심성 0.429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홍성걸과 김태일의 영향력이 컸고, 이어서 민병두, 박주민, 진성준, 김형준, 김용남, 이택광이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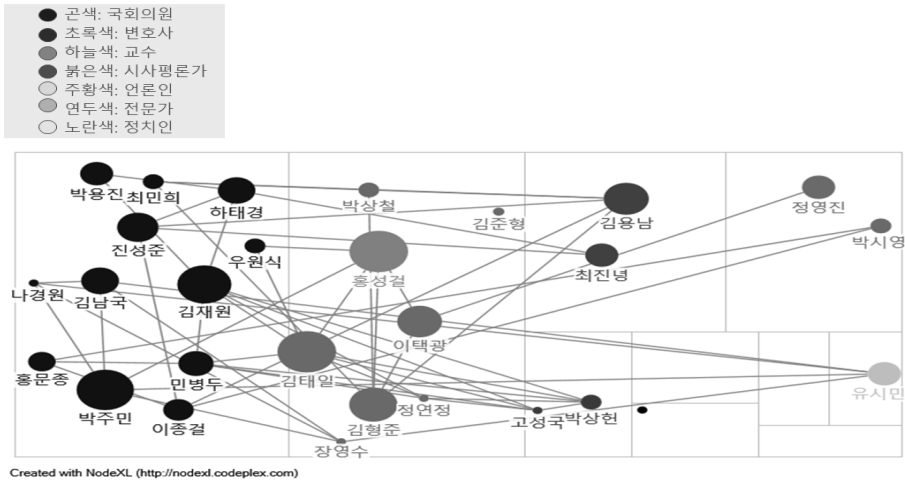
[표 4-13] MBC 패널 영향력 상위 20인(연결 중심성 순)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김재원	11	911.667	0.429	하태경	6	231.167	0.153
홍성걸	9	497.667	0.162	최진녕	6	177.000	0.056
김태일	8	588.333	0.373	박용진	6	177.000	0.144
민병두	8	202.667	0.364	정영진	6	177.000	0.018
박주민	7	561.000	0.061	이종걸	6	148.167	0.062
진성준	7	285.667	0.072	홍문종	6	117.167	0.124
김형준	6	394.167	0.064	유시민	5	177.000	0.024
김용남	6	343.333	0.049	김준형	5	6.000	0.000
이택광	6	336.000	0.057	고성국	5	0.000	0.315
김남국	6	235.000	0.025	정연정	5	0.000	0.315

MBC에 출연한 패널들에 대한 직업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좌측 파란색 국회의원 중에서는 박주민과 김재원의 영향력이 컸고, 이어서 김남국²⁶⁾, 진성준, 하태경의 영향력이 컸다. 하늘색으로 표시된 교수 중에서는 홍성걸, 김태일, 김형준, 이택광이, 변호사 중에서는 김용남과 최진녕의 영향력이 컸고, 정치인 중에서는 유시민의 영향력이 컸다. 시사평론가 중에서는 박상헌과 고성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지만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26) 직업이 바뀐 패널은 출연 시점의 직업을 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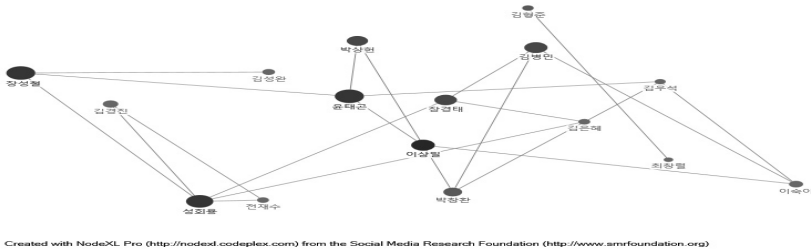
[그림 4-13] MBC 패널 직업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²⁷⁾



(3) SBS

SBS에는 분석 기간에 52명의 패널이 출연했고, 이들은 57번의 연결을 나타냈다. SBS에서는 이상일, 윤태곤, 장성철, 성회용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SBS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²⁸⁾



27) 연결 중심성 값이 4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28) 연결 중심성 값이 3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성 값이 큼.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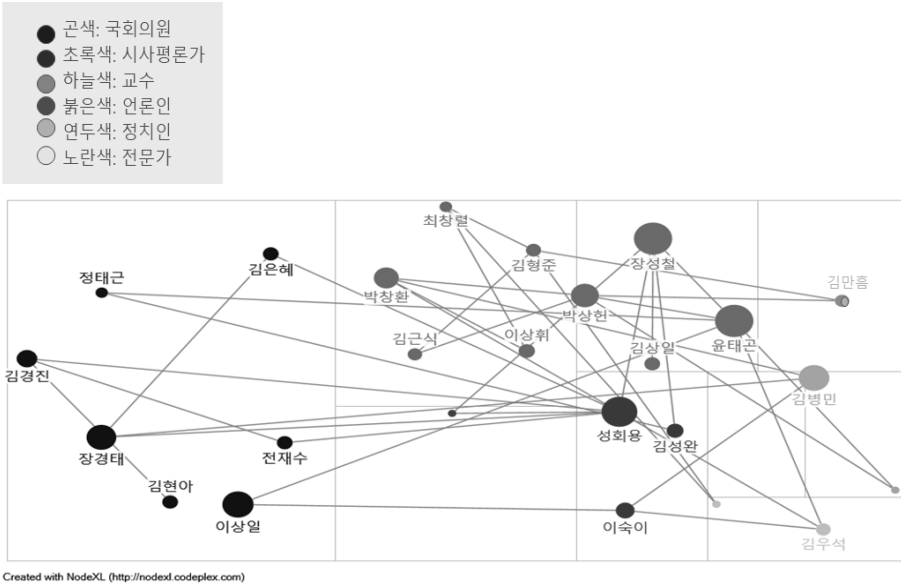
SBS에 출연한 패널의 영향력 상위 15인을 보면, 이상일, 윤태곤, 장성철, 성희용이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고, 김병민, 장경태, 박상헌이 뒤를 이었다. 위세 중심성 값을 보면, 장성철, 윤태곤, 성희용이 상대적으로 커 이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4-14] SBS 패널 영향력 상위 15인(연결 중심성 순)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이상일	7	187.283	0.253	이숙이	3	59.667	0.184
윤태곤	6	290.567	0.385	김성완	3	46.000	0.146
장성철	6	298.767	0.344	김은혜	3	38.000	0.167
성희용	6	251.167	0.333	전재수	3	38.000	0.142
김병민	5	180.283	0.201	김우석	3	30.700	0.213
장경태	5	168.733	0.228	최창렬	3	19.133	0.049
박상헌	5	147.633	0.263				
박창환	4	114.833	0.206				
김형준	4	34.233	0.074				
김경진	3	74.000	0.143				

SBS에 출연한 패널에 대한 직업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국회의원 중에서는 이상일과 장경태가(좌측 파란색), 교수 중에서는 박창환이(하늘색), 시사평론가 중에서는 장성철과 윤태곤의 영향력이 컸고, 박상헌이 뒤를 이었다. 정치인 중에서는 김병민의 영향력이 컸다.

[그림 4-15] SBS 패널 직업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²⁹⁾



4) 패널 구성 현황 및 영향력 상위 패널 분석 결과

(1) 채널별 영향력 상위 패널

〈표 4-15〉는 지상파에 출연한 패널 전체. 시기별, 채널별로 영향력 상위 패널을 정리한 것이다.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기준으로 영향력 상위 패널을 선정했다. 지상파 전체를 보면, 김성완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최영일, 김재원, 양지열, 김형준 순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홍성걸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김재원, 김태일, 민병두, 박상헌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성완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최영일, 양지열, 박시영, 유시민 순이었다. 채널별로 보면, KBS에서는 김성완, 최영일, 양지열, 박시영, 정청래가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고, MBC에서는 김재원, 홍성걸, 김태일, 민병두, 박주민이, SBS에서는 이상일, 윤태곤, 장성철, 성희용, 김병민이 상위권에 있었다. 채널별로 영향력이 큰 패널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9) 연결 중심성 값이 2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이들 중 김성완, 김형준, 박용진은 두 개의 채널에서 영향력 상위권에 자리매김했다. 김성완은 KBS와 SBS에서, 박용진은 KBS와 MBC에서, 김형준은 MBC와 SBS에서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다.

[표 4-15] 지상파 패널 영향력 상위 20인(연결 중심성·매개 중심성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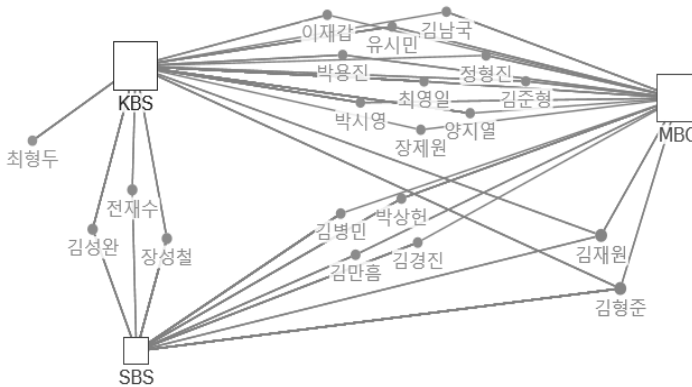
패널 순위	지상파 전체 (212명)	시기		채널		
		박근혜 정부 (78명)	문재인 정부 (162명)	KBS (68명)	MBC (120명)	SBS (52명)
1	김성완	홍성걸	김성완	김성완	김재원	이상일
2	최영일	김재원	최영일	최영일	홍성걸	윤태곤
3	김재원	김태일	양지열	양지열	김태일	장성철
4	양지열	민병두	박시영	박시영	민병두	성희용
5	김형준	박상헌	유시민	정청래	박주민	김병민
6	박시영	하태경	김형준	이재오	진성준	장경태
7	홍성걸	최진녕	최형두	박지원	김형준	박상헌
8	박상헌	정연정	장성철	주진우	김용남	박창환
9	박용진	고성국	박용진	유시민	이택광	김형준
10	유시민	김만홍	김남국	홍준표	김남국	김경진
11	최형두	김형준	이상일	박용진	하태경	이숙이
12	김남국		전재수	최형두	최진녕	김성완
13	장성철		정청래	이재갑	박용진	김은혜
14	김태일		이재오	권성동	정영진	전재수
15	민병두		박지원		이종걸	김우석
16	김준형		윤태곤		홍문종	최창렬
17	박주민		성희용		유시민	
18	이상일		이종걸		김준형	
19	진성준		김용남		고성국	
20	전재수		정영진		정연정	

(2) 지상파 출연패널 중복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상파 패널 중에서 여러 채널에 중복출연한 패널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23개의 노드가 있고, 단일 연결 8, 중복 연결 141, 전체 149의 연결을 나타냈다. KBS와 MBC의 연결 중심성이 16으로 비슷하게 많았고, SBS의 연결 중심성이 9로 나타났다. 김재원과 김형준이 세 개의 지상파에 모두 출연했고, KBS와 MBC에 중복출연한 패널이 많았다. 김남국, 김준형, 박시영, 박용진, 양지열, 유시민, 이재갑, 장제원, 최영일이 두 채널에 중복출연했다. KBS와 SBS

중복 출연 패널은 김성완, 장성철, 전재수 세 명이다. SBS와 MBC 중복 출연 패널은 김경진, 김병민, 김만흠, 박상헌이 있다.

[그림 4-16] 지상파 중복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이들의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값을 비교한 결과, 김형준과 김재원의 매개 중심성이 3.826으로 똑같이 가장 컸고, 위세 중심성 0.060이었다. 연결 중심성 값이 2인 패널 중에서는 김성완, 장성철, 전재수의 매개 중심성이 1.780으로 다음으로 컸다. 다음으로 김경진, 김병민, 김만흠, 박상헌의 매개 중심성이 1.242였다. 이들의 위세 중심성은 0.036으로 동일했다.

[표 4-16] 지상파 중복 출연패널의 연결 중심성·매개 중심성·위세 중심성 값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김형준	3	3.826	0.060
김재원	3	3.826	0.060
김성완	2	1.780	0.036
장성철	2	1.780	0.036
전재수	2	1.780	0.036
김경진	2	1.242	0.036
김병민	2	1.242	0.036

김만홍	2	1.242	0.036
박상현	2	1.242	0.036
최영일	2	0.804	0.048
양지열	2	0.804	0.048
박시영	2	0.804	0.048
유시민	2	0.804	0.048
박용진	2	0.804	0.048
김남국	2	0.804	0.048
김준형	2	0.804	0.048
이재갑	2	0.804	0.048
정형진	2	0.804	0.048
장제원	2	0.804	0.048
최형두	1	0.000	0.024

(3) 영향력 상위 패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정치 성향 교차분석 결과

KBS에 출연한 패널 63명과 MBC 63명, SBS 25명에 대해 성, 연령, 직업 분포를 빈도 분석했다. 직업을 보면, 국회의원이 32.5%로 가장 많이 출연했고, 교수 21.2%, 변호사 13.2% 순이었다. 정치인과 시사평론가가 각각 7.3%로 같았고, 전문가 10.6%, 언론인 5.2%로 나타났다. 패널로 출연한 국회의원의 정치 성향은 보수와 진보가 비슷했다. 종편과 마찬가지로 지상파 패널 출연자의 86.1%가 남자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49.7%로 출연자 두 명 중 한 명이 50대였다. 40대와 60대가 23.2%로 같았고, 30대는 4.0%에 불과했다.

[표 4-17] 지상파 영향력 상위 패널 성별·연령대·직업·정치 성향 기초 빈도분석 결과

성별	
남성	130(86.1)
여성	21(13.9)
전체	151(100.0)
연령대	
30대	6(4.0)
40대	35(23.2)
50대	75(49.7)
60대 이상	35(23.2)
전체	153(100.0)
직업	빈도(%)
교수	32(21.2)
변호사	20(13.2)

언론인	8(5.2)
국회의원	49(32.5)
정치인	11(7.3)
시사평론가	11(7.3)
전문가	16(10.6)
기타	4(2.6)
전체	151(100.0)
정치 성향	
보수	25(51.0)
진보	23(46.9)
중도	1(2.0)
전체	49(100.0)

채널별로 영향력 상위 패널의 성, 연령, 직업, 정치 성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했다. 채널별로 성별은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채널별로 패널의 연령대는 차이를 보였는데, KBS에는 40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출연했고, 50대는 SBS, MBC, KBS 순으로 출연 비율이 높았다. 60대 이상은 KBS, MBC, SBS 순으로 출연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채널별로 출연한 패널의 직업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교수와 변호사는 MBC에 상대적으로 많이 출연했고, 언론인과 국회의원은 KBS에 더 자주 출연했다. 시사평론가는 SBS에 상대적으로 많이 출연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표 4-18] 채널별 영향력 상위 패널 성별·연령대·직업·정치 성향 교차분석 결과

성	KBS	MBC	SBS	합 계
남성	55(87.3)	53(84.1)	22(88.0)	130(86.1)
여성	8(12.7)	10(15.9)	3(14.6)	21(13.9)
전체	63(41.7)	63(41.7)	25(16.6)	151(100.0)
$\chi^2 = .356, df = 2$				
연령*				
30대	2(3.2)	4(6.3)	0	6(4.0)
40대	18(29.6)	12(19.0)	5(20.0)	35(23.2)
50대	22(34.9)	34(54.0)	19(76.0)	75(49.7)
60대	21(33.3)	13(20.6)	1(4.0)	35(23.2)
전체	63(41.7)	63(41.7)	25(16.6)	151(100.0)
$*\chi^2 = 16.782, df = 6, p < .05$				
직업**				
교수	9(14.3)	18(28.6)	5(20.0)	32(21.2)
변호사	7(11.1)	10(15.9)	3(12.0)	20(13.2)
언론인	5(7.9)	2(3.2)	1(4.0)	8(5.3)

국회의원	23(36.5)	19(30.2)	7(28.0)	49(32.5)
정치인	9(14.3)	1(1.6)	1(4.0)	11(7.3)
시사평론가	3(4.8)	3(4.8)	5(20.0)	11(7.3)
전문가	7(11.1)	8(12.7)	1(4.0)	16(10.6)
기타	0	2(3.2)	2(8.0)	4(2.6)
전체	63(41.7)	63(41.7)	25(16.6)	151(100.0)
** $\chi^2=25.453$, $df=14$, $p < .05$				
정치 성향				
보수	11(47.8)	10(52.6)	4(57.1)	25(51.0)
진보	11(47.8)	9(47.4)	3(42.9)	23(46.9)
중도	1(4.3)	0	0	1(2.0)
전체	23(46.9)	19(38.8)	7(14.3)	49(100.0)
$\chi^2=1.267$, $df=4$				

지상과 출연패널의 직업을 성별,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로는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차이를 보였는데, 40대는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많고, 50대는 교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회의원은 50대 이상이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표 4-19] 성별·연령대별 직업 교차분석 결과

성별	교수	변호사	언론인	국회의원	정치인	시사 평론가	전문가	기타	합 계
남성	29 (22.3)	16 (12.3)	7 (5.4)	42 (32.3)	10 (7.7)	11 (8.5)	11 (8.5)	4 (3.1)	130 (86.1)
여성	3 (14.3)	4 (19.0)	1 (4.8)	7 (33.3)	1 (4.8)	0	5 (23.9)	0	21 (13.9)
전체	32 (21.2)	20 (13.2)	8 (5.3)	49 (43.5)	11 (7.3)	11 (7.3)	16 (10.6)	4 (2.6)	151 (100.0)
$\chi^2=7.844$, $df=7$									
연령 *									
30대	0	1 (16.7)	0	2 (33.3)	0	0	2 (33.3)	1 (16.7)	6 (4.0)
40대	1 (2.9)	14 (40.0)	4 (11.4)	4 (11.4)	4 (11.4)	1 (2.9)	4 (11.4)	3 (8.8)	35 (23.3)
50대	24 (32.0)	4 (5.3)	2 (2.7)	28 (37.3)	3 (4.0)	9 (12.0)	5 (6.7)	0	75 (49.7)
60대 이상	7 (20.0)	1 (2.9)	2 (5.7)	15 (42.9)	4 (11.4)	1 (2.9)	5 (14.3)	0	35 (23.3)
전체	32 (21.2)	20 (13.2)	8 (5.3)	49 (43.5)	11 (7.3)	11 (7.3)	16 (10.6)	4 (2.6)	151 (100.0)
* $\chi^2=70.925$, $df=21$, $p < .000$									

5) 지상파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요약 및 함의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종편의 영향력이 있는 패널과 차이를 나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홍성걸, 김재원의 영향력이 컸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성완, 최영일, 양지열과 다수의 국회의원, 정치인의 영향력이 컸다. 지상파에서 영향력이 큰 패널 중에서 종편에 자주 출연한 패널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추가 분석 및 분석 결과는 결과 논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했다. 매체를 넘나들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패널을 찾아내려는 목적에서 얼마나 여러 매체에 출연했는지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지상파에 출연한 패널을 대상으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기준으로 살펴본 패널 영향력에 대한 주요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별로 지상파 패널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김성완, 최영일, 박상헌 등 시사평론가 패널의 영향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김성완은 문재인 정부기에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KBS의 <사사건건> 프로그램에 주로 출연했고, 최영일도 문재인 정부기에 KBS <사사건건>, KBS 더 라이브 방송에 빈도 높게 출연했다. 반면 박상헌은 박근혜 정부기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MBC의 <100분 토론>에 자주 출연했다.

둘째, 지상파 패널의 다빈도 출연 직업군을 살펴보았을 때, 김재원(현 국민의힘), 민병두(현 더불어민주당), 최형두(현 국민의힘), 박용진(현 더불어민주당) 등의 국회의원 패널이 자주 노출되면서 그 영향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김재원은 박근혜 정부기와 문재인 정부기에 방송 3사를 종횡하며 시사 프로그램에서 가장 빈도 높게 출연했다. 민병두는 박근혜 정부기에 MBC의 <100분 토론>에, 최형두는 문재인 정부기에 KBS의 <사사건건>과 MBC의 <100분 토론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했고, 박용진은 박근혜 정부기와 문재인 정부기에 MBC의 <100분 토론>에 빈도 높게 출연했다. 또 지상파의 국회의원 패널의 정치적 성향의 경우, 방송사는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기계적 중립을 지킨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치와 무관한 중립적 직군으로 소개되는 김형준, 홍성걸, 김태일 등의 교수 패널과 양지열, 김남국³⁰⁾, 등의 변호사 패널, 그리고 박시영 등의 전문가

패널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홍성걸과 김태일은 박근혜 정부기에 MBC의 <100분 토론> 프로그램에 빈도 높게 출연했다. 반면, 김형준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내내 방송 3사의 시사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지열은 박근혜 정부기에는 MBC의 <100분 토론>에, 문재인 정부기에는 KBS의 <사사건건>과 <더 라이브> 프로그램에서 변호사 패널로 출연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박시영은 여론 분석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기에 KBS의 사사건건, 더 라이브 프로그램과 MBC의 <100분 토론> 프로그램에 빈도 높게 출연했다.

넷째, 방송사 채널별로 영향력 상위 패널의 직업군을 살펴보았을 때, 방송사별로 비가시화된 정파성 직군의 출연 빈도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KBS는 국회의원과 정치인처럼 패널의 정파성이 가시화된 직군(50.8%)의 노출 비율이 교수, 변호사, 전문가, 시사평론가 패널처럼 비가시화된 정파성 직군(36.5%)보다 현저히 높았다. 반면에 MBC는 비가시화된 정파성 패널 직군(57.2%)이 가시화된 정파성 패널 직군(31.8%)보다 출연 빈도가 높았다. SBS는 비가시화된 정파성 패널 직군(36%)과 가시화된 정파성 패널 직군(32%)의 출연 빈도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SBS의 시사평론가 출연 빈도(20%)는 MBC(4.8%)와 KBS(4.8%)보다 4배 정도 높았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은 매일매일 벌어지는 민감한 정치 이슈와 현안을 해설하고 논평한다. 방송사는 교수, 변호사, 전문가, 시사평론가 등이 출연할 때 이들의 정당, 소속, 정파성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이들을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 직군 패널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비가시화된 정파성 직군의 패널들은 대개 자신과 이해관계가 깊은 정당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의견과 해석을 내놓는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기에 MBC의 <100분 토론>에 자주 출연해 격론을 펼치던 홍성걸과 김태일은 방송에서 교수 신분만 노출되었지만, 홍성걸은 전 한국당 비대위원을 지낸 보수 성향의 논객이고, 김태일은 전국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상임대표 및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를 지낸 진보 성향의 논객이다.

30) 김남국은 박근혜 정부기에 MBC의 100분 토론에 변호사 패널로 출연하다가 21대(2020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문재인 정부기에는 국회의원 패널로 분류했다.

시사평론가는 물론이고 전문가와 변호사 패널 역시 대개는 집권 여당과 대표 야당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예컨대, 박시영은 문재인 정부기에 여론 전문가 패널로 KBS의 <사사건건>과 MBC의 <100분 토론>에 빈도 높게 출연했다. 그는 노사모 사무총장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 대통령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친민주계 성향의 논객이다. 또 박근혜 정부기와 문재인 정부기에 방송 3사에서 왕성하게 정치시사 평론을 한 양지열은 2022년 대선 기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할 정도로 친민주계 성향을 띤다.

정리하면, 지상파 채널 또한 앞서 논의한 종편과 마찬가지로, 특정 패널이 한 채널에 편중적으로 등장하거나 특정 패널이 여러 채널에 중복해서 등장하는 양태로 나타났다. 이는 방송의 다양성 관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점으로 보인다. 또 지상파 3사가 대체로 비가시화된 정파성 직군을 많이 활용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가시화된 정파성 직군이 패널로 출연해, 정파성을 드러내는 관점에서 이슈나 정치평론을 하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보다 방송사는 현안에 대한 시청자의 적절한 인식과 판단을 위해 패널의 여야 정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치 중립적 해설과 논평을 기대하고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 책무라고 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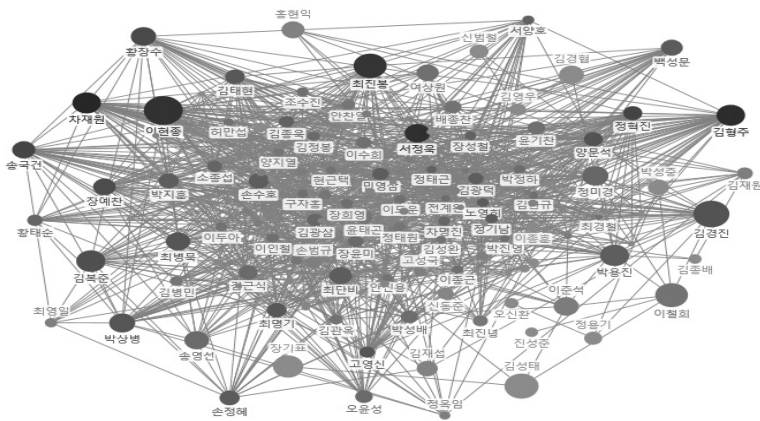
3. 종편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1) 종편 출연패널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분석 대상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은 모두 458명이었고, 이들은 네트워크에서 2,050의 연결을 나타냈다. 종편에 출연한 패널에 전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그림 4-17>과 같다. <그림 4-17>은 458명의 패널 중에서 연결 중심성 값이 7 이상인 패널만 제시했다. 파란색일수록 연결 중심성 값이 큰 것을 나타내며, 노드의 크기는 매개 중심성 값을 보여준다. 그래프에서 연결 중심성이 높은 패널은 이현종, 최진봉, 김형주, 차재원, 김경진, 김복준, 황장수, 송국건, 박상병, 정미경

을 꼽을 수 있고, 매개 중심성이 큰 패널은 이현종, 최진봉, 김경진이 한 그룹을 형성했고, 그다음으로는 이철희, 김성태, 장기표, 김복준, 박상병, 차재원이 있다. 연결 중심성 값과 매개 중심성 값을 모두 고려하면 이현종, 최진봉, 차재원, 김형주, 서정욱이 종편에서 영향력이 큰 패널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결 관계를 보면 이현종은 차재원, 장예찬, 김경진, 최진봉, 김성태, 박상병, 서정욱과 연결되었고, 최진봉은 이현종, 장예찬, 정미경, 김복준, 박지훈, 송영선, 최단비, 송영선, 오신환, 서정욱과 연결되었다. 차재원은 김경진, 이현종, 김형주, 송국진, 박용진, 서정욱, 황장수와 연결되었다. 황장수는 김복준, 박지훈, 손수호, 김태현, 박상병, 송영선, 박용진, 차재원, 김형주, 송국진, 박용진, 서정욱과 연결 관계를 보였다.

[그림 4-17] 10년간 종편 패널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³¹⁾



Created with NodeXL Pro (<http://nodexl.codeplex.com>) from the Social Media Research Foundation (<http://www.smrffoundation.org>)

네트워크에서 연결 중심성을 기준으로 영향력 상위 패널 40인을 찾아냈다. <표 4-20>을 보면, 차재원의 연결 중심성이 62, 매개 중심성 4994.777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패널이었다. 이어서 김형주, 서정욱, 이현종, 최진봉이 영향력이 큰 패널이었다. 이현종의 경우 매개 중심성이 9591.512로 전체 분석대상 패널 중에서 가장

31) 연결 중심성 값이 7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성 값이 큼.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켰는데, 이현종이 종편에 출연한 패널들과 같이 등장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개 중심성을 기준으로 보면 이현종에 이어서 김경진, 최진봉이 높아 이들이 직접 연결된 패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여러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면서 같이 출연한 패널이 그만큼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차재원, 김형주, 서정욱의 위세 중심성 값이 상대적으로 커 이들이 중요한 패널과 같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송국건, 황장수, 정혁진의 위세 중심성 값이 컸다.

분석 기간에 40회 이상 등장한 패널은 모두 10명으로 차재원, 김형주, 서정욱, 이현종, 최진봉, 송국건, 정혁진, 황장수, 장예찬, 김복준이었다. 한 패널이 특정 프로그램에 여러 번 자주 출연한다면,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이 얼마나 많은 채널에 출연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 채널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에 중복출연하는 것도 방송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표 4-20] 종편 출연패널 영향력 상위 40인(연결 중심성 순)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차재원	62	4994.777	0.244	박용진	32	5160.112	0.110
김형주	58	4991.604	0.209	노영희	32	639.705	0.160
서정욱	56	3866.089	0.227	최단비	31	3173.484	0.059
이현종	55	9591.512	0.151	손수호	31	2498.833	0.079
최진봉	54	6818.190	0.120	박지훈	31	2434.035	0.085
송국건	45	3268.788	0.165	민영삼	31	1552.853	0.134
정혁진	45	2119.519	0.156	김광덕	31	1262.063	0.145
황장수	42	3893.700	0.165	경태근	30	360.604	0.133
장예찬	41	3089.976	0.101	장성철	30	587.124	0.128
김복준	40	5290.827	0.072	서양호	30	683.872	0.153
김경진	38	8205.075	0.110	김종욱	30	1286.671	0.131
양문석	38	2100.806	0.183	황태순	28	1301.133	0.119
최병목	37	3616.680	0.081	소종섭	28	1234.791	0.056
박상병	36	4098.853	0.149	차명진	27	706.714	0.152
고영신	36	1259.282	0.167	정미경	27	4166.900	0.079
최명기	35	2295.979	0.093	김광삼	27	1532.478	0.063
김태현	35	2277.667	0.076	오윤성	26	1742.363	0.044
정기남	34	712.357	0.154	송영선	25	3728.393	0.067
백성문	33	2832.407	0.065	김근식	25	2161.346	0.082
손정혜	33	2413.661	0.066	장윤미	25	1309.662	0.058

2) 시기별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 vs 문재인 정부

종편에 등장한 패널들을 시기별로 구분해 살펴봤다. 시기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로 구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종편에 출연한 패널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그림4-18>과 같다. 분석대상 패널은 218명이고, 이들은 네트워크에서 577번의 연결을 나타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황장수, 민영삼, 박상병, 황태순, 송영선의 연결 중심성이 커 이들이 종편에 자주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노드의 크기도 컸는데, 매개 중심성 값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밖에 박용진, 김복준, 이철희, 손수호가 영향력이 있는 패널이었다. 연결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매개 중심성이 높은 정미경, 장기표도 주목할만하다. 이 시기에 종편에 자주 출연한 전원책은 TV조선의 진행자로 출연해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림 4-18] 박근혜 정부 종편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³²⁾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표 4-21>에서는 매개 중심성과 연결 중심성을 고려해 영향력 상위 패널 30인을 제시했다. 연결 중심성도 크고, 매개 중심성도 큰 패널은 이철희, 박용진, 김성태, 정미경, 장기표, 김복준, 황장수, 송영선, 박상병, 손수호, 민영삼, 황태순, 이상원, 신동준, 한화갑이다. 위세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큰 패널은 박상병, 민영삼,

32) 연결 중심성 값이 10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성 값이 큼.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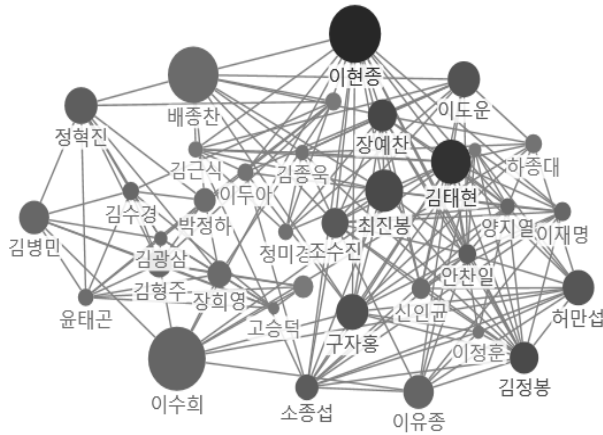
황태순, 황장수 등 시사평론가와 고영신, 박용진이었다. 상위 30인의 패널 중에서 이철희, 표창원, 이준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 대표로 선출되는 등 국회에 입성했다.

[표 4-21] 박근혜 정부 종편 출연패널 영향력 상위 30인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이철희	16	4515.436	0.032	우원식	4	958.932	0.006
박용진	22	3041.586	0.210	최재욱	7	925.000	0.000
김성태	6	2975.571	0.003	김경진	7	925.000	0.095
정미경	11	2845.811	0.065	최진녕	11	919.337	0.005
장기표	9	2426.000	0.000	김성욱	9	898.951	0.005
김복준	21	2246.919	0.089	이상휘	15	844.585	0.005
황장수	31	2222.896	0.244	김종배	15	796.992	0.022
송영선	25	2209.248	0.156	송국건	6	594.863	0.286
박상병	28	2103.731	0.257	이준석	9	589.018	0.003
손수호	17	2067.296	0.119	고영신	27	575.777	0.247
민영삼	31	1905.925	0.291	양지열	7	565.723	0.013
황태순	28	1432.556	0.272	박휘락	7	563.446	0.018
여상원	14	1404.600	0.094	이동영	6	561.000	0.010
신동준	11	1049.460	0.014	금태섭	5	561.000	0.000
한화갑	7	1032.099	0.062	표창원	5	501.683	0.005

문재인 정부에서 종편에 출연한 패널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그림 4-19>와 같다. 모두 330명의 패널이 출연했고, 이들은 네트워크에서 1,552의 연결을 나타냈다.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일수록 연결 중심성이 큰 것을 나타내고 노드의 크기는 매개 중심성 값을 나타낸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이현종의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김태현, 최진봉, 이도운, 구자홍, 김정봉, 장예찬, 조수진의 영향력이 컸다. 허만섭은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동아일보 기자로 자사 채널인 채널A에 출연했기에 논의에서 제외했다. 연결 중심성 값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배종찬, 이수희의 매개 중심성 값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을 중요한 패널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4-19] 문재인 정부 종편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³³⁾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문재인 정부에서 종편에 출연한 패널 중에서 영향력이 큰 상위 30인은 <표 4-22>와 같다. 최진봉과 김형주가 패널 중에서 영향력이 컸다. 이어서 이현종, 최병목, 서정욱, 차재원, 정혁진, 장예찬의 영향력이 컸다. 여성 변호사인 손정혜와 최단비도 연결 중심성 31, 매개 중심성 각각 2399.398과 2365.900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패널로서 영향력이 컸다. 이밖에 김광삼과 김복준, 박지훈, 박성배, 배종찬도 패널로 자주 등장했고, 김경진, 박용진, 양문석, 이준석도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세 중심성 값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22] 문재인 정부 종편 출연패널 영향력 상위 30인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최진봉	52	4794.163	0.012	장경태	6	2000.906	0.001
김형주	58	4681.178	0.022	윤기찬	34	1955.677	0.010
김열수	6	3961.787	0.000	김경진	27	1924.794	0.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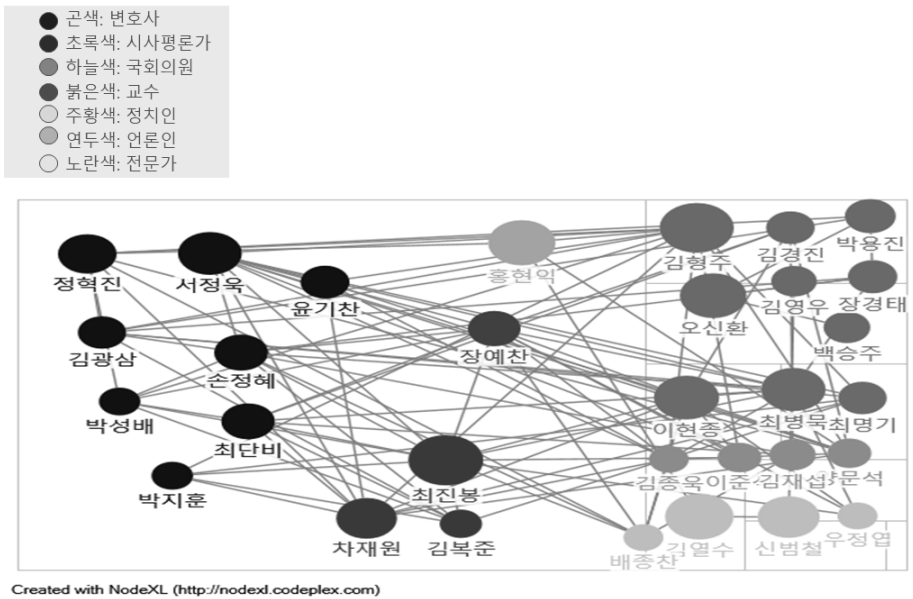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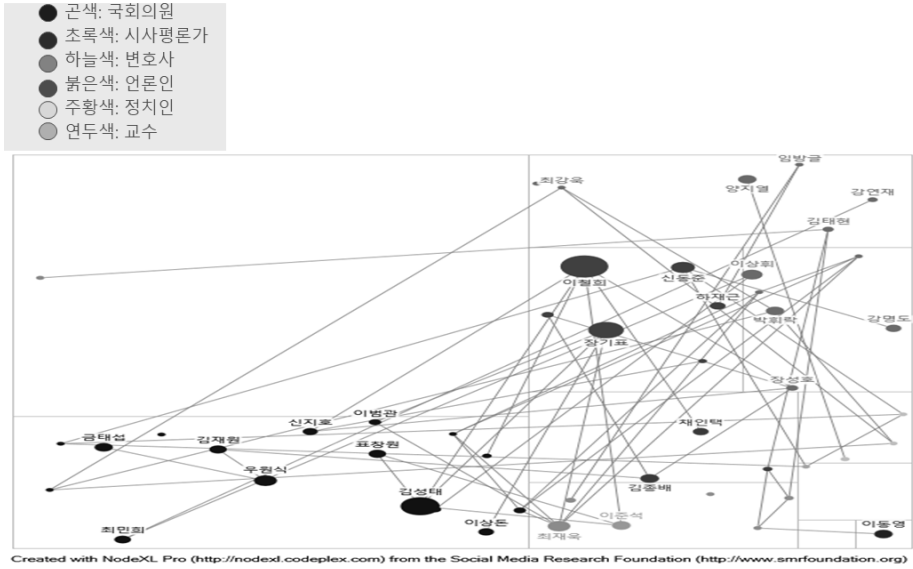
33) 연결 중심성 값이 8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성 값이 큼.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홍현익	9	3836.620	0.004	최영기	31	1919.691	0.009
오신환	8	3750.520	0.000	김광삼	27	1906.668	0.007
이현중	48	3593.621	0.013	백승주	5	1778.213	0.000
최병목	37	3501.288	0.008	김재섭	13	1753.662	0.002
서정욱	55	3433.268	0.023	김영우	9	1685.221	0.000
신범철	9	3230.620	0.000	이준석	13	1560.453	0.005
차재원	53	3089.673	0.022	양문석	31	1153.515	0.015
정혁진	45	2874.431	0.017	김복준	27	1431.668	0.005
손정혜	31	2399.398	0.007	박지훈	25	1376.012	0.008
최단비	31	2365.900	0.006	박성배	24	1360.673	0.006
장예찬	41	2296.319	0.011	우정엽	8	1260.659	0.002
박용진	10	2132.127	0.003	배종찬	20	1249.751	0.006

이들의 직업별로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그룹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그림 4-20>의 위 그래프는 박근혜 정부에 출연한 패널을 직업별로 네트워크 분석을 한 것이다. 국회의원(좌측 하단 파란색) 중에서는 김성태가 가장 영향력이 컸고, 다음으로 우원식, 금태섭, 김재원, 표창원, 최민희가 비슷했다. 변호사 중에서는 양지열이(우측 상단 하늘색), 시사평론가 중에서는 이철희의 영향력이 컸다(우측 중간 초록색). 이철희는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방송의 패널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다음으로 장기표, 신동준, 하재근이 눈에 띈다. 교수 중에서는 이상휘, 박휘락, 강명도 순으로 영향력이 있었다(우측 중앙 연두색).

아래 그래프는 문재인 정부에 등장한 패널에 대한 직업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오신환, 김형주, 장경태, 김경진, 박용진, 김용우가 영향력이 컸고(하늘색), 언론인 중에서는 최병목, 이현중이(연두색), 시사평론가 중에서는 장예찬이(초록색), 교수 중에서는 최진봉의 영향력이 컸다(붉은색). 이 시기에는 여러 명의 변호사가 채널로 출연해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서정욱, 손정혜, 정혁진의 영향력이 컸고, 최단비, 윤기찬, 김광삼이 뒤를 이었다(파란색). 정치인 중에서는 김재섭, 이준석, 양문석, 김종욱이 영향력을 발휘했다(주황색).

[그림 4-20] 정부별 패널 직업 네트워크 분석 결과
 (위: 박근혜 정부, 아래: 문재인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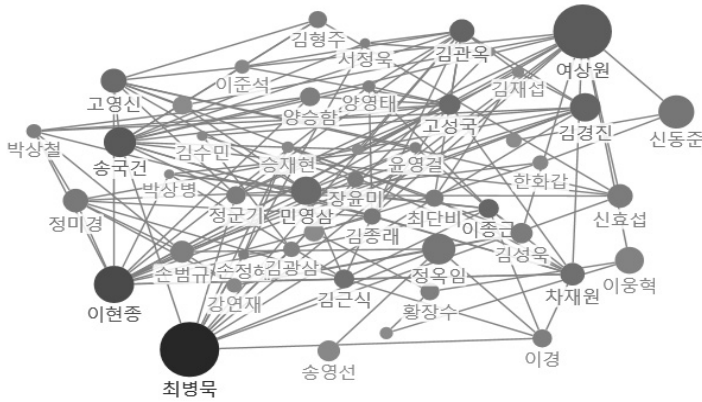
3) 종편 채널별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TV조선, MBN, 채널A, JTBC 등 네 개 종편의 채널별로 출연한 패널에 대해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 시기별로 그룹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1) TV조선

TV조선에는 총 171명의 패널이 등장했고, 이들은 399번의 연결을 나타냈다. <그림 4-21>을 보면, 최병목의 연결 중심성이 크고, 매개 중심성 값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여상원과 이현종, 송국건이 TV조선에서 영향력이 있는 패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김경진, 민영삼, 정옥임, 신동준, 이웅혁, 차재원, 김관옥, 송영선, 고영신, 정미경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림 4-21] TV조선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³⁴⁾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표 4-23>은 패널별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값을 보여준다. 연결 중심성은 최병목이 35로 가장 커 분석대상 패널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병목은 매개 중심성 값이 3024.402로 가장 커 TV조선에서

34) 연결 중심성 값이 5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성 값이 큼.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영향력이 있는 패널로 짐작된다. 이어서 이현종이 연결 중심성 24, 매개 중심성 1340.559로 나타났으며, 여상원과 송국건이 뒤를 이었다.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같이 고려해보면, 김경진, 김관옥, 민영삼, 고영신, 신동준, 정옥임, 차재원, 고성국이 상위권에 자리매김했다. 패널 간에 위세 중심성 값은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4-23] TV조선 패널 영향력 상위 30인(연결 중심성 순)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최병목	35	3024.402	0.035	김종래	10	195.266	0.026
이현종	24	1340.559	0.037	신효섭	9	493.875	0.016
송국건	20	841.630	0.033	김성욱	9	345.889	0.011
여상원	19	2952.273	0.028	정군기	9	257.637	0.020
김경진	16	744.310	0.018	최단비	9	220.855	0.014
김관옥	16	463.388	0.028	김형주	9	217.031	0.011
이종근	15	290.733	0.022	장윤미	8	160.774	0.009
민영삼	14	743.555	0.020	손범규	8	409.383	0.007
고영신	14	516.130	0.023	양승함	8	281.573	0.016
고성국	14	332.189	0.027	이경	8	254.201	0.014
차재원	13	439.187	0.026	황장수	8	232.400	0.001
김근식	13	287.320	0.021	박상철	8	121.018	0.016
신동준	11	1056.808	0.004	손정혜	8	18.732	0.008
정옥임	11	902.422	0.009	이웅혁	7	656.630	0.004
정미경	10	489.523	0.016	김광삼	7	162.481	0.007

TV조선에 등장한 패널이 어느 시기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부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그룹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그림 4-21>을 보면, 파란색(좌측)은 문재인 정부, 하늘색(우측 상단)은 박근혜 정부, 초록색(우측 하단)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모두 출연한 패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신동준, 민영삼, 이웅혁, 황태순, 황장수, 송영선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병목과 김경진, 차재원, 손범규, 김관옥의 영향력이 컸다. 두 정부 모두 패널로 등장한 사람들은 여상원, 이현종, 정옥임, 고영신, 고성국을 들 수 있다.

MBN에 출연한 패널의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값을 살펴보면, <표 4-24>와 같다. 차재원, 김복준, 최명기, 백성문, 최진봉이 매개 중심성 값과 연결 중심성 값이 컸다. 연결 중심성은 차재원이 51로 가장 컸고, 매개 중심성은 최명기가 2302.848로 가장 컸다. 위세 중심성 값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V조선에서 상위에 자리매김한 송국건, 민영삼, 고영신, 차재원, 황장수, 최단비가 MBN 패널 상위 30인에도 포함돼 이들이 두 채널에 잦은 빈도로 출연한 것을 알 수 있다. MBN에서 눈에 띄는 패널은 백성문, 노영희, 정태근, 김광덕, 박지훈, 이인철, 최단비, 손수호로 모두 변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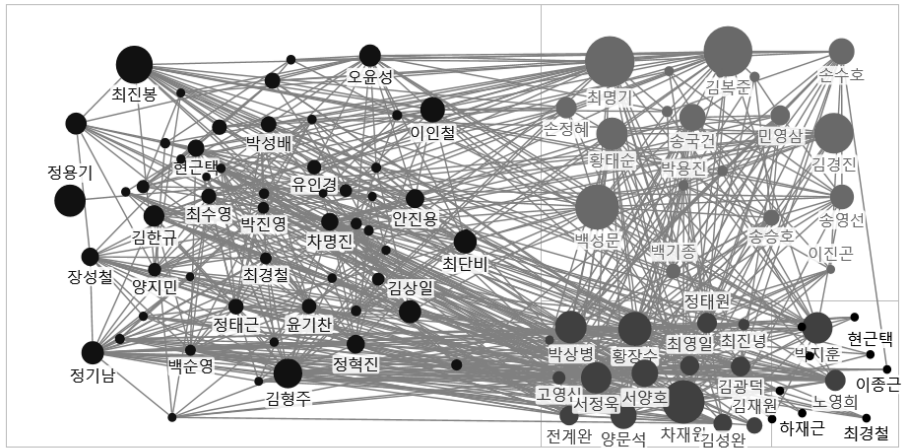
[표 4-24] MBN 패널 영향력 상위 30인(연결 중심성 순)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차재원	51	1647.993	0.032	김광덕	28	295.523	0.021
서정욱	42	829.652	0.028	차명진	27	224.112	0.021
김복준	40	2226.247	0.007	송국건	26	603.428	0.016
양문석	35	591.154	0.025	고영신	26	91.610	0.021
최명기	35	2302.848	0.011	황태순	25	897.523	0.016
김형주	35	732.151	0.024	전계완	24	278.562	0.019
황장수	34	998.133	0.023	박지훈	24	833.409	0.010
정기남	34	424.223	0.024	이인철	23	518.504	0.003
백성문	33	1798.023	0.006	최단비	23	444.453	0.002
박상병	32	900.191	0.018	오윤성	23	386.381	0.004
노영희	32	340.061	0.023	장성철	23	238.159	0.017
정혁진	30	251.567	0.019	손수호	22	568.825	0.008
정태근	30	162.691	0.020	민영삼	22	299.926	0.015
최진봉	29	1244.142	0.005	김한규	22	353.802	0.016
서양호	29	610.239	0.021	김성완	21	268.214	0.014

MBN에 출연한 패널을 정부별로 그룹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그림 4-24>에서 파란색(좌측)은 문재인 정부, 하늘색(우측 상단)은 박근혜 정부, 초록색(우측 하단)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모두 출연한 패널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진봉과 김형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어서 정용기, 이인철, 최단비, 정기남, 오윤성, 김상일의 영향력이 컸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복준, 최명기,

백성문의 영향력이 컸고, 이어서 김경진, 황태순, 송국건, 송영선이 그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그룹을 형성했다. 두 정부 모두 등장한 패널 중에서는 차재원, 황장수, 박상병, 서정욱, 현근택의 영향력이 컸다.

[그림 4-24] MBN 패널 시기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³⁷⁾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3) 채널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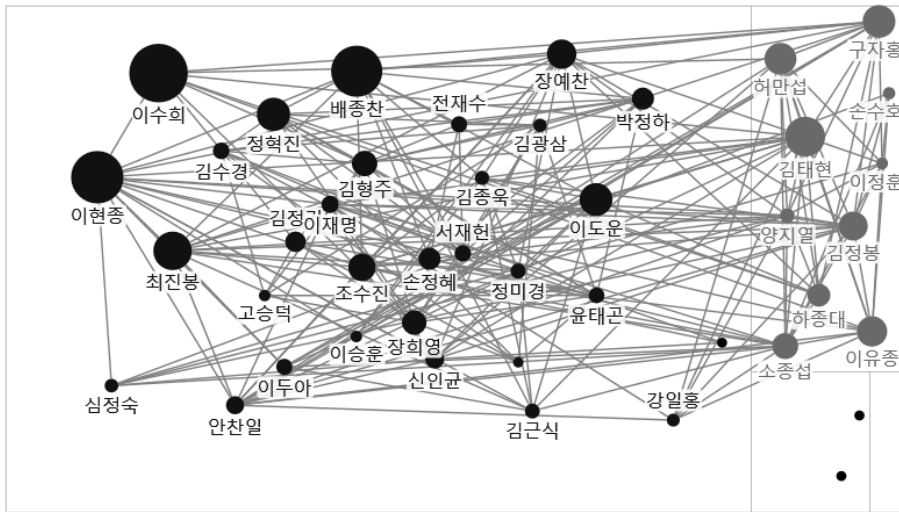
채널A에는 분석 기간에 모두 108명의 패널이 출연했고, 네트워크에서 이들의 연결은 474로 나타났다. <그림 4-25>를 보면, 이현종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최진봉과 김태현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이수희, 배종찬, 정혁진, 조수진, 소종섭, 구자홍, 김정봉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7) 연결 중심성 값 15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구자홍	23	371.436	0.030	장희영	15	192.199	0.003
이도운	22	373.153	0.024	하종대	15	161.673	0.020
허만섭	21	349.659	0.026	김광삼	15	32.221	0.002
소중섭	21	220.744	0.031	박정하	14	148.847	0.003
조수진	20	249.751	0.031	신인균	14	101.230	0.022
정혁진	18	385.153	0.003	윤태곤	14	59.243	0.002
안찬일	18	89.222	0.032	정미경	13	51.316	0.014
이수희	17	1264.096	0.015	이두아	12	64.048	0.014
이유중	17	314.106	0.022	김중욱	12	41.005	0.019
김형주	17	210.660		김근식	11	48.904	

채널A에 등장한 패널에 대해 정부별로 영향력이 있는 패널을 알아보기 위해 그룹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그림 4-26>은 문재인 정부(파란색(좌측))과 박근혜 정부(하늘색(우측 상단))에서 영향력이 있는 패널이 누구인지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태현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현종, 이수희, 배종찬, 최진봉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6] 채널A 패널 시기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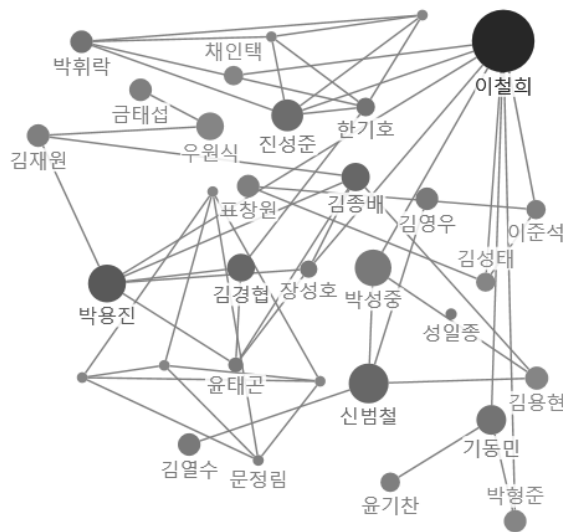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39) 연결 중심성 값이 9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4) JTBC

분석 기간에 JTBC에는 모두 124명의 패널이 출연했고, 네트워크에서 이들 간의 연결은 217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이철희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패널로 나타났고, 이어서, 신범철, 박용진, 진성준, 박성중, 기동민, 우원식의 영향력이 컸다. JTBC는 다른 채널과 겹치는 패널이 없고, 다른 채널에 비해 국회의원이 많이 출연했다.

[그림 4-27] JTBC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⁴⁰⁾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을 기준으로 패널의 영향력을 보면, 이철희가 연결 중심성 21, 매개 중심성 2302.833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패널로 나타났다. 이어서 박용진, 신범철, 진성준, 박성중의 영향력이 컸고, 그다음으로 김종배, 김경협, 기동민, 박휘락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세 중심성 값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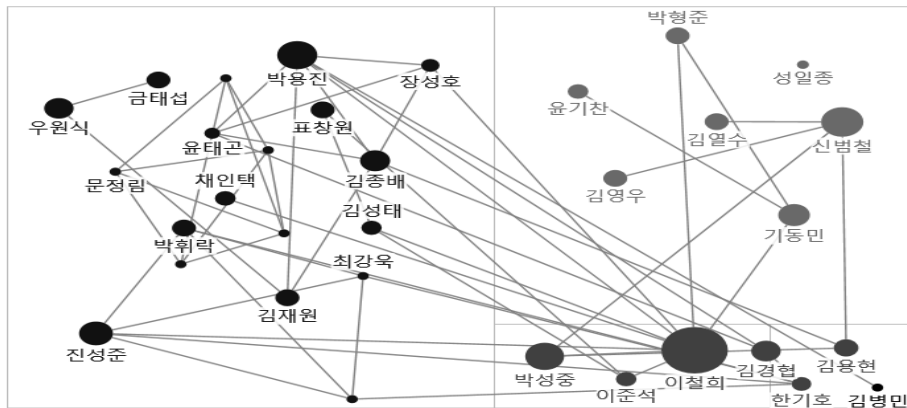
40) 연결 중심성 값이 4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성 값이 큼.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표 4-26] JTBC 패널 영향력 상위 30인(연결 중심성 순)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이철희	21	2302.833	0.081	김재원	5	243.500	0.018
박용진	12	797.667	0.054	표창원	5	240.000	0.009
신범철	9	888.000	0.010	금태섭	5	240.000	0.003
김종배	9	415.667	0.032	윤기찬	5	162.000	0.006
김경협	9	400.500	0.025	이준석	5	159.000	0.025
진성준	8	548.167	0.030	우원식	4	396.500	0.003
기동민	7	467.000	0.023	김용현	4	257.000	0.004
박휘락	7	240.000	0.013	박형준	4	240.000	0.004
한기호	7	140.667	0.018	채인택	4	162.000	0.017
박성중	6	745.000	0.025	김성태	4	154.500	0.021
김열수	6	240.000	0.003	최강욱	4	0.000	0.012
김영우	6	240.000	0.003	양욱	4	0.000	0.012
장성호	6	113.167	0.040	최재욱	4	0.000	0.000
윤태곤	6	66.833	0.030	진병울	4	0.000	0.000
성일중	6	9.000	0.000	임승관	4	0.000	0.000

JTBC에 출연한 패널에 대해 정부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우측 하늘색)에서는 신범철과 기동민이, 문재인 정부(좌측 파란색)에서는 박용진과 진성준이, 두 정부에서는 이철희, 박성중의 영향력이 컸다. 이철희는 정부와 관계없이 JTBC에 패널로 자주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8] JTBC 패널 시기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⁴¹⁾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41) 연결 중심성 값이 4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4) 패널 구성 현황 및 영향력 상위 패널 분석 결과

(1) 채널별 영향력 상위 패널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값을 기준으로 종편에서 영향력 있는 패널을 선택하고, 정부별, 채널별로 영향력 상위 패널을 찾아냈다. 종편 전체와 시기별로 영향력이 있는 패널은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을 고려해 20인을 선정했다. 패널과 패널의 연결 정도를 나타내는 연결 중심성만 본다면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해 매개 중심성도 함께 고려했다. 종편 전체에 출연한 패널 458명 중에서 영향력 상위 10인은 차재원, 김형주, 서정욱, 이현종, 최진봉, 송국건, 정혁진, 황장수, 장예찬, 김복준이었다. 정부별로 영향력 있는 패널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218명의 패널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330명의 패널이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영향력이 있는 패널에는 차이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황장수, 민영삼, 박상병, 황태순, 박용진, 고영신, 송영선, 김복준, 손수호, 이철희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형주, 최진봉, 서정욱, 차재원, 이현종, 정혁진, 장예찬, 최병목, 윤기찬, 손정혜 순이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상위에 올라온 패널은 김복준과 이준석이었다. 이들은 정부가 바뀌어도 종편에 계속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별로 영향력이 있는 패널은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연결 중심성을 우선 고려한 이유는 해당 채널에서 얼마나 많이 출연했는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매개 중심성은 특정 패널이 다른 패널과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V조선의 경우 171명의 패널 중 최병목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이현종, 송국건, 여상원, 김경진, 김관욱, 이종근, 민영삼, 고영신, 고성국이 상위 10인에 해당했다. MBN은 212명의 패널 중에서 차재원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이어서 서정욱, 김복준, 양문석, 최명기, 김형주, 황장수, 정기남, 백성문, 박상병이 상위권이였다. 채널A 출연한 108명의 패널 중에서 이현종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김태현, 장예찬 최진봉, 김정봉, 구자홍, 이도운, 허만섭, 조수진, 정혁진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JTBC에 출연한 패널 124명 중에서는 이철희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이어서 박용진, 신범철, 김종배, 김경협, 진성준, 기동민, 박휘락, 한기호, 박성중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종편 패널 영향력 상위 20인(연결 중심성-매개 중심성 기준)

패널 순위	종편 전체 (458명)	시기		채널			
		박근혜 정부 ⁴²⁾ (218명)	문재인 정부 ⁴³⁾ (330명)	TV조선 (171명)	MBN (212명)	채널A (108명)	JTBC (124명)
1	차재원	황장수	김형주	최병목	차재원	이현종	이철희
2	김형주	민영삼	최진봉	이현종	서정욱	김태현	박용진
3	서정욱	박상병	서정욱	송국건	김복준	장예찬	신범철
4	이현종	황태순	차재원	여상원	양문석	최진봉	김종배
5	최진봉	박용진	이현종	김경진	최명기	김정봉	김경협
6	송국건	고영신	정혁진	김관욱	김형주	구자홍	진성준
7	정혁진	송영선	장예찬	이종근	황장수	이도운	기동민
8	황장수	김복준	최병목	민영삼	정기남	허만섭	박휘락
9	장예찬	손수호	윤기찬	고영신	백성문	조수진	한기호
10	김복준	이철희	손정혜	고성국	박상병	정혁진	박성중
11	김경진	여상원	최단비	차재원	노영희	안찬일	김재원
12	양문석	이상휘	최명기	김근식	정혁진	이수희	표창원
13	최병목	김종배	양문석	신동준	정태근	이유중	금태섭
14	박상병	정미경	김경진	정욱임	최진봉	김형주	윤기찬
15	고영신	신동준	김광삼	정미경, 김종래	서양호	김병민	이준석
16	최명기	최진녕	김복준	신효섭, 김성욱, 정군기, 최단비, 김형주	김광덕	김수경	우원식
17	김태현	장기표	박지훈		차명진	양지열	김용현
18	정기남	김성욱	박성배		송국건	배종찬,	박형준
19	백성문	이준석	배종찬		고영신	장희영	채인택
20	손정혜		김재섭, 이준석		김형주	황태순	하종대, 김광삼

(2) 영향력 상위 패널의 중복 출연 분석 결과

영향력 상위 30인이 어떤 채널에 중복해서 출연했는지 살펴보면, TV조선과 MBN 두 채널에서 영향력이 있는 패널은 송국건, 고영신, 김형주, 차재원, 민영삼, 황장수로 이들은 보수 성향의 두 채널에 잦은 빈도로 출연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현종, 김광삼은 TV조선과 채널A에서, 최진봉은 MBN과 채널A에서 영향력이 컸다. 최단비는 TV조선과 MBN에서 영향력이 컸다. 세 개 이상의 채널에서 영향력이 있는 패널은 정혁진 (TV조선, MBN, 채널A)과 김형주(TV조선, MBN, 채널A)였다.

42) 9회 이상 출연자, 황장수 31회 출연
 43) 13회 이상 출연자, 김형주 58회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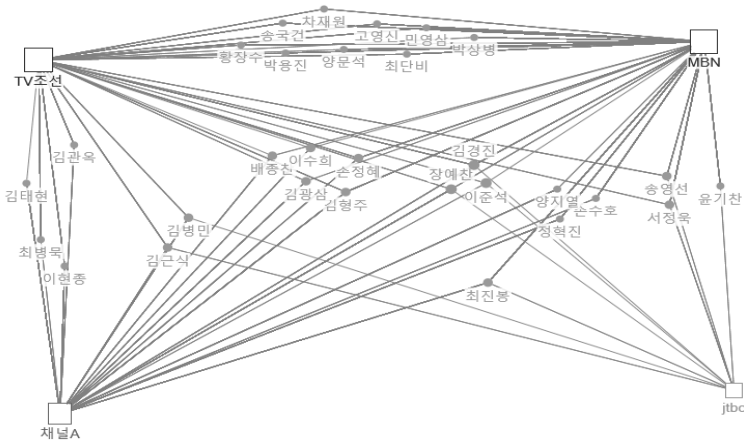
[표 4-28] 두 개 이상의 채널에서 영향력 30인에 포함된 패널

패널 이름	TV조선	MBN	채널A
김형주	○	○	○
정혁진	○	○	○
최진봉		○	○
최단비	○	○	
이현중	○		○
김광삼	○		○
송국건	○		○
고영신	○		○
차재원	○		○
민영삼	○		○
황장수	○		○

상위 20위 안에 든 패널 중에서 여러 채널에 중복해서 출연한 패널 31명을 중심으로 한 패널이 얼마나 여러 채널에 중복해서 출연했는지 알아봤다. 패널별로 출연한 프로그램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한 결과는 <그림 4-28>과 같다. <그림 4-29>를 보면, 모두 31명이 출연했고, 단일 연결 9, 중복 연결 785, 전체 연결 794를 나타냈다. TV조선과 MBN의 연결 중심성이 각각 25, 24로 가장 컸고, 매개 중심성은 193.690, 180.104로 중복출연한 패널이 많았다. 이에 비해 채널A와 JTBC에 중복출연한 패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프에서 중앙에 위치한 장예찬, 김경진, 이준석은 네 개의 채널과 연결돼 종편의 모든 채널에 출연한 것을 알 수 있다. 최진봉, 서정욱, 송영선, 김근식, 김병민은 세 개의 채널에 중복출연했고, 매개 중심성 값도 컸다. 김형주, 손정혜, 김광삼, 배종찬, 이수희도 세 개의 채널에 중복출연했으나 매개 중심성 값은 앞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구체적인 연결 관계를 보면, 김근식, 김병민은 TV조선, 채널A, JTBC에 연결되었고, 최진봉은 MBN, 채널A, JTBC에, 송영선과 서정욱은 TV조선, MBN, JTBC에 연결됐다. 김광삼, 김형주, 배종찬, 손정혜, 이수희는 TV조선, MBN, 채널A에 중복출연했다. 두 개의 채널 간 연결 관계를 보면, TV조선과 채널A에 중복출연한 패널은 김관옥, 이현중, 김태현, 최병목이고, 채널A와 MBN에 중복출연한 패널은 손수호, 정혁진, 양지열이다. TV조선과 MBN에 중복출연한 패널은 고영신, 민영삼, 박상병, 박용진, 송국건, 양문석, 윤기찬, 최단비, 차재원, 황장수다. MBN과 JTBC에 중복출연한 패널은 윤기찬이다.

[그림 4-29] 종편에 중복출연한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Created with NodeXL Pro (<http://nodexl.codeplex.com>) from the Social Media Research Foundation (<http://www.smrfoundation.org>)

중복출연한 패널의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값을 보면 <표 4-29>와 같다. 모든 채널에 출연한 장예찬, 김경진, 이준석의 연결 중심성이 4, 매개 중심성 5.877, 위세 중심성 0.042로 가장 컸다. 최진봉은 연결 중심성은 3이고, 매개 중심성 3.303, 위세 중심성 0.028로 영향력이 컸고, 서정욱과 송영선은 연결 중심성 3이고, 매개 중심성은 3.296으로 최진봉보다 적었지만 위세 중심성은 0.032로 약간 컸다. 김근식과 김병민의 매개 중심성이 3.258로 다음으로 컸고, 위세 중심성은 0.029로 적었다. 김광삼, 김형주, 배종찬, 손정혜, 이수희의 경우 매개 중심성은 1.896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위세 중심성은 0.037로 이들이 중요한 패널들과 등장하는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중복출연한 패널의 연결 중심성·매개 중심성·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장예찬	4	5.877	0.042
김경진	4	5.877	0.042
이준석	4	5.877	0.042
최진봉	3	3.303	0.028
서경욱	3	3.296	0.032
송영선	3	3.296	0.032
김근식	3	3.258	0.029
김병민	3	3.258	0.029
김광삼	3	1.896	0.037
김형주	3	1.896	0.037
배종찬	3	1.896	0.037
손경혜	3	1.896	0.037
이수희	3	1.896	0.037
윤기찬	2	1.319	0.018
정혁진	2	0.820	0.023
손수호	3	0.820	0.023
양지열	2	0.820	0.023
이현종	2	0.596	0.024
김태현	2	0.596	0.024
최병목	2	0.596	0.024
김관옥	2	0.596	0.024

(3) 영향력 상위 패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정치 성향 교차분석 결과

끝으로 종편에 출연한 영향력 상위 패널의 성, 연령대, 직업 분포를 알아보고, 정부별로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했다. 먼저, 종편 출연패널 193명의 직업 분포를 보면, 국회의원이 2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변호사 19.2%, 시사평론가 16.6% 순이었다. 이어서 언론인과 교수가 각각 13.0%와 12.4%를 차지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치 이슈를 다루면서 현안과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을 패널로 선호한 것으로 여겨진다. 변호사도 법적 측면에서 전문성이 크고, 신뢰성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패널이다. 국회의원의 정치 성향을 보면, 10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였다. 진보는 36.4%, 중도 2.3%로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 성향의 종편에 정치 성향이 같은 국회의원이 더 출연한 결과를 보여준다. 종편 출연패널의 88.6%는 남자로 나타났다. 여성 패널은 11.4%로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연령대는 50대가 54.5%로 2명 중 1명이 50대였다. 다음으로 40대가 32.1%였다. 이 밖에 60대 이상이 9.6%였고, 30대는 3.6%로 적었다.

[표 4-30] 종편 영향력 상위 패널 시기·성별·연령대·직업·정치 성향 기초 빈도분석 결과

시기	빈도 (%)
박근혜 정부	97(50.3)
문재인 정부	96(49.7)
전체	193(100.0)
성별	빈도 (%)
남성	171(88.6)
여성	22(11.4)
전체	193(100.0)
연령대	빈도 (%)
30대	7(3.6)
40대	62(32.1)
50대	105(54.4)
60대 이상	19(9.6)
전체	193(100.0)
직업	빈도 (%)
교수	24(12.4)
변호사	37(19.2)
언론인	25(13.0)
국회의원	44(22.8)
정치인	13(6.7)
시사평론가	32(16.6)
전문가	14(7.3)
공무원	3(1.6)
기타	1(0.5)
전체	193(100.0)
정치 성향	빈도 (%)
보수	27(61.4)
진보	16(36.4)
중도	1(2.3)
전체	44(100.0)

성별, 연령대별로 직업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 분석한 결과, 여성은 국회의원과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시사평론가와 정치인, 공무원은 전부 남성이었고, 교수, 언론인도 남성이 주를 이뤘다. 이 결과를 보면, 여성이 종편에 패널로 출연하려면 직업이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연령대별로 출연한 직업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30대는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40대는 변호사와 시사평론가가, 50대는 교수, 언론인, 국회의원이, 60대는 정치인과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출연했다. 변호사는 3, 40대의 비교적

젊은 층을 선호하고, 교수와 언론인, 국회의원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사람을 찾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인과 공무원은 경력이 많은 60대를 선호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표 4-31] 성별·연령대별 직업 교차분석 결과

성별	교수	변호사	언론인	국회의원	정치인	시사평론가	전문가	공무원	기타	합계
남성	23 (11.9)	29 (15.0)	24 (12.4)	34 (17.6)	13 (6.7)	32 (16.6)	12 (6.2)	3 (1.6)	1 (0.5)	171 (88.6)
여성	1 (4.2)	8 (21.6)	1 (4.0)	10 (22.7)	0	0	2 (14.3)	0	0	22 (11.4)
전체	24 (12.4)	37 (19.2)	25 (13.0)	44 (22.8)	13 (6.7)	32 (16.6)	14 (7.3)	1 (0.5)	3 (1.6)	193 (100.0)

* $\chi^2=18.437$, $df=8$, $p < .05$

연령**	교수	변호사	언론인	국회의원	정치인	시사평론가	전문가	공무원	기타	합계
30대	0	3 (8.1)	0	1 (2.3)	1 (7.7)	0	2 (14.3)	0	0	7 (3.6)
40대	3 (12.5)	23 (62.2)	7 (28.0)	8 (18.2)	4 (30.8)	13 (40.6)	3 (21.4)	0	1 (33.3)	62 (32.1)
50대	19 (79.2)	9 (24.3)	17 (68.0)	29 (65.9)	4 (30.8)	18 (58.3)	8 (57.1)	0	1 (33.3)	105 (54.4)
60대 이상	2 (8.3)	2 (5.4)	1 (4.0)	6 (13.6)	4 (30.8)	1 (3.1)	1 (7.1)	1 (100.0)	1 (33.3)	19 (9.8)
전체	24 (12.4)	37 (19.2)	25 (13.0)	44 (22.8)	13 (6.7)	32 (16.6)	14 (7.3)	1 (100.0)	3 (1.6)	193 (100.0)

** $\chi^2=60.483$, $df=24$, $p < .001$

시기별로 종편에 출연한 패널의 성별, 연령대, 직업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 분석한 결과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5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출연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 많이 출연해 차이를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젊은 연령층이 종편에 더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시기별로 종편에 출연한 패널의 직업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편 전체에서 국회의원이 24.7%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가 19.6%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시사평론가 16.0%, 교수와 언론인이 각각 11.9%를 차지했다. 이밖에 정치인 8.8%, 전문가 5.7%, 공무원 1.5% 순이었다.

정부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영향력이 있는 상위 패널 97명(연결 중심성

4 이상)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이 2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사평론가 18.6%, 변호사 16.5% 순이었다. 언론인과 교수는 각각 13.4%, 12.4%를 차지했고, 정치인이 5.2%로 뒤를 이었다. 종편이 정치적 이슈를 주로 다루기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국회의원을 선호한 것으로 짐작된다. 전문성이 담보된 변호사는 종편에서 선호하는 패널로 드러났고, 정치학을 전공하거나 정치 관련 연구소를 운영하는 시사평론가도 종편에 잦은 빈도로 출연했다. 전문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교수와 언론인은 국회의원, 시사평론가, 변호사에 비해 종편의 패널 구성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영향력 있는 패널(연결 중심성 8 이상)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과 변호사가 각각 22.8%와 19.2%로 많았고, 다음으로 시사평론가, 언론인, 교수, 정치인이 비슷하게 많았다. 형사, 상담, 여론조사 같은 세부 분야별 전문가는 7.3%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4-32] 시기별 영향력 상위 패널 성별·연령대·직업 교차분석 결과

성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합 계
남성	68(91.8)	82(85.4)	171(88.6)
여성	8(8.2)	14(14.6)	22(11.4)
전체	97(50.3)	98(49.7)	193(100.0)
$\chi^2=1.918, df=1$			
연령*			
30대	5(5.2)	2(2.1)	7(3.8)
40대	24(24.7)	38(39.6)	52(32.1)
50대	55(56.7)	50(52.1)	105(54.4)
60대	13(13.4)	6(6.3)	19(9.8)
전체	97(50.3)	98(49.7)	193(100.0)
$*\chi^2=7.259, df=3, p<.1$			
직업			
교수	12(12.4)	12(12.5)	24(12.4)
변호사	16(16.5)	21(21.9)	37(19.2)
언론인	13(13.4)	12(12.5)	25(13.0)
국회의원	25(25.8)	19(19.8)	44(22.8)
정치인	5(5.2)	8(8.3)	13(6.7)
시사평론가	18(18.6)	14(14.6)	32(16.6)
전문가	5(6.2)	9(9.4)	14(7.3)
공무원	2(2.1)	1(1.0)	3(1.6)
기타	1(1.0)	0	1(0.5)
전체	97(50.3)	98(49.7)	193(100.0)
$\chi^2=.850, df=2$			

영향력 상위 패널의 직업을 비교해본 결과, 채널별로 영향력이 있는 패널의 직업에 차이가 있었다. 국회의원은 JTBC에 가장 많이 출연했는데, 밤샘 토론이나 썰전 같은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로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짐작된다. 시사평론가는 TV조선과 MBN에 상대적으로 많이 출연했다. 교수는 JTBC를 제외한 세 개의 채널에서 상위에 자리매김했다. 채널A는 동아일보 기자를 많이 출연시켜 다른 채널보다 언론인 비중이 컸다. 변호사는 종편에서 선호하는 직업군인데, MBN에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했다.

[표 4-33] 채널별 영향력 상위 패널 직업 분석 결과

직업	TV조선	MBN	채널A	JTBC	합 계
국회의원	4(20.0)	3(15.0)	4(18.2)	13(65.0)	24(29.3)
시사평론가	6(30.0)	5(25.0)	2(9.1)	0	13(15.9)
변호사	2(10.0)	5(25.0)	2(9.1)	1(5.0)	10(12.2)
교수	4(20.0)	3(15.0)	4(18.2)	2(10.0)	13(15.9)
언론인	4(20.0)	3(15.0)	6(27.3)	2(10.0)	15(18.3)
정치인	0	1(5.0)	2(9.1)	1(5.0)	4(4.9)
전문가	0	0	2(9.1)	1(5.0)	3(3.7)
전 체	20	20	20	20	82(100.0)

$\chi^2 = 30.522$, $df = 18$, $p < .05$

5) 종편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요약 및 함의

종편의 분석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 458명을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정부별로 영향력이 있는 패널에 차이가 있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사평론가가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수와 변호사가 상위에 자리매김했다. 다만, 정부별로 자주 출연한 패널의 직업에는 차이가 없었다. 변호사는 전문성을 갖춘, 종편에서 선호하는 직업군이다. 시사 프로그램이 정치 현안을 다루다 보니 여야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출연도 잦았다. 국회의원과 변호사를 제외하고 종편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선호하는 패널은 시사평론가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정치 현안과 관련된 모두 이슈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종편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정 패널이 한 채널에 편중적으로 등장하거나 특정 패널이 여러 채널에 중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방송의 다양성 측면에서 주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편 패널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채널별로 선호하는 패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패널이 편중되게 출연함으로써 개인의 의견이 반복해서 전달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특정 패널이 종편의 여러 채널에 중복해서 출연하는 경향도 볼 수 있었다. 출연 빈도가 높지 않더라도 여러 채널에 중복해서 출연하는 것도 비슷한 의견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한 채널에 편중되게 출연하거나 중복출연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의 역할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패널은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여러 공중의 입장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의사가 의견을 개진하거나 범죄 사건에 대해 형사 출신의 전문가 패널이 의견을 개진하고,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가 판세를 분석하는 것은 패널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다. 그러나, 종편에 자주 출연하는 패널 중에는 본인의 전문 분야와 관련성이 낮은 주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패널도 적지 않다. 프로그램 신뢰도나 질을 담보하려면, 패널을 선정할 때 이슈와 적합한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맞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텔레비전에 누가, 얼마나 자주 출연했는지는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Shoemaker & Reese, 1996). 여성과 남성 중에서 남성의 출연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종편 출연자의 2명 중 한 명은 50대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패널의 연령대가 낮아졌다. 남성은 60대 이상이라도 종편에 출연했지만, 여성은 종편에 출연 기회가 적었다. 종편에 출연한 여성의 경우 40대 이하의 젊은 층을 선호했고, 변호사 직군이 많았다. 50대 이상 여성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출연했다.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50대 이상의 여성이 종편에 출연할 기회가 적었다. 연령대와 직업을 같이 보면, 3, 40대 변호사나 5, 60대 국회의원의 경우 출연 확률이 높았다. 남성은 60대 패널도 적지 않았는데, 여성에게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패널은 현안을 분석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패널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전문성을 우선 고려해서 패널을 선택한다면 출연하는 패널의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를 보면, 종편의 남성 편중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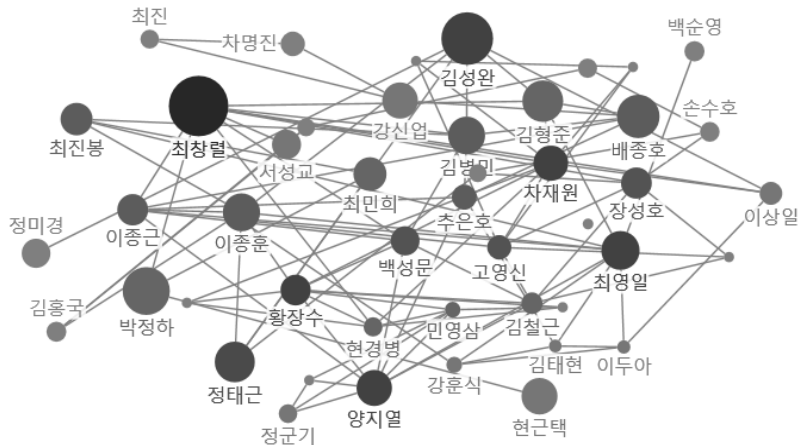
4. 보도 채널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이 연구는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와 YTN 뉴스에 출연한 패널을 코딩하고, 이들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1) 보도 채널 출연패널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보도 채널에 출연한 패널 전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134개의 노드가 있고, 185의 연결을 나타냈다. 그림을 보면, 최창렬, 김성완, 최영일, 양지열, 정태근의 노드 크기가 크고, 노드 색상이 보라색에 가까워 이들이 네트워크에서 중심인물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박정하, 배종호, 김형준, 현근택, 이종훈, 이종근, 강신업 등이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다. 이들의 연결 관계를 보면, 최창렬은 김병민, 차재원, 이상일, 김형준, 이종근, 박정하와 연결되었고, 김성완은 김병민, 김형준, 이종훈, 정태근과 연결되었다.

[그림 4-30] 보도 채널 패널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⁴⁴⁾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44) 연결 중심성 값이 4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 중심성 값이 크고,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보도 채널에 출연한 패널의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값을 보면, 최창렬의 연결 중심성이 13으로 가장 크고, 매개 중심성 1324.195로 보도 채널에서 영향력이 제일 큰 패널이었다. 다음으로 시사평론가인 김성완과 최영일이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다. 변호사로는 양지열이 연결 중심성 10, 매개 중심성 445.379로 영향력이 컸고, 차재원, 황장수, 정태근, 장성호, 백성문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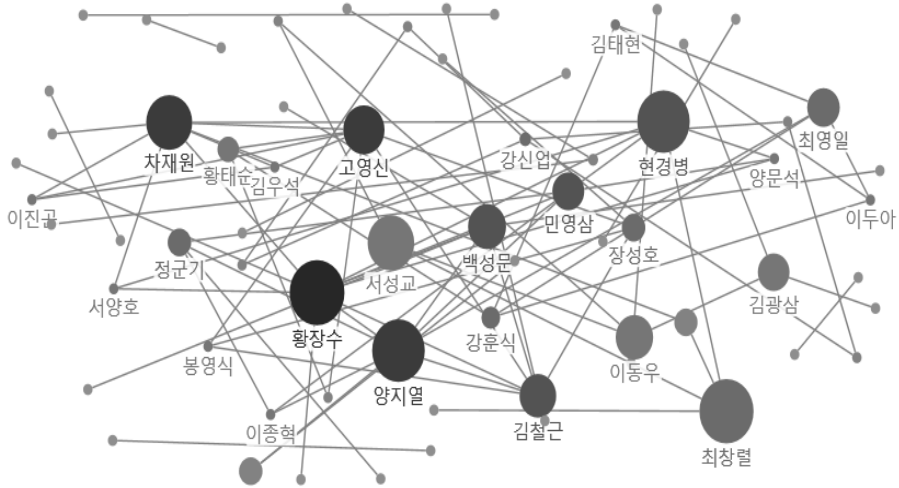
[표 4-34] 보도 채널 패널 영향력 상위 30인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최창렬	13	1324.195	0.048	추은호	7	198.487	0.026
김성완	10	989.075	0.022	박정하	6	811.866	0.010
최영일	10	522.478	0.033	김형준	6	602.643	0.027
양지열	10	445.379	0.045	최민희	6	383.163	0.008
차재원	10	428.412	0.039	김철근	6	137.711	0.031
황장수	10	312.547	0.046	현경병	6	99.602	0.032
정태근	9	574.741	0.013	민영삼	6	54.509	0.027
장성호	8	325.642	0.023	현근택	4	458.000	0.002
백성문	8	279.664	0.041	강신업	4	450.000	0.005
고영신	8	186.044	0.022	서성교	4	284.898	0.010
배종호	7	660.938	0.022	이상일	4	158.378	0.020
이중훈	7	494.484	0.029	정군기	4	94.000	0.014
김병민	7	489.842	0.030	강훈식	4	56.878	0.010
최진봉	7	355.045	0.018	이두아	4	27.804	0.012
이종근	7	326.845	0.039	김태현	4	23.050	0.013

2) 시기별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 vs 문재인 정부

보도 채널에 출연한 패널을 시기를 구분해 네트워크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67명이 출연했고, 이들은 네트워크에서 84번의 연결을 나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 황장수의 노드 색이 파란색이고, 노드 크기가 가장 커 영향력이 큰 패널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차재원, 양지열, 현경병, 고영신이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최창렬, 서성교, 백성문, 민영삼, 이동우, 최영일, 김광삼의 영향력이 영향력 상대적으로 컸다. 이들의 연결 관계를 보면, 황장수는 현경병, 차재원, 양지열, 백성문, 민영삼과 연결되었고, 양지열은 황장수, 백성문, 최영일과 연결되었다.

[그림 4-31] 박근혜 정부 보도채널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⁴⁵⁾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박근혜 정부에서 출연한 패널 중에서 연결 중심성 3 이상인 패널을 보면, 황장수의 연결 중심성이 10, 매개 중심성 245.067로 영향력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양지열, 차재원, 고영신의 연결 중심성이 8로 같았고, 매개 중심성은 각각 225.650, 224.033, 135.467이었다. 이어서 현경병, 백성문, 김철근, 민영삼이 연결 중심성 6으로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다. 연결 중심성 4인 패널은 최창렬, 최영일, 장성호, 정군기, 강훈식, 강신업 등이었다.

[표 4-35] 박근혜 정부 보도채널 출연패널 상위 20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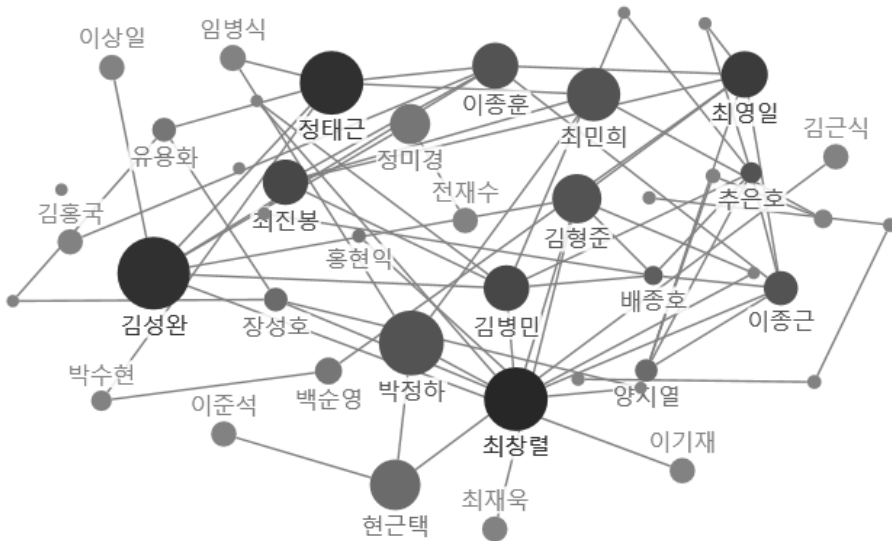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황장수	10	245.067	0.096	장성호	4	39.000	0.028
양지열	8	225.650	0.072	정군기	4	39.000	0.034
차재원	8	224.033	0.056	강훈식	4	22.367	0.008
고영신	8	135.467	0.050	강신업	4	4.000	0.000
현경병	6	224.033	0.063	서성교	3	175.000	0.003

45) 연결 중심성 값이 3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 중심성 값이 크고,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백성문	6	114.000	0.050	이동우	3	111.000	0.001
김철근	6	105.567	0.062	김광삼	3	77.000	0.000
민영삼	6	78.583	0.066	황태순	3	31.500	0.014
최창렬	4	238.917	0.016	김태현	3	0.000	0.006
최영일	4	81.867	0.018	추은호	2	39.000	0.014

문재인 정부에서 보도 채널에 등장한 패널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96명이 출연했고, 이들은 108의 연결을 나타냈다. 노드의 크기가 크고 보라색에 가까운 김성완, 정태근, 최창렬, 최영일이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박정하, 최민희, 최진봉, 김형준, 이종훈, 김병민, 현근택의 영향력이 컸다. 이들의 연결 관계를 보면, 김성완은 정태근, 김형준, 김병민, 이종훈, 정미경과 연결되었고, 최창렬은 박정하, 김형준, 김병민, 이종근과 연결되었다. 최진봉은 최민희, 이종훈, 최영일과 연결 관계를 나타냈다.

[그림 4-32] 문재인 정부 보도 채널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⁴⁶⁾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46) 연결 중심성 값이 2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 중심성 값이 크고,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문재인 정부에서 보도 채널에 출연한 패널의 네트워크 값을 보면, 최창렬이 연결 중심성 10, 매개 중심성 458.700으로 보도 채널 패널 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김성완의 연결 중심성이 9였고, 매개 중심성은 600.683으로 가장 컸다. 최영일, 김병민, 최진봉이 영향력 상위 그룹을 형성했고, 국회의원인 박정하, 김형준, 최민희의 영향력이 컸다.

[표 4-36] 문재인 정부 보도 채널 출연패널 상위 30인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최창렬	10	458.700	0.056	양지열	4	43.667	0.034
김성완	9	600.683	0.047	정미경	3	173.000	0.010
정태근	9	457.350	0.035	백순영	3	69.083	0.014
최영일	8	236.617	0.055	유용화	3	50.408	0.012
김병민	7	228.225	0.057	홍현익	3	5.000	0.000
최진봉	7	224.650	0.044	이준석	2	59.000	0.001
박정하	6	476.917	0.021	김근식	2	59.000	0.001
최민희	6	318.158	0.023	임병식	2	62.975	0.011
김형준	6	267.533	0.047	최재욱	2	59.000	0.010
이종훈	6	231.625	0.050	전재수	2	59.000	0.002
이종근	6	119.767	0.057	김홍국	2	59.000	0.010
추은호	6	35.700	0.047	이상일	2	59.000	0.010
배종호	5	26.250	0.045	이기재	2	59.000	0.010
현근택	4	283.000	0.005	박수현	2	32.867	0.010
장성호	4	49.008	0.018	김해선	2	8.583	0.008

보도 채널에 등장한 영향력 상위 채널의 직업을 시기별로 교차 분석했다. 직업을 보면 교수가 30.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회의원과 시사평론가가 15.9%로 같았다. 이어서 변호사가 14.3%, 정치인 11.1% 순이었다. 정부별로 영향력 상위 패널의 직업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37] 시기별 영향력 상위 패널의 직업 교차분석 결과

직업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합계
국회의원	3(32.1)	7(28.6)	10(15.9)
시사평론가	5(17.9)	5(14.3)	10(15.9)
변호사	5(17.9)	4(11.4)	9(14.3)
교수	9(32.1)	10(28.6)	19(30.2)
언론인	3(10.7)	1(2.9)	4(6.3)
정치인	2(7.1)	5(14.3)	7(11.1)
전문가	1(3.6)	2(5.7)	3(4.8)
공무원	-	1(2.9)	1(1.6)
전 체	28(44.4)	35(55.6)	63(100.0)

시기별로 패널의 직업을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위 그래프)에서 교수 중에서는 최창렬, 차재원, 서성교, 고영신, 김철근 등의 영향력이 컸다(좌측 파란색). 변호사 중에서는 양지열과 백성문, 김광삼이, 시사평론가 중에서는 최영일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중간 초록색). 정당인/ 정치인 중에서는 황장수와 민영삼의 영향력이 컸다(우측 주황색). 47) 국회의원 중에서는 현경병과 이두아가 패널로 자주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운데 연두색). 직업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영향력 상위에 교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변호사와 시사평론가 직업군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 보도 채널에 출연한 패널에 대한 직업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교수 직업군과 국회의원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교수 중에서는 최창렬과 최진봉, 김병민⁴⁸⁾이(좌측 파란색), 국회의원 중에서는 정태근, 박정하, 최민희, 김형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우측 하늘색). 시사평론가로는 김성완, 최영일, 이종훈이(붉은색), 정치인 중에서는 현근택, 이준석, 김근식⁴⁹⁾이(초록색), 변호사로는 양지열이(연두색)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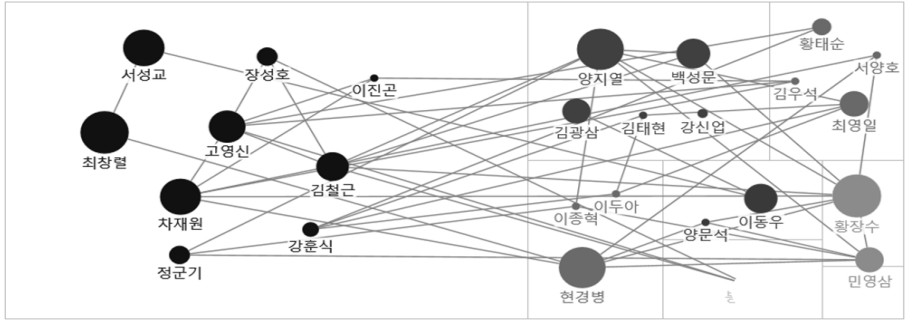
47) 황장수는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으로 기업인, 정치인으로 표기돼 정치인으로 분류했다. 민영삼은 사회통합전략연구원 원장으로 정당 활동과 특임교수를 역임했는데, 네이버 프로필에 정당인으로 분류돼 역시 정치인으로 봤다.

48) 김병민은 경희대 객원교수의 직책으로 출연해 교수로 분류했다.

49) 김근식은 교수이면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했으나, 이 시기에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맡아 정치인으로 분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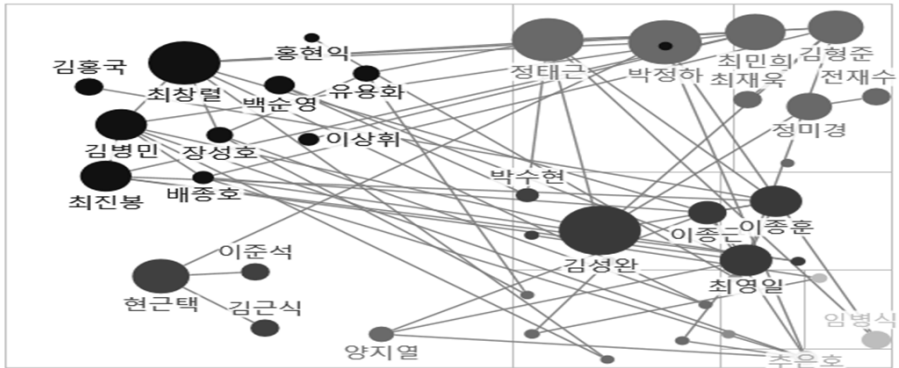
[그림 4-33] 정부별 패널 직업 네트워크 분석 결과
 (위: 박근혜 정부, 아래: 문재인 정부)

- 곤색: 교수
- 초록색: 변호사
- 하늘색: 시사평론가
- 붉은색: 교수
- 주황색: 정치인
- 연두색: 국회의원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 곤색: 교수
- 초록색: 정치인
- 하늘색:
- 붉은색: 시사평론가
- 연두색: 변호사
- 노란색: 공무원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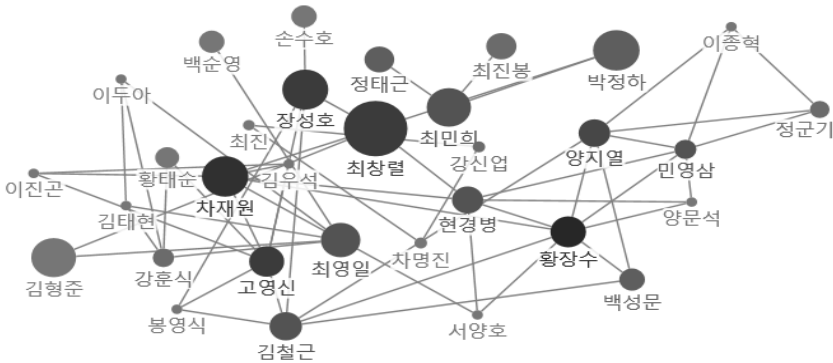
3) 보도 채널별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연합뉴스TV와 YTN에 출연한 패널이 누구인지,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네트워크 분석했다.

(1)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에 분석 기간에 92명의 패널이 출연했고 이들은 네트워크에서 116의 연결을 나타냈다. 그래프를 보면, 최창렬의 노드 색상이 파란색에 가깝고, 노드의 크기가 커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차재원, 장성호, 황장수, 고영신이 영향력 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이밖에 박정하, 김형준, 김철근, 최진봉, 정태근, 백성문의 영향력이 컸다.

[그림 4-34] 연합뉴스TV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⁵⁰⁾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연합뉴스TV에 출연한 패널 중에서 영향력 상위 패널을 보면, 황장수의 연결 중심성이 10으로 가장 컸고, 매개 중심성은 최창렬이 898.755로 커 이들이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차재원, 장성호, 최민희, 최영일, 박정하, 김형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50) 연결 중심성 값이 3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 중심성 값이 크고,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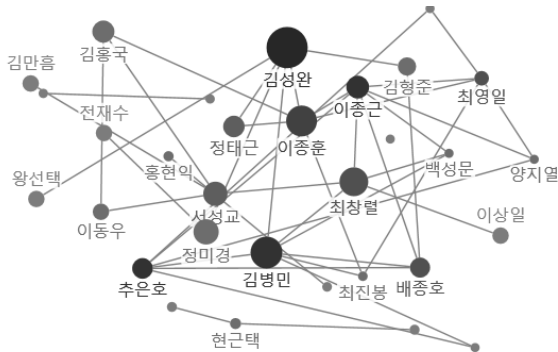
[표 4-38] 연합뉴스TV 영향력 상위 20인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황장수	10	262.911	0.084	민영삼	6	85.110	0.055
차재원	9	466.676	0.068	박정하	5	467.998	0.010
최창렬	8	898.755	0.042	정태근	5	176.536	0.003
장성호	8	457.169	0.042	백성문	5	123.000	0.040
고영신	8	254.175	0.052	최진봉	4	183.000	0.001
양지열	7	202.917	0.056	정군기	4	62.000	0.027
최민희	6	423.252	0.003	강신업	4	10.000	0.000
최영일	6	329.783	0.003	김형준	3	434.200	0.009
김철근	6	215.694	0.057	백순영	3	123.000	0.001
현경병	6	195.744	0.061	황태순	3	104.800	0.013

(2) YTN

YTN에 출연한 패널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66개의 노드가 있고, 네트워크에서 72의 연결을 나타냈다. 그래프를 보면, 김성완의 노드 크기가 가장 커 매개 중심성 값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연결 중심성 값이 큰 것을 의미하는데, 김병민, 최창렬, 이종훈의 색상이 짙은 파란색에 가까워 이들이 영향력 상위 그룹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서성교, 정미경, 김홍국, 김만흠, 전재수, 김형준, 이상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림 4-35] YTN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⁵¹⁾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51) 연결 중심성 값이 2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 중심성 값이 크고,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YTN에 출연한 패널 중에서 영향력 상위 20인을 보면 <표 4-52>와 같다. 김성완이 연결 중심성 8, 매개 중심성 281.083으로 영향력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김병민, 이종근, 추은호가 연결 중심성 7로 같았다. 김병민, 이종훈, 최창렬은 매개 중심성 값이 130~165사이로 영향력 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표 4-39] YTN 영향력 상위 20인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김성완	8	281.083	0.054	경미경	3	98.000	0.013
김병민	7	163.417	0.083	김홍국	3	71.750	0.020
이종근	7	77.000	0.092	김형준	3	45.000	0.027
추은호	7	60.917	0.080	이동우	3	34.000	0.009
이종훈	6	152.833	0.065	현근택	3	8.000	0.000
최창렬	5	130.583	0.055	홍현익	3	5.000	0.000
배종호	5	56.583	0.064	최진봉	3	2.667	0.045
최영일	5	24.000	0.061	양지열	3	0.917	0.050
서성교	4	89.083	0.019	백성문	3	0.250	0.050
정태근	4	67.000	0.028	김만홍 왕선택 이상일 전재수	2	34.000	0.004
							0.012
							0.013
							0.003

4) 패널 구성 현황 및 영향력 상위 패널 분석 결과

(1) 채널별 영향력 상위 패널

보도 채널에 출연한 패널 중에서 영향력 상위 패널을 살펴본 결과, 보도 채널 전체를 봤을 때 최창렬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영향력 상위를 차지한 패널은 양지열, 최창렬, 최영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상당 기간 선호하는 패널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채널별로 보면, 연합뉴스TV에서는 황장수, 차재원, 최창렬, 장성호, 고영신이, YTN에서는 김성완, 김병민, 이종근, 추은호, 이종훈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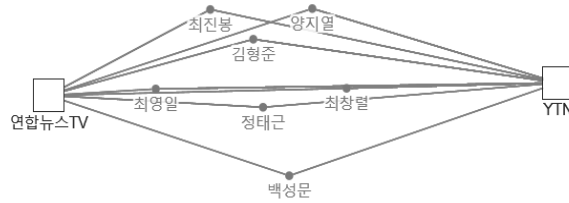
[표 4-40] 보도 채널 패널 영향력 상위 20인

패널 순위	보도 채널 전체 (305명)	시기		채널	
		박근혜 정부 (96명)	문재인 정부 (247명)	연합뉴스TV (41명)	YTN (282명)
1	최창렬	황장수	최창렬	황장수	김성완
2	김성완	양지열	김성완	차재원	김병민
3	최영일	차재원	정태근	최창렬	이종근
4	양지열	고영신	최영일	장성호	추은호
5	차재원	현경병	김병민	고영신	이종훈
6	황장수	백성문	최진봉	양지열	최창렬
7	정태근	김철근	박정하	최민희	배종호
8	장성호	민영삼	최민희	최영일	최영일
9	백성문	최창렬	김형준	김철근	서성교
10	고영신	최영일	이종훈	현경병	정태근
11	배종호	장성호	이종근	민영삼	정미경
12	이종훈	정군기	추은호	박정하	김홍국
13	김병민	강훈식	배종호	정태근	김형준
14	최진봉	강신업	현근택	백성문	이동우
15	이종근	서성교	장성호	최진봉	현근택
16	추은호	이동우	양지열	정군기	홍현익
17	박정하	김광삼	정미경	강신업	최진봉
18	김형준	황태순	백순영	김형준	양지열
19	최민희	김태현	유용화	백순영	백성문
20	김철근	추은호	홍현익	황태순	김만홍 왕선택 이상일 전재수

(2) 보도 채널 출연 패널 중복 네트워크 분석 결과

영향력 상위 패널 중에서 연합뉴스TV와 YTN에 중복해서 출연한 패널은 최창렬, 양지열, 최영일, 정태근, 백성문, 최진봉, 김형준이다. 이들의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은 각각 2와 0.143으로 나타났다.

[그림 4-36] 보도 채널 중복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표 4-41] 보도 채널에 중복출연한 패널의 연결 중심성·매개 중심성·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최영일	2	0.125	0.063
최민희	2	0.125	0.063
박정하	2	0.125	0.063
김형준	2	0.125	0.063
최진봉	2	0.125	0.063
정태근	2	0.125	0.063
이상휘	2	0.125	0.063
김성완	2	0.125	0.063

(3) 영향력 상위 채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정치 성향 교차분석

보도 채널에 출연한 패널 중에서 영향력이 큰 패널을 대상으로 성, 연령, 직업, 정치 성향을 분석하고, 채널별로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했다. 출연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94.7%로 10명 중 9명이 남성이었다. 패널의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39.5%로 10명 중 약 4명이 50대였다.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32.9%로 많았고, 40대가 27.6% 순이었다. 직업을 보면, 국회의원과 교수가 21.1%로 똑같았고, 다음으로 변호사, 시사평론가, 정치인이 각각 10.5%로 같았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현안을 다루면서 이슈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을 패널로 부르기에 국회의원이 많이 등장한 것으로 짐작된다. 교수도 전문성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종편에서 선호하는 패널 중 하나이다. 종편, 라디오 채널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는 상위를 차지했고, 다른 매체에 비해 전문가의 출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역시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를 출연시킨 것으로 여겨지는데, 보도 채널에 출연한 전문가는 여론조사 전문가, 연구위원, 연구소 소장, 심리학 박사 등 다양했다. 국회의원 패널의 경우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정치 성향을 분석했는데, 보수 성향의 의원이 68.8%로 진보 성향보다 더 많았다.

[표 4-42] 보도 채널 영향력 상위 패널 성별·연령대·직업·정치 성향 빈도분석

성별	빈도(%)
남성	72(94.7)
여성	4(5.3)
전체	77(100.0)
연령대	
30대	0
40대	21(27.6)
50대	30(39.5)
60대 이상	25(32.9)
전체	76(100.0)
직업	
교수	16(21.1)
변호사	8(10.5)
언론인	7(9.2)
국회의원	16(21.1)
정치인	8(10.5)
공무원	1(1.3)
시사평론가	8(10.5)
전문가	7(9.2)
전체	76(100.0)
정치 성향	
보수	11(68.8)
진보	5(31.3)
전체	16(100.0)

채널별로 패널의 성별, 연령대, 직업, 정치 성향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했다. 채널별로 출연한 패널의 성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합뉴스TV에 남성이 92.1% 출연했고, YTN에도 97.4%로 비슷하게 남성 출연자가 많았다. 채널별로 패널의 연령대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60대 이상은 연합뉴스TV에 많았고, 50대는 YTN에 많이 출연했다. 채널별로 출연한 패널의 직업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 분석한 결과, 연합뉴스TV에는 국회의원, 교수, 시사평론가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출연했다. 이에 비해 YTN에는 언론인, 정치인,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출연했다. YTN에 언론인이 많이 출연한 이유는 자사 기자가 패널로 출연해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패널로 출연한 국회의원의 정치 성향을 비교해보면, 연합뉴스에 보수 성향의 의원이 상대적으로 더 출연했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43] 채널별 영향력 상위 패널 성별·연령대·직업·정치 성향 교차분석 결과

성별	연합뉴스TV	YTN	합 계
남성	35(92.1)	37(97.4)	72(94.7)
여성	3(7.9)	1(2.6)	4(5.3)
전체	38(50.0)	38(50.0)	76(100.0)
$\chi^2=1.056, df=1$			
연령			
30대	-	-	-
40대	10(26.3)	11(28.9)	21(27.6)
50대	12(31.6)	18(47.4)	30(39.5)
60대 이상	16(42.1)	9(23.7)	25(32.9)
전체	38(50.0)	38(50.0)	76(100.0)
$\chi^2=3.208, df=2$			
직업			
교수	10(26.3)	6(15.8)	16(21.1)
변호사	7(18.4)	6(15.8)	13(17.1)
언론인	2(5.3)	5(13.2)	7(9.2)
국회의원	9(23.7)	7(18.4)	16(21.1)
정치인	2(5.3)	6(15.8)	8(10.5)
공무원	-	1(2.6)	1(1.3)
시사평론가	5(13.2)	3(7.9)	8(10.5)
전문가	3(7.9)	4(10.5)	7(9.2)
전체	38(50.0)	38(50.0)	76(100.0)
$\chi^2=6.255, df=7$			
정치 성향			
보수	7(77.8)	4(57.1)	11(68.8)
진보	2(22.2)	3(42.9)	5(31.3)
전체	9(56.3)	7(43.6)	16(100.0)
$\chi^2=.780, df=1$			

성별, 연령대별로 출연한 패널의 직업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했다. 여성은 국회의원 출연자가 75.0%였고, 변호사가 25.1%로 많았다. 남성은 교수가 22.2%로 가장 많았고, 국회의원 19.1%, 변호사 16.7% 순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는 변호사가 많았다. 50대 이상일 수록 교수와 국회의원이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표 4-44] 성별·연령대별 직업 교차분석 결과

성별	교수	변호사	언론인	국회의원	정치인	공무원	시사 평론가	전문 가	합 계
남성	16 (22.2)	12 (16.7)	7 (9.7)	13 (19.1)	8 (11.1)	1 (1.4)	8 (11.1)	7 (9.7)	72 (94.7)
여성	-	1 (25.0)	-	3 (75.0)	-	-	-	-	4 (5.3)
전체	16 (21.1)	13 (17.1)	7 (9.2)	16 (21.1)	8 (10.5)	1 (1.3)	8 (10.5)	7 (9.2)	76 (100.0)
$\chi^2=8.602$ df=7									
연령*									
30대	-	-	-	-	-	-	-	-	-
40대	2 (9.5)	8 (38.1)	3 (14.3)	1 (4.8)	2 (9.5)	-	3 (14.3)	2 (9.5)	21 (27.6)
50대	7 (23.3)	3 (10.0)	4 (13.3)	7 (23.3)	5 (16.7)	-	2 (6.7)	2 (6.7)	30 (39.5)
60대 이상	7 (28.0)	2 (8.0)	-	8 (32.0)	1 (4.0)	1 (4.0)	3 (12.0)	3 (12.0)	25 (32.9)
전체	16 (21.1)	13 (17.1)	7 (9.2)	16 (21.1)	8 (10.5)	1 (1.3)	8 (10.5)	7 (9.2)	76 (100.0)
* $\chi^2=, 22.396$ df=14, p<.1									

5) 보도 채널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요약 및 함의

보도 채널인 연합뉴스TV와 YTN에 출연한 패널을 대상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도채널 영향력 상위 패널의 직업군을 살펴보았을 때, 최창렬, 차재원, 최진봉, 김형준, 장성호 등 교수 패널이 자주 노출되면서 그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창렬은 박근혜 정부기와 문재인 정부기에 연합뉴스TV와 YTN 채널

모두에 빈도 높게 출연했다. 차재원과 장성호는 박근혜 정부기에 연합뉴스TV에, 김병민은 문재인 정부기에 YTN에 자주 출연했다. 또 최진봉과 김형준은 문재인 정부기에 연합뉴스TV와 YTN 채널에 모두에 빈도 높게 출연하며 연결매개위세 중심성이 높은 패널로 집계되었다. 특히 최진봉은 종편의 패널로도 높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둘째, 김성완, 최영일, 황장수, 민영삼, 황태순 등 시사평론가 패널과 양지열, 백성문 등의 변호사 패널의 영향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영일은 문재인 정부기에 연합뉴스TV와 YTN 채널 모두에, 김성완은 YTN 채널에 빈도 높게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황장수, 민영삼, 황태순은 박근혜 정부기에 연합뉴스TV에만 빈도 높게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직군의 양지열은 박근혜 · 문재인 정부기에 연합뉴스TV와 YTN 채널 모두에 빈도 높게 출연했고, 백성문은 박근혜 정부기에만 보도채널 2곳에서 자주 출연했다.

앞서 언급한 영향력 상위 패널 중 김성완, 최영일, 양지열은 지상파 방송의 상위 영향력 패널로도 언급되었던 인물이다. 양지열은 2개 정부기에 공히 활약이 높았다면 김성완과 최영일은 문재인 정부기에 두드러지게 활동한 패널로서, 김성완과 최영일의 경우에는 보도채널에 활발히 중복출연함으로써 연결매개위세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국회의원 직군의 최민희, 정태근, 정미경, 전재수 등도 보도채널의 상위 패널로서 빈도 높게 출연했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기에 보도채널에서 상위 패널 20인에 오른 전·현직 국회의원들이다. 흥미롭게도 박근혜 정부기에 영향력 상위 패널 20인에 국회의원 직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보도채널의 경우, 박근혜 정부기에 국회의원 패널의 출연 빈도가 높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보도채널의 상위 패널에 오른 국회의원의 정치 성향을 살펴보면, 보수(77.8%)가 진보(22.2%) 보다 자주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연합뉴스TV에 자주 출연한 진보 진영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연결매개위세 중심성 수치가 매우 높았다.

넷째, 정치와 무관한 독립적 직군으로 소개되는 교수, 시사평론가, 변호사, 전문가 등의 비가시화된 정파성 직군(57.9%)의 출연 빈도가 국회의원, 정치인 등의 가시화된 직군(31.6%)이 노출 비율보다 현저히 높았다.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연합뉴스TV는 비가시화된 정파성 직군(65.8%)이 가시화된 정파성 직군

(29%)보다 2배 이상 높았고, YTN도 비가시화된 정파성 직군(50%)이 가시화된 정파성 직군(34.2%)보다 절반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상파 TV와 유사한 양상으로서, 보도채널 또한 비가시화된 정파성 직군을 패널로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대로, 비가시화된 정파성 직군의 패널들은 대개 자신과 이해가 겹쳐 있는 관계의 정당 주장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의견과 해석을 내놓는다. 반면에 시청자들은 이들을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 직군 패널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비가시화된 정파성 직군의 패널이 출연할 때 방송사에서 정당, 소속, 정파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변호사, 교수, 연구소 관계자, 평론가 등의 타이틀만 간단히 노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사는 현안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 왜곡을 방지하고, 나아가 보도 채널이 시청자의 신뢰 받는 방송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패널의 여야 정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5. 라디오 출연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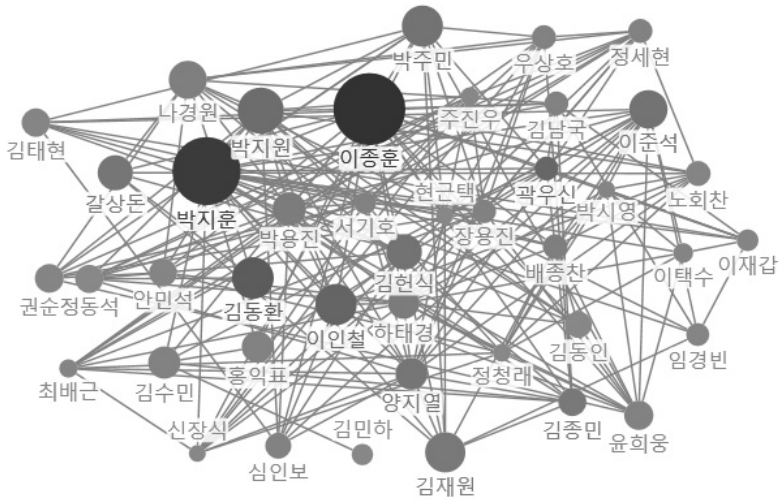
라디오에 출연한 패널에 대해 먼저 패널 전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했고, 다음으로 시기별로 어떤 패널이 영향력이 있는지 분석했다. 끝으로 채널별로 영향력이 큰 패널을 찾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했다. 영향력 상위 패널이 여러 라디오 채널에 중복출연하는지 네트워크 분석으로 알아봤다. 영향력 상위 패널의 속성을 내용분석으로 밝히고, 교차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1) 라디오 출연 패널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라디오 패널 전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모두 840명이 출연했고, 네트워크에서 3320의 연결을 나타냈다. <그림 4-37>을 보면, 이종훈과 박지훈의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라디오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패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김동환과 이인철의 영향력이 컸고, 박지원, 이준석, 박주민, 김재원, 나경원, 하태경, 김현식, 양지열이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그룹을

형성했다. 이밖에 곽우신, 배종찬, 노회찬, 윤희웅, 김종민, 김태현, 김수민, 권순정, 홍익표 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들의 연결 관계를 보면, 이종훈은 박지훈, 이인철, 박지원, 갈상돈, 박용진, 홍익표, 김재원과 연결되었고, 박지훈은 박지원, 이종훈, 이준석, 박주민, 이인철, 김재원, 김수민, 홍익표, 양지열과 연결되었다.

[그림 4-37] 라디오 패널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⁵²⁾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값을 기준으로 라디오에 출연한 패널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패널 40인을 나열했다. 홍익표의 연결 중심성이 152, 매개 중심성이 59267.778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이종훈, 박지훈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 중심성 50 이상인 그룹에는 김동환, 이인철, 곽우신, 박지원, 이준석, 김현식, 박주민이 포함됐다. 다음으로 김종민, 김재원, 박용진, 하태경, 나경원, 홍익표, 우상호, 김남국 같은 국회의원과 갈상돈, 양지열, 배종찬, 윤희웅, 임경빈, 최배근, 권순정, 김태현, 이택수, 박시영, 이재갑, 주진우가 영향력이 컸다.

52) 연결 중심성 값이 25 이상인 경우만 그래프에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 중심성 값이 크고,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표 4-45] 라디오 패널 영향력 상위 40인(연결 중심성 순)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홍인표	152	59267.778	0.014	우상호	34	4571.044	0.004
이종훈	135	50848.089	0.018	장용진	34	4403.914	0.005
박지훈	125	45480.209	0.018	김수민	33	9216.759	0.004
김동환	81	16150.072	0.006	심인보	33	5520.160	0.005
이인철	72	15768.377	0.009	김남국	33	4457.164	0.005
곽우신	67	4493.683	0.010	서기호	32	3596.055	0.004
박지원	60	20201.492	0.009	정세현	31	4575.153	0.003
이준석	52	13558.166	0.006	안민석	30	6542.967	0.004
김현식	52	11435.562	0.007	임경빈	30	4070.091	0.004
박주민	51	15729.618	0.007	최배근	30	2130.251	0.004
갈상돈	48	11140.153	0.004	권순정	29	7020.145	0.003
양지열	46	8930.138	0.007	김태현	29	6934.992	0.004
김종민	44	6610.179	0.007	이택수	29	2677.083	0.004
김재원	43	14968.152	0.007	박시영	29	1826.522	0.004
박용진	39	9863.660	0.006	이재갑	28	3532.993	0.004
하태경	39	8581.341	0.006	노회찬	27	5022.637	0.005
나경원	37	13288.809	0.004	김동석	26	6728.052	0.003
배종찬	37	4848.642	0.007	김동인	26	5929.076	0.004
홍익표	34	8607.357	0.004	주진우	26	2142.293	0.003
윤희웅	34	7312.137	0.006	정청래	26	1970.665	0.005

2) 시기별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 vs 문재인 정부

시기별로 라디오에 출연한 패널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먼저 박근혜 정부에서 출연한 패널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392명의 패널이 출연했고, 이들은 네트워크에서 1108의 연결을 나타냈다. <그림 4-38>을 보면, 홍인표의 노드가 파란색이고 노드의 크기가 가장 커서 영향력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김동환의 영향력이 컸다. 이밖에 갈상돈이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고, 김현식, 김재원, 김경진, 금태섭, 박주선, 최창렬, 김지은, 안민석, 정덕현, 금태섭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결 관계를 보면, 홍인표는 김동환, 김재원, 김경진, 안민석, 이재명, 이종훈, 이인철, 민병두, 노회찬과 연결되었고, 김동환은 홍인표, 갈상돈 외에 김민석, 김진태, 민병두, 남경필, 박주선 등 국회의원과 연결되었다.

[그림 4-38] 박근혜 정부 라디오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⁵³⁾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표 4-46>은 박근혜 정부에서 영향력이 있는 패널 상위 30인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홍익표가 연결 중심성 132, 매개 중심성 29909.563으로 영향력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김동환이 연결 중심성 81, 매개 중심성 11089.747로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고, 갈상돈의 연결 중심성이 48, 매개 중심성이 9708.093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김현식, 이종훈, 김지은, 이인철, 김재원, 안민석의 연결 중심성이 20 이상이고, 매개 중심성 값은 1,000~5,000 사이로 컸다. 홍익표의 경우 위세 중심성이 0.040으로 가장 컸고, 김동환은 0.030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표 4-46] 박근혜 정부 라디오 출연 패널 영향력 상위 30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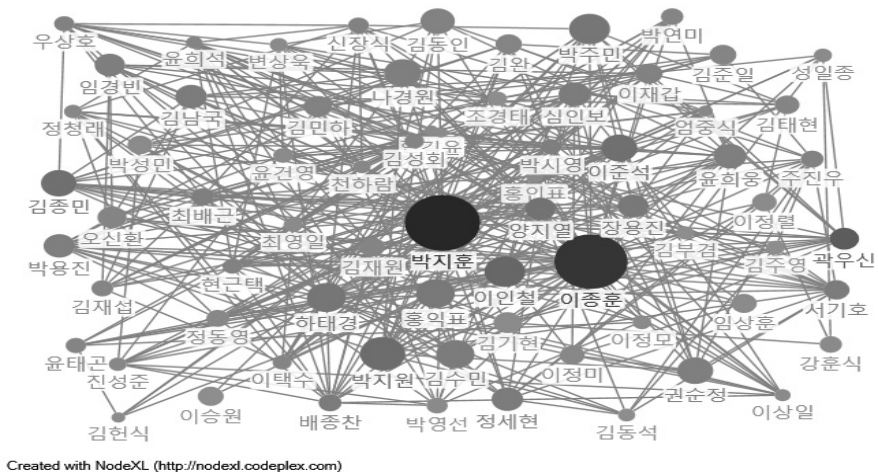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홍익표	132	29909.563	0.040	민병두	13	1983.944	0.007
김동환	81	11089.747	0.030	이원재	13	933.156	0.001
갈상돈	48	9708.093	0.013	이재명	12	3127.524	0.007
김현식	37	3578.608	0.013	이종근	12	1452.822	0.002
이종훈	33	3174.908	0.012	박주선	11	3197.299	0.007
김지은	24	2654.611	0.008	금태섭	11	3130.275	0.001

53) 연결 중심성 값이 8 이상인 경우만 그래프에 표시, 파란색일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연결 중심성 값이 큼

이인철	23	1213.776	0.009	김동석	11	1553.987	0.007
김재원	22	4734.463	0.007	정덕현	11	1309.310	0.001
안민석	20	3659.266	0.006	김관영	11	1022.464	0.003
김경진	17	3742.260	0.005	문병호	11	920.208	0.001
남경필	17	2077.683	0.009	홍문중	11	822.963	0.007
박지원	16	3309.243	0.007	김종대	10	2019.739	0.003
김성태	16	2404.662	0.003	김진태	10	1526.307	0.004
최창렬	14	3239.555	0.001	홍일표	10	1458.382	0.004
노회찬	14	1855.891	0.006	정우택	10	966.581	0.005

문재인 정부에서 라디오에 출연한 패널은 모두 552명이고, 이들은 네트워크에서 2158의 연결을 나타냈다. <그림 4-39>를 보면, 박지훈의 노드가 파란색이고 노드의 크기도 가장 커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훈도 영향력이 컸고, 다음으로 박지원, 이인철,곽우신의 연결 중심성이 컸고, 매개 중심성 값도 상대적으로 컸다. 이밖에 박주민, 김종민, 나경원, 하태경, 홍익표, 이준석 등 국회의원과 정치인이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다. 권순정, 이승원, 서기호, 윤희웅, 김민하, 임경빈, 주진우 등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컸다.

[그림 4-39] 문재인 정부 라디오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⁵⁴⁾



54) 연결 중심성 값이 15 이상인 경우만 그래프에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성 값이 큼.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문재인 정부에서 라디오에 출연한 패널의 영향력 상위 40인을 보면, 박지훈의 연결 중심성이 122, 매개 중심성이 27216.343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이종훈의 연결 중심성 104, 매개 중심성 25875.372로 다음으로 컸다. 연결 중심성 30 이상인 패널은 곽우신, 이인철, 박지원, 김종민, 이준석, 양지열, 하태경, 박주민이 차지했다. 이들의 매개 중심성은 3500~8000 사이로 컸다. 다음으로 나경원, 권순정, 윤희웅, 박시영, 이재갑, 김동인, 주진우의 영향력이 컸다.

[표 4-47] 문재인 정부 패널 영향력 상위 40인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박지훈	122	27216.343	0.027	나경원	29	6145.792	0.004
이종훈	104	25875.372	0.022	권순정	29	5683.201	0.004
곽우신	67	3603.582	0.017	윤희웅	29	4668.979	0.008
이인철	52	7565.625	0.008	박시영	29	1437.578	0.006
박지원	47	9352.438	0.009	이재갑	27	2876.001	0.007
김종민	44	5570.699	0.011	김동인	26	5149.772	0.006
이준석	43	5854.570	0.010	주진우	26	1902.576	0.004
양지열	40	3877.785	0.010	김민하	25	3277.025	0.002
하태경	39	6898.076	0.008	신장식	25	1492.953	0.006
박주민	38	7601.786	0.008	우상호	25	1370.320	0.005
홍익표	34	6759.414	0.006	현근택	25	1256.194	0.008
장용진	34	4081.933	0.008	김완	24	2751.297	0.005
김수민	33	6530.184	0.006	윤태근	24	1428.216	0.004
심인보	33	4371.950	0.006	이택수	24	1153.158	0.006
김남국	32	4274.574	0.008	오신환	23	3506.780	0.005
서기호	31	2676.762	0.006	김준일	23	2860.528	0.002
정세현	30	4222.827	0.004	박연미	23	1813.317	0.006
배종찬	30	1951.208	0.009	김재섭	23	1684.361	0.005
임경빈	30	3872.740	0.006	김재원	22	2557.200	0.007
최배근	30	1921.475	0.006	김태현	22	2389.365	0.003

시기별로 영향력 상위 패널의 직업을 분류하고, 교차분석을 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출연한 패널 간에 직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양 정부를 함께 보면, 국회의원이 전체 패널의 40.3%를 차지해 가장 많이 출연한 직업군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가가 12.7%였고, 언론인, 변호사, 교수, 시사평론가 순으로 출연 빈도가 높았다. 앞서 분석한 종편이나 지상파와 달리

라디오에는 이슈와 연관된 다양한 사람들이 출연해 전문가와 기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는 여론조사 전문가, 심리학 박사, 전직 형사 등이 포함됐고, 기타에는 각종 이익단체나 시민단체, 협회 등 종사자, 방송인, 이슈와 관련된 일반 시민 등이 포함된다.

[표 4-48] 시기별 영향력 상위 패널의 직업 교차분석 결과

직업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합계
국회의원	44(43.1)	51(38.1)	95(40.3)
시사평론가	6(5.9)	9(6.7)	15(6.4)
변호사	7(6.9)	11(8.2)	18(7.6)
교수	8(7.8)	10(7.5)	18(7.6)
언론인	8(7.8)	12(9.0)	20(8.5)
정치인	5(4.9)	8(6.0)	13(5.5)
전문가	10(9.8)	20(14.9)	30(12.7)
공무원	8(7.8)	6(4.5)	14(5.9)
기타	6(5.9)	7(5.2)	13(5.5)
전 체	102(43.2)	134(56.8)	238(100.0)

$\chi^2 = 3.134, df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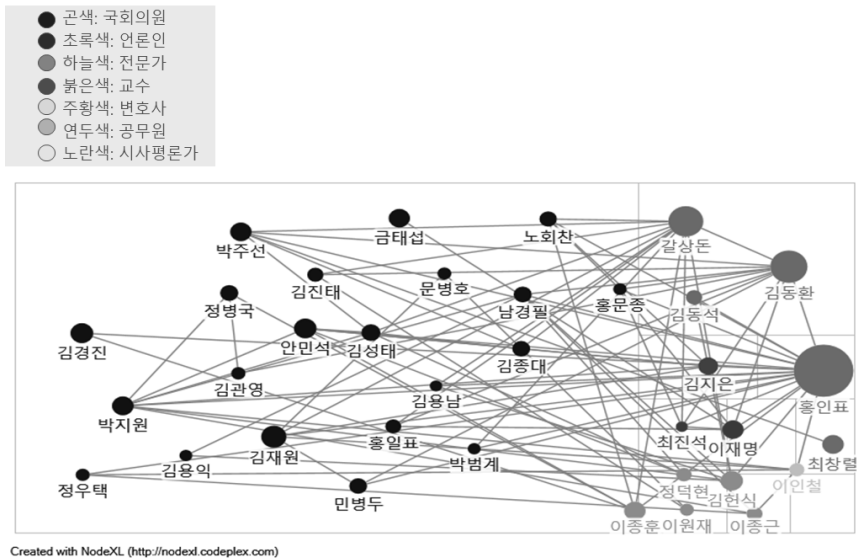
패널의 직업을 그룹 네트워크 분석을 해 직업별로 영향력이 있는 패널을 알아봤다. <그림 4-40>에서 위 그림은 박근혜 정부의 직업별 네트워크 분석 결과이고, 아래 그림은 문재인 정부의 직업별 네트워크 분석 결과이다. 위 그림에서 색상별로 다른 직업을 나타내는데, 파란색은 국회의원, 하늘색은 전문가, 초록색은 언론인, 연두색은 공무원, 자주색은 교수, 주황색은 변호사, 연노랑은 시사평론가를 의미한다.

그림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영향력 상위 그룹에 국회의원이 많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금태섭, 김재원, 김경진, 박지원, 박주선, 안민석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중에서는 김동환과 갈상돈의 영향력이 컸고, 언론인으로는 김지은, 교수는 홍인표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최창렬이 영향력이 있었다. 공무원으로는 이재명이, 변호사 중에서는 이인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아래 그림은 문재인 정부에서 출연한 패널들을 직업으로 그룹 분석을 한 결과이다. 파란색은 국회의원을, 하늘색은 전문가를, 초록색은 변호사를, 연두색은 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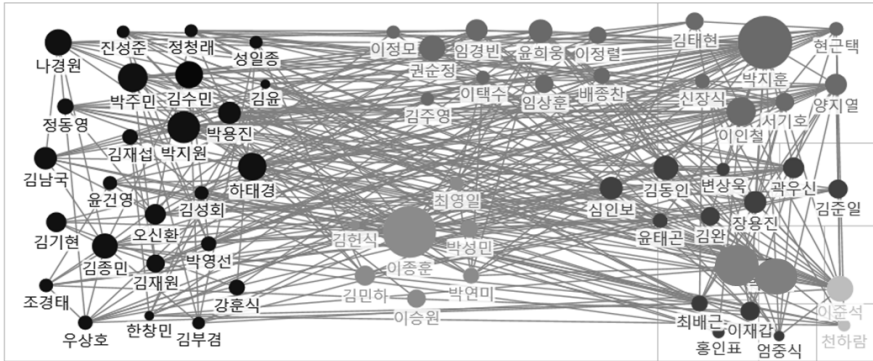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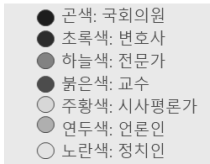
인을, 빨간색은 교수, 주황색은 시사평론가를, 분홍색은 정치인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회의원이 패널로 주목을 받았지만, 박근혜 정부와 달리 전문가의 영향력이 커졌고, 변호사도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박지원, 하태경, 박주민, 홍익표, 나경원, 김수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언론인들은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나타냈는데, 김동인, 장용진, 심인보, 곽우신, 김완이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다. 교수 중에서는 이재갑이 주목을 받았고, 공무원 정세현의 영향력이 컸다. 정치인 중에서는 이준석과 천하람이, 시사평론가 중에서는 이종훈, 김현식⁵⁵⁾의 영향력이 컸다.

[그림 4-40] 정부별 패널 직업 네트워크 분석 결과⁵⁶⁾



55) 김현식은 문화평론가인데 평론가라는 점에서 시사평론가로 분류했다.

56) 매개 중심성 값이 클수록 노드의 크기가 큼. (위: 박근혜 정부, 연결 중심성 10 이상만 표시, 아래: 문재인 정부 - 연결 중심성 15 이상만 표시)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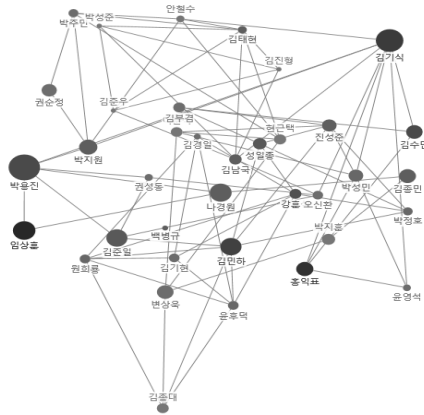
3) 라디오 채널별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채널별로 출연한 패널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했다. 다음으로 각 채널에서 시기별로 어떤 패널이 영향력이 있는지 그룹 분석을 했다. 끝으로 채널별로 영향력 상위 패널의 속성을 분류하고, 교차분석을 했다.

(1) KBS라디오

분석 기간에 KBS라디오에 모두 138명이 출연했고, 이들은 네트워크에서 295의 연결을 나타냈다. <그림 4-41>을 보면, 임상훈과 홍익표의 노드 색상이 파란색이라 연결 중심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박용진, 김기식, 김민하의 연결 중심성이 크고, 박용진, 김기식의 매개 중심성이 커 이들이 영향력이 큰 패널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41] KBS라디오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⁵⁷⁾



Created with NodeXL Pro (<http://nodexl.codeplex.com>) from the Social Media Research Foundation (<http://www.smrfoundatio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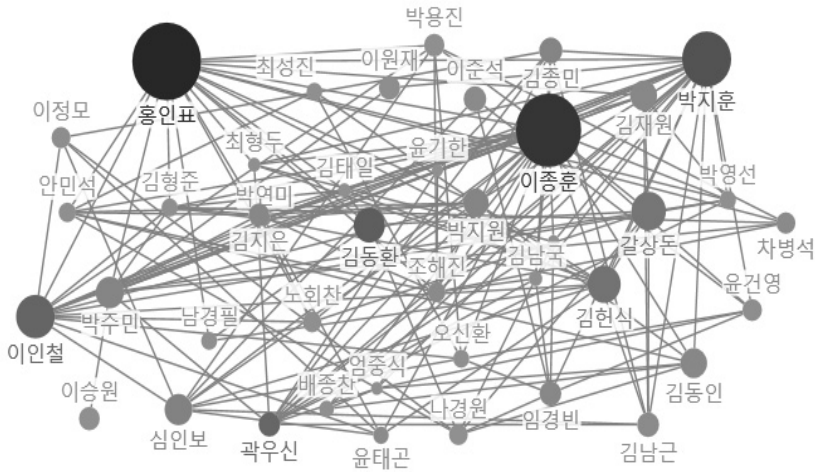
KBS라디오에 출연한 패널 영향력 상위 20인을 보면, 임상훈이 연결 중심성 16, 매개 중심성 1236.000이고 홍익표가 연결 중심성 14, 매개 중심성 690.783, 김기식 연결 중심성 13, 매개 중심성 1887.267로 영향력이 컸다. 김민하와 박용진도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김준일이 연결 중심성 9, 매개 중심성 1079.102, 나경원이 연결 중심성 8, 매개 중심성 1168.295로 영향력이 컸다.

[표 4-49] KBS라디오 패널 영향력 상위 20인(연결 중심성 순)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임상훈	16	1236.000	0.018	박지원	8	788.590	0.016
홍익표	14	690.783	0.031	김종민	8	666.162	0.003
김기식	13	1887.267	0.037	진성준	8	488.246	0.024
김민하	12	1077.958	0.031	김남국	8	336.753	0.018
박용진	11	2477.563	0.022	김태현	8	138.402	0.013
김수민	11	639.280	0.026	백병규	8	16.000	0.000
강훈식	10	298.139	0.024	박성민	7	492.963	0.022
김준일	9	1079.102	0.018	원희룡	7	226.639	0.021
성일종	9	413.402	0.026	윤후덕	7	226.639	0.021
나경원	8	1168.295	0,011	박정호	7	178.158	0.023

57) 연결 중심성 값이 5 이상인 경우만 그래프에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성 값이 큼.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그림 4-43] MBC라디오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⁵⁸⁾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MBC라디오에 출연한 패널 중에서 영향력 상위 패널을 보면, 홍익표가 연결 중심성 152, 매개 중심성 35798.769로 가장 영향력이 컸다. 다음으로 이종훈이 연결 중심성 131, 매개 중심성 31880.719로 영향력이 컸다. 이어서 박지훈, 김동환, 이인철의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갈상돈은 연결 중심성은 48이었지만, 매개 중심성은 8239.487로 컸고, 김현식도 연결 중심성 52, 매개 중심성 7650.359로 영향력이 큰 그룹에 속했다. 홍익표와 이종훈은 위세 중심성 값도 상위를 차지했다. 한편, 연결 중심성 20에서 40 미만의 패널을 보면, 심인보, 김종민, 박지원, 박주민, 김동인, 김재원이 있고, 이들의 매개 중심성은 4천에서 5천 이백 사이로 영향력이 컸다.

58) 연결 중심성 값이 12 이상인 경우만 그래프에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성 값이 큼.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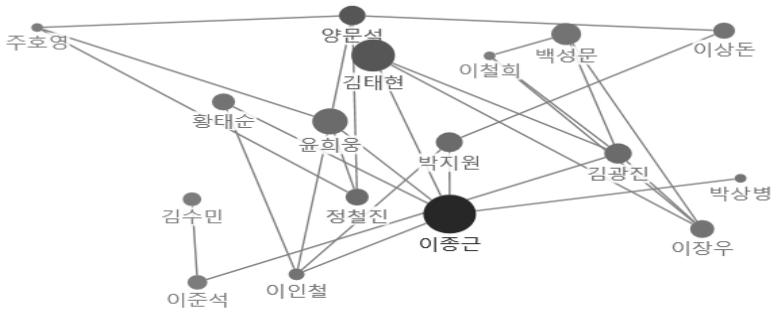
[표 4-50] MBC라디오 패널 영향력 상위 40인(연결 중심성 순)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홍인표	152	35798.769	0.024	이원재	18	2633.364	0.002
이종훈	131	31880.719	0.026	윤건영	17	2065.647	0.004
박지훈	93	17719.601	0.021	이정모	16	1896.367	0.002
김동환	77	6642.089	0.010	박연미	16	371.077	0.006
이인철	69	10622.759	0.013	이승원	15	2467.533	0.001
곽우신	67	2732.287	0.015	박용진	15	2315.805	0.005
김현식	52	7650.359	0.009	안민석	15	1448.281	0.004
갈상돈	48	8239.487	0.006	김형준	15	1160.636	0.005
심인보	33	5109.215	0.006	남경필	15	1073.747	0.003
김종민	29	3229.846	0.007	김남국	15	510.013	0.005
박지원	28	4086.696	0.008	나경원	14	1828.269	0.002
박주민	27	5205.108	0.007	노회찬	14	1773.733	0.004
김동인	26	4579.163	0.005	엄중식	14	157.800	0.005
김재원	25	4635.731	0.005	박영선	13	1225.802	0.006
임경빈	23	2782.685	0.003	오신환	13	1106.764	0.004
차범석 ⁵⁹⁾	22	1924.022	0.004	배중찬	13	796.801	0.004
윤태곤	22	950.702	0.005	최성진	12	1020.392	0.001
김남근	20	2860.529	0.005	최형두	12	312.025	0.006
이준석	19	3034.917	0.002	김태일	12	306.998	0.005
조해진	19	1529.465	0.006	이재갑	12	164.272	0.005

MBC라디오에 출연한 패널들에 대한 시기별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하늘색은 문재인 정부, 초록색은 박근혜 정부, 파란색은 두 정부에서 출연한 패널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갈상돈, 김동환의 영향력이 컸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홍인표의 노드 크기가 가장 커 영향력이 있는 패널로 나타났다. 이어서 박지훈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심인보, 김종민, 김동민이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영향력이 큰 패널로는 이종훈, 이인철, 김현식, 박주민이 있다. 김재원, 이준석, 박주민, 박지원, 차범석, 김남근이 뒤를 이었다.

59) 2013년 <손석희의 시선집중> 출연,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그림 4-45] SBS라디오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⁶¹⁾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SBS라디오에 출연한 패널의 영향력 상위 15인은 <표 4-51>과 같다. SBS라디오에 출연한 패널의 연결 중심성 값은 12가 가장 크고, 다음이 7로 패널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패널 중에서는 이종근이 연결 중심성 12, 매개 중심성 486.167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패널이었다. 다음으로 김태현, 양문석의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값이 커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다. 연결 중심성 5인 패널 중에서는 윤희웅이 매개 중심성 205.833으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컸고, 박지원과 정철진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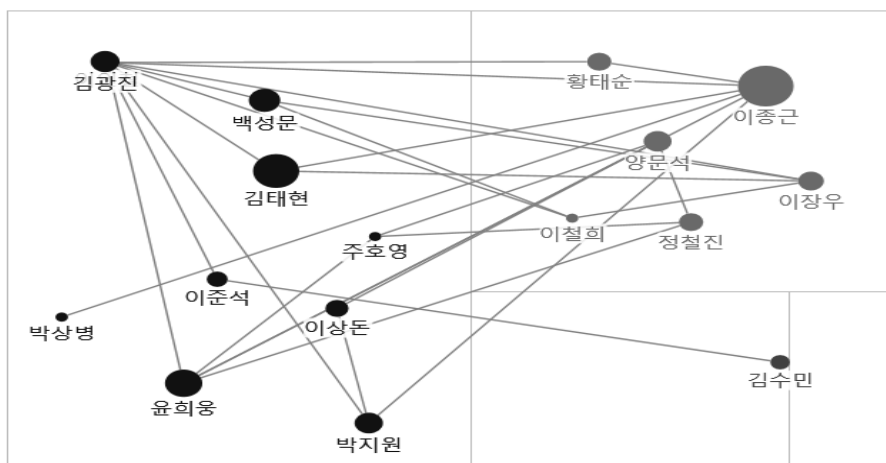
[표 4-51] SBS라디오 패널 영향력 상위 15인(연결 중심성 순)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이종근	12	486.167	0.115	이상돈	4	64.167	0.025
김태현	7	326.500	0.051	이인철	4	23.167	0.060
양문석	7	104.667	0.040	박상병	4	1.500	0.049
윤희웅	5	205.833	0.060	이준석	3	48.000	0.013
김광진	5	114.000	0.025	김수민	3	39.500	0.006
박지원	5	108.000	0.054	이동형	2	46.500	0.028
정철진	5	74.000	0.032				
백성문	4	140.000	0.014				
이장우	4	84.000	0.023				
황태순	4	74.000	0.044				

61) 연결 중심성 값이 3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성 값이 큼.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SBS라디오에 출연한 패널에 대한 시기별 네트워크 분석 결과, 파란색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영향력이 있는 패널이다. 김태현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윤희웅, 김광진, 박지원이 영향력 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하늘색은 박근혜 정부에서 영향력이 있는 패널인데 이종근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양문석, 정철진, 이장우, 황태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고, 이철희가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수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림 4-46] SBS라디오 패널 시기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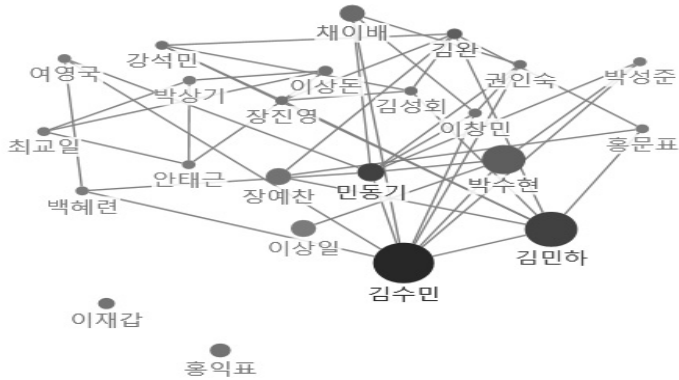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4) CBS

CBS에는 분석 기간에 모두 96명의 패널이 출연했고, 이들은 네트워크에서 98의 연결을 나타냈다. 그래프를 보면, 김수민의 노드 색상이 파란색이고 노드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김민하, 박수현의 영향력이 컸다. 이어서 민동기, 장예찬, 이상일, 채이배, 홍익표, 이재갑이 영향력이 큰 패널로 나타났다.

62) 연결 중심성 값이 3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그림 4-47] CBS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⁶³⁾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CBS에 출연한 패널의 영향력 상위 패널 10인을 보면, 김수민이 연결 중심성 12, 매개 중심성 168,500으로 영향력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김민하, 민동기, 박수현의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커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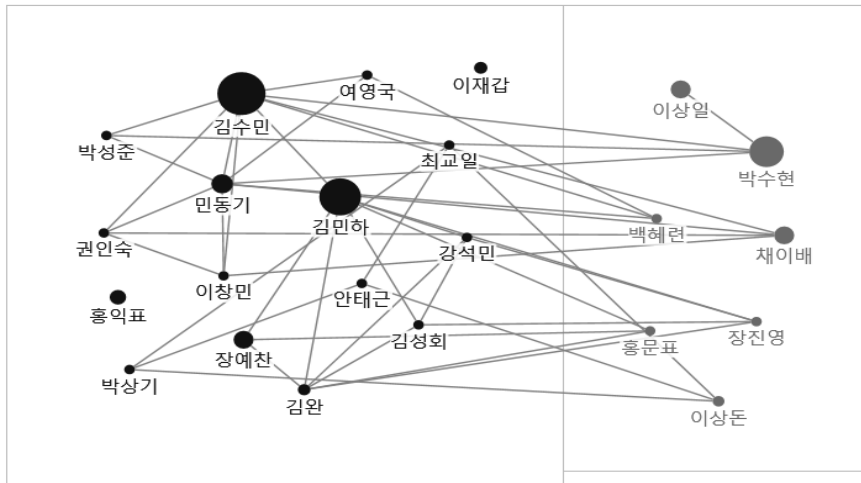
[표 4-52] CBS 패널 영향력 상위 10인(연결 중심성 순)

패널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김수민	12	168,500	0.120
김민하	9	124,000	0.063
민동기	9	28,000	0.101
박수현	6	83,000	0.055
김완	6	4,500	0.034
채이배	5	23,000	0.065
장예찬	4	23,000	0.022
홍익표	4	13,000	0.000
이재갑	4	6,000	0.000
이상일	3	23,999	0.013

63) 연결 중심성 값이 3 이상인 경우만 그래프에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성 값이 큼.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CBS에 출연한 패널에 대한 시기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출연한 패널(파란색) 중에서는 김수민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김민하의 영향력이 컸다. 다음으로 민동기, 장예찬이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다. 하늘색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영향력이 있는 패널인데, 박수현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이상일이 차지했다.

[그림 4-48] CBS 패널 시기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⁶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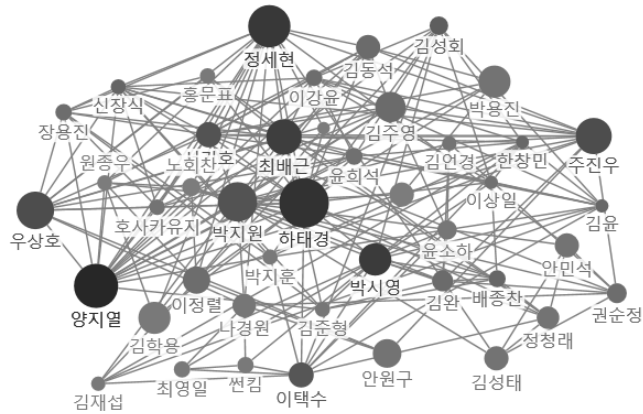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5) TBS

TBS에는 분석 기간에 169명의 패널이 출연했고, 이들은 네트워크에서 582의 연결을 나타냈다. 노드의 크기는 매개 중심성 값을 나타내고, 노드의 색상은 연결 중심성을 보여준다. 노드 색상이 파란색일수록 연결 중심성 값이 크다. TBS에 출연한 패널 중에서는 하태경의 노드 크기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양지열, 정세현, 최배근, 우상호, 주진우, 박시영, 박용진, 김주영, 김학용이 노드 크기가 커서 매개 중심성 값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노드의 색상을 보면, 하태경, 양지열의 연결 중심성이 크고, 이어서 정세현, 차배근, 박시영이 연결 중심성 상위를 차지했다.

64) 연결 중심성 값이 3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그림 4-49] TBS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⁶⁵⁾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TBS에 출연한 패널의 영향력 상위 40인을 보면, 연결 중심성은 양지열이 36으로 가장 컸고, 하태경, 정세현, 박시영, 최배근 순이었다. 매개 중심성은 하태경이 2308.507로 가장 컸고, 양지열, 정세현 순이었다. 다음으로 연결 중심성 20 이상인 박시영, 최배근, 우상호, 주진우, 박지원, 서기호, 이택수의 영향력이 컸다. 이들의 매개 중심성 값은 5백에서 1천 5백 사이로 컸다. 이밖에 매개 중심성이 4백 이상인 패널로 박용진, 김학용, 김주영, 안원구, 이정렬, 김성태, 안민석, 나경원, 임성훈, 정청래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결 중심성은 10에서 15 사이로 나타났다. 박용진은 연결 중심성 12, 매개 중심성 920.661, 김학용은 연결 중심성 10, 매개 중심성 917.000으로 연결 중심성에 비해 매개 중심성 값이 상대적으로 커 이들과 직접 연결된 패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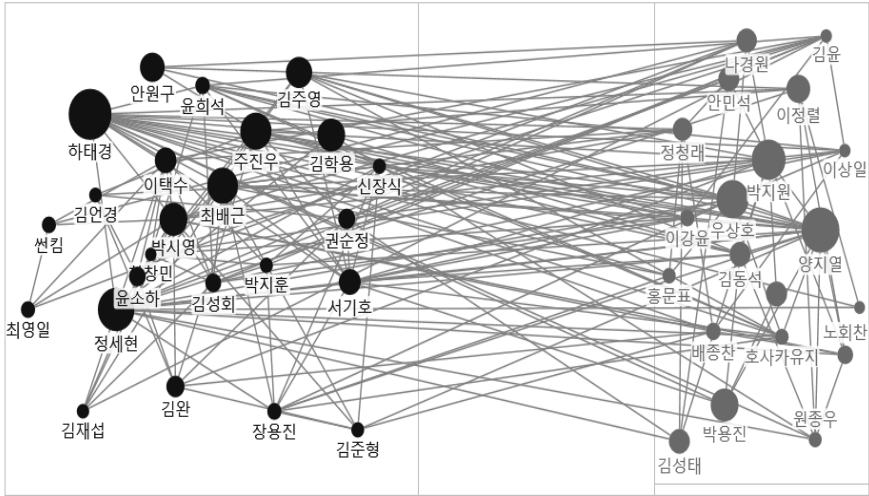
65) 연결 중심성 값이 9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입니다

[표 4-53] TBS 패널 영향력 상위 40인(연결 중심성 순)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양지열	36	1808.853	0.036	이강윤	14	180.452	0.019
하태경	32	2308.507	0.030	장용진	14	178.385	0.018
정세현	30	1650.124	0.028	윤희석	13	197.706	0.019
박시영	29	931.927	0.018	이상일	13	87.091	0.013
최배근	28	1133.988	0.030	박용진	12	920.661	0.010
우상호	24	1281.383	0.025	안원구	12	708.032	0.006
주진우	24	1184.873	0.022	김성태	12	484.489	0.006
박지원	22	1419.347	0.015	안민석	12	484.489	0.006
서기호	22	539.555	0.029	정청래	12	407.813	0.010
이택수	21	525.417	0.014	호사카 유지	12	152.378	0.018
김성희	18	249.330	0.015	김언경	12	121.158	0.006
신장식	17	138.926	0.025	나경원	11	450.128	0.008
배종찬	16	197.141	0.011	윤소하	11	279.747	0.006
한창민	16	85.375	0.015	김준형	11	135.127	0.013
김윤	16	85.375	0.015	김학용	10	917.000	0.007
김주영	15	808.903	0.014	임상훈	10	438.976	0.002
김동석	15	487.098	0.017	썸킴	10	174.355	0.005
김완	15	345.635	0.009	최영일	10	174.365	0.005
이정렬	14	645.460	0.010	홍문표	10	143.726	0.010
권순정	14	295.637	0.008	박지훈	10	139.646	0.011

TBS에 출연한 패널에 대한 시기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태경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정세현, 주진우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최배근, 김학용, 박시영, 안원구, 김주영이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다. 하늘색으로 표시된 노드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영향력이 있는 패널을 보여준다. 양지열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박지원, 우상호, 박용진이 뒤를 이었다.

[그림 4-50] TBS 패널 시기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⁶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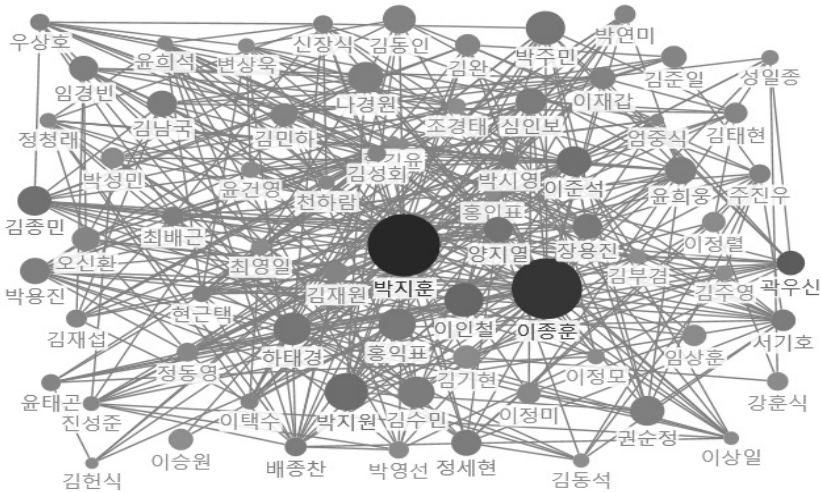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6) YTN라디오

YTN라디오에는 분석 기간에 237명의 패널이 출연했고, 이들은 네트워크에서 509의 연결을 나타냈다. 그래프를 보면, 박지훈, 이준석, 장용진의 노드가 크고, 색상이 파란색에 가까워 이들의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이재정, 윤희웅, 박주민, 정청래가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은 파란색에 가깝지 않지만, 노드의 크기가 큰 패널로 이재갑, 최형두, 이수정, 김용남, 김경진, 이재명, 박주선, 손수호, 권순정, 김용남, 신장식, 정동영, 박주선, 김관영, 이재명, 홍문종을 들 수 있다.

66) 연결 중심성 값이 9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그림 4-51] YTN라디오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⁶⁷⁾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YTN라디오에 출연한 패널의 영향력 상위 40인을 보면, 박지훈, 이준석, 장용진의 연결 중심성이 20 이상이고, 매개 중심성이 4천 이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패널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이재정, 윤희웅, 박주민, 정청래, 권순정, 김경진, 이수정, 홍문종, 이재명, 김용남, 최형두, 조대진의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컸다.

[표 4-54] YTN라디오 패널 영향력 상위 40인(연결 중심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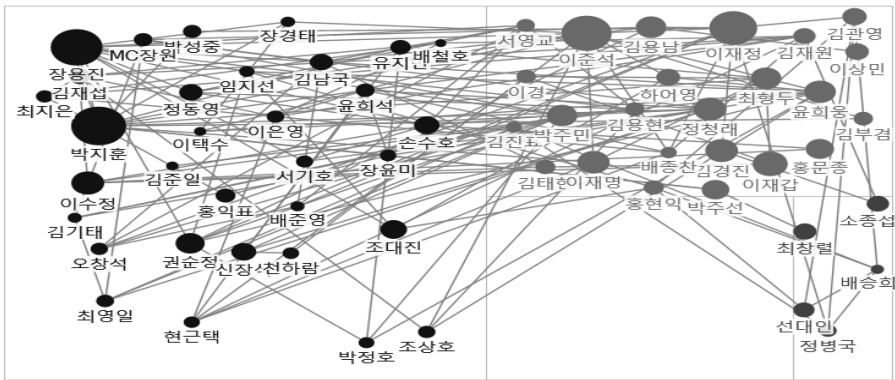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박지훈	27	5032.864	0.039	이재명	8	1604.681	0.014
이준석	25	4174.182	0.038	김용남	8	1437.911	0.006
장용진	21	4456.621	0.035	하어영	8	789.478	0.010
윤희웅	16	1554.355	0.026	김용현	8	482.563	0.010
박주민	16	1427.891	0.019	윤희석	8	442.591	0.015
이재정	15	3756.708	0.015	서영교	8	400.941	0.011
정청래	14	1639.104	0.019	오창석	8	345.026	0.009
김재섭	12	636.799	0.014	서기호	8	322.636	0.011

67) 연결 중심성 값이 6 이상인 경우만 그래프에 표시, 파란색일수록 연결성 값이 큼.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권순정	11	1270.681	0.017	장윤미	8	293.020	0.012
김경진	10	1658.127	0.003	배종찬	8	276.029	0.014
김남국	10	741.145	0.006	현근택	8	271.239	0.014
김재원	10	683.414	0.012	장경태	8	185.031	0.018
이수정	9	1675.151	0.008	최형두	7	1436.292	0.009
홍문종	9	1199.000	0.003	조대진	7	1044.007	0.007
손수호	9	924.509	0.012	김관영	7	843.201	0.003
신장식	9	887.976	0.007	최창렬	7	729.313	0.001
MC장원	9	428.629	0.008	유지만	7	549.793	0.009
이은영	9	350.206	0.011	김태현	7	533.910	0.003
최지은	9	337.569	0.013	이경	7	467.142	0.002
이재갑	8	1923.420	0.003	최영일	7	364.241	0.007

YTN라디오에 출연한 패널에 대해 시기별로 그룹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파란색 표시)에서는 박지훈과 장용진의 노드 크기가 가장 커 이들이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수정, 권순정, 조대진, 손수호, 김남국이 영향력 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하늘색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YTN라디오에 출연한 패널인데, 이준석과 이재정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고, 이재갑, 정청래, 이재명, 박주민, 윤희웅, 김경진, 홍문종이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색으로 표시된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창렬과 소중섭, 선대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림 4-52] YTN라디오 패널 시기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⁶⁸⁾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68) 연결 중심성 값이 6 이상인 경우만 이름 표시,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큼

4) 패널 구성 현황 및 영향력 상위 채널 분석 결과

(1) 채널별 영향력 상위 패널

<표 4-55>는 라디오에 출연한 패널 중에서 영향력이 큰 패널들을 보여준다. 라디오에 출연한 분석 대상 패널은 840명이었고, 시기별로 보면 박근혜 정부 392명, 문재인 정부 552명이었다. 채널별로 보면, KBS 138명, 라디오 501명, SBS 44명, CBS 96명, TBS 169명, YTN 237명이었다. 두 정부에서 모두 영향력을 발휘한 패널은 이종훈, 이인철, 박지원이었다.

채널별로 보면, KBS라디오는 임상훈, 홍익표, 김기식, 김민하, 박용진, 김수민, 강훈식의 영향력이 컸고, MBC라디오는 홍인표, 이종훈, 박지훈, 김동환, 이인철, 곽우신, 김헌식, 갈상돈, 심인보, 김종민이, SBS라디오는 이종근, 김태현, 양문석, 윤희웅, 김광진, 박지원, 정철진, 백성문, 이장우, 황태순이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다. CBS는 김수민, 김민하, 민동기, 박수현, 김완이, TBS는 양지열, 하태경, 정세현, 박시영, 최배근, 우상호, 주진우, 박지현, 서기호 순이었고, YTN라디오는 박지훈, 이준석, 장용진, 윤희웅, 박주민, 이재정, 정청래, 김재섭, 권순정, 김경진이 영향력 상위였다. 중복출연한 패널을 보면, 박지원(KBS, MBC, SBS, TBS)과 김남국(KBS, MBC, YTN), 김태현(KBS, SBS, YTN), 박지훈(MBC, TBS, YTN), 배종찬(MBC, TBS, YTN), 이재갑(MBC, CBS, YTN), 이준석(MBC, SBS, YTN)등 8명이 세 개 이상의 채널에서 영향력이 컸다. 이밖에 김민하(KBS, CBS), 박용진(KBS, TBS), 김수민(KBS, SBS), 나경원(KBS, TBS), 이인철(MBC, SBS), 박주민(MBC, YTN), 김재원(MBC, YTN), 안민석(MBC, TBS), 최형두(MBC, YTN), 윤희웅(SBS, YTN), 김완(CBS, TBS), 서기호(TBS, YTN), 장용진(TBS, YTN), 최영일(TBS, YTN), 홍익표(KBS, CBS)가 두 개 이상의 채널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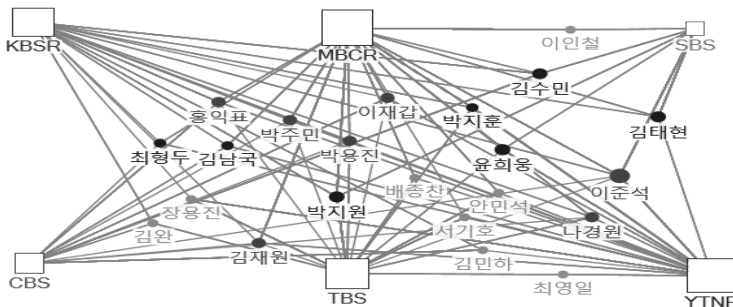
[표 4-55] 라디오 패널 영향력 상위 40인(연결 중심성·매개 중심성 기준)

순위	라디오 전체 (840명)	시기		채널					
		박근혜 정부 (392명)	문재인 정부 (552명)	KBS (138명)	MBC (501명)	SBS (44명)	CBS (96명)	TBS (169명)	YTN (237명)
1	홍인표	홍인표	박지훈	임상훈	홍인표	이종근	김수민	양지열	박지훈
2	이종훈	김동환	이종훈	홍익표	이종훈	김태현	김민하	하태경	이준석
3	박지훈	갈상돈	곽우신	김기식	박지훈	양문석	민동기	정세현	장용진
4	김동환	김현식	이인철	김민하	김동환	윤희웅	박수현	박시영	윤희웅
5	이인철	이종훈	박지원	박용진	이인철	김광진	김완	최배근	박주민
6	곽우신	김지은	김종민	김수민	곽우신	박지원	채이배	우상호	이재정
7	박지원	이인철	이준석	강훈식	김현식	정철진	장예찬	주진우	정청래
8	이준석	김재원	양지열	김준일	갈상돈	백성문	홍익표	박지원	김재섭
9	김현식	안민석	하태경	성일종	심인보	이장우	이재갑	서기호	권순정
10	박주민	김경진	박주민	나경원	김종민	황태순	이상일	이택수	김경진
11	김상돈	남경필	홍익표	박지원	박지원	이상돈		김성희	김남국
12	양지열	박지원	장용진	김종민	박주민	이인철		신장식	김재원
13	김종민	김성태	김수민	진성준	김동인	박상병		배종찬	이수정
14	김재원	최창렬	심인보	김남국	김재원	이준석		한창민	홍문종
15	박용진	노회찬	김남국	김태현	임경빈	김수민		김윤	손수호
16	하태경	민병두	서기호	백병규	차병석	이동형		김주영	신장식
17	나경원	이원재	정세현	박성민	윤태곤			김동석	MC장원
18	배종찬	이재명	배종찬	원희룡	김남근			김완	이은영
19	홍익표	이종근	임경빈	윤후덕	이준석			이정렬	최지은
20	윤희웅	박주선	최배근	박정호	조해진			권순정	이재갑
21	우상호	금태섭	나경원		이원재			이강윤	이재명
22	장용진	김동석	권순정		윤건영			장용진	김용남
23	김수민	정덕현	윤희웅		이정모			윤희석	하어영
24	심인보	김관영	박시영		박연미			이상일	김용현
25	김남국	문병호	이재갑		이승원			박용진	윤희석
26	서기호	홍문종	김동인		박용진			안원구	서영교
27	정세현	김종대	주진우		안민석			김성태	오창석
28	안민석	김진태	김민하		김형준			안민석	서기호
29	임경빈	홍일표	신장식		남경필			정청래	장윤미
30	최배근	정우택	우상호		김남국			호사카유지	배종찬
31	권순정		현근택		나경원			김언경	현근택
32	김태현		김완		노회찬			나경원	장경태
33	이택수		윤태곤		엄중식			윤소하	최형두
34	박시영		이택수		박영선			김준형	조대진
35	이재갑		오신환		오신환			김학용	김관영
36	노회찬		김준일		배종찬			임상훈	최창렬
37	김동석		박연미		최성진			썬킴	유지만
38	김동인		김재섭		최형두			최영일	김태현
39	주진우		김재원		김태일			홍문표	이경
40	정청래		김태현		이재갑			박지훈	최영일

(2) 라디오 출연패널 중복 네트워크 분석 결과

영향력 상위 라디오 패널 중 여러 채널에 중복출연한 패널 22명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한 결과, 28개의 노드가 있고, 단일 연결 19, 중복 연결 357, 전체 연결 376이었다. 그래프를 보면, MBC라디오와 YTN라디오의 노드 크기가 커 이 채널에 패널의 중복 출연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KBS라디오와 TBS가 비슷했고, CBS, SBS에는 상대적으로 중복출연한 패널이 적었다. 그래프의 보라색은 5개의 채널 이상에 출연한 패널로 이준석, 나경원, 이재갑, 박용진, 박주민, 홍익표, 김재원이 있다. 파란색은 4개 채널에 중복출연한 패널을 나타내며 여기에 해당하는 패널은 김수민, 김태현, 박지훈, 윤희웅, 박지원, 김남국, 최형두이다. 2-3개 채널에 중복출연한 패널은 주황색으로 표시했다. 이인철, 최영일, 배종찬, 안민석, 서기호, 김민하, 장용진, 김완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프를 보면, 이준석의 노드 크기가 가장 큰데, 이준석은 6개의 채널에 모두 출연했다. 다음으로 이재갑, 나경원, 김재원, 박주민, 홍익표가 SBS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채널에 출연했다. 김완, 장용진은 KBS라디오, CBS, TBS에 중복출연했고, 배종찬과 서기호, 안민석은 MBC라디오, TBS, YTN라디오에 중복출연했으며, 서기호는 MBC라디오, TBS, YTN라디오에 중복출연했다. 이인철은 MBC라디오와 SBS에, 최영일은 YTN라디오와 TBS에 중복출연했다.

[그림 4-53] 라디오 중복 출연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이들의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값을 비교한 결과, 여섯 개의 라디오 채널에 모두 출연한 이준석이 연결 중심성 6, 매개 중심성 10.557로 영향력이 컸고, 다섯 개의 채널에 중복출연한 홍익표, 이재갑, 박용진, 나경원, 박주민, 김재원이 뒤를 이었다. 네 개의 채널에 출연한 패널 중에서 윤희웅, 박지원, 김태현, 김수민의 매개 중심성이 컸다.

[표 4-56] 라디오 중복 출연 패널의 연결 중심성·매개 중심성·위세 중심성 값

패널 이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이준석	6	10.557	0.039
홍익표	5	3.721	0.032
이재갑	5	3.721	0.012
박용진	5	3.721	0.050
나경원	5	3.721	0.047
박주민	5	3.721	0.047
김재원	5	3.721	0.047
박지원	4	4.919	0.032
김남국	4	2.190	0.038
김태현	4	4.902	0.034
박지훈	4	2.037	0.040
김수민	4	4.695	0.031
최형두	4	2.190	0.038
윤희웅	4	5.144	0.033
배종찬	3	0.966	0.030
김민하	3	0.962	0.028
안민석	3	0.966	0.030
김완	3	1.106	0.027
서기호	3	0.966	0.030
장용진	3	0.908	0.029
이인철	2	0.946	0.013
최영일	2	0.219	0.020

(3) 영향력 상위 패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정치 성향 교차분석 결과

라디오에 출연한 패널 중에서 영향력 상위 패널의 성, 연령, 직업 분포를 빈도분석하고, 채널별 교차분석을 통해 영향력 있는 패널의 속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봤다. 영향력 상위 패널의 직업을 보면, 국회의원이 전체의 4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수가 10.0%였고, 변호사와 전문가가 각각 8.4% 순이었다. 시사 이슈를

다루는 라디오에서 현안 관련 정책입안자인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교수, 변호사, 전문가는 전문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선호하는 직업군이다. 시사평론가는 종편이나 지상파 방송에 비교했을 때 6.9%로 상대적으로 출연 비율이 적었다. 출연한 국회의원의 정당을 근거로 정치 성향을 구분했는데, 10명 중 6명은 진보 성향이였다. 다시 말해 라디오에는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이 더 출연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성별을 보면, 종편,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남성 출연자의 비율이 89.3%로 약 10명 중 9명이 남성이었다. 시사프로그램 출연자의 남성 편중 현상을 라디오 패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는 50대가 51.7%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22.0%, 40대 20.2% 순이었다.

[표 4-57] 라디오 영향력 상위 패널 성별·연령대·직업·정치 성향 기초 빈도분석 결과

성별	
남성	349(89.3)
여성	42(10.7)
전체	391(100.0)
연령대	
30대	24(6.1)
40대	79(20.2)
50대	202(51.7)
60대 이상	86(22.0)
전체	391(100.0)
직업	빈도(%)
교수	39(10.0)
변호사	33(8.4)
언론인	30(7.7)
국회의원	167(42.7)
정치인	29(7.4)
공무원	17(4.3)
시사평론가	27(6.9)
전문가	33(8.4)
기타	16(4.1)
전체	391(100.0)
정치 성향	
보수	68(41.0)
진보	98(59.0)
중도	-
전체	166(100.0)

채널별로 영향력 상위 패널의 성, 연령, 직업, 정치 성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했다.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직업, 정치 성향에는 채널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채널별로 연령대를 비교해보면, 60대 이상은 SBS에, 50대는 TBS에 상대적으로 많이 출연했고, 40대는 KBS와 SBS에, 30대는 YTN과 CBS에 상대적으로 많이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은 대부분의 채널에서 가장 많이 출연한 직업군이지만 특히, CBS와 SBS에 상대적으로 많이 출연했다. 정치인과 공무원은 TBS에, 변호사, 시사평론가는 SBS에 많이 출연했다. 교수는 KBS와 CBS에 상대적으로 많이 출연했다. TBS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관련 패널의 의견을 듣기에 정책 집행자인 공무원을 부르고, 시사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채널별로 출연한 패널의 정치 성향을 비교해보면, MBC라디오에는 보수 성향의 국회의원이 65.1%로 진보 성향보다 더 많이 출연했고, SBS라디오에는 보수 성향의 국회의원과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이 비슷한 비율로 출연했다. 이 두 채널을 제외한 라디오 채널은 모두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출연했다. TBS와 CBS 출연 국회의원의 10명 중 약 7명이 진보 성향이였다. YTN도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이 69.0%로 보수 성향의 국회의원보다 더 많이 출연했다. 물론, 영향력 상위 패널 분석 결과이므로 일반화가 어렵지만 라디오에서는 진보 성향 국회의원의 출연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58] 채널별 영향력 상위 패널 성별·연령대·직업·정치 성향 교차분석 결과

성	KBS	MBC	SBS	CBS	TBS	YTN	합 계
남성	68 (84.4)	95 (90.5)	32 (94.1)	34 (89.5)	59 (84.3)	61 (84.7)	349 (89.3)
여성	4 (17.4)	10 (9.5)	2 (5.9)	4 (10.5)	11 (15.7)	11 (15.3)	42 (10.7)
전체	72 (18.4)	105 (26.9)	34 (8.7)	38 (9.7)	70 (17.9)	72 (18.4)	391 (100.0)
$\chi^2 = 6.372, df = 5$							
연령*							
30대	5 (6.9)	6 (5.7)	2 (5.9)	3 (7.9)	2 (2.9)	6 (8.3)	24 (6.1)
40대	21 (29.2)	22 (21.0)	10 (29.4)	6 (15.8)	5 (7.1)	15 (20.8)	79 (20.2)

50대	36 (50.0)	56 (53.3)	11 (32.4)	20 (52.6)	46 (65.7)	33 (45.8)	202 (51.7)
60대	10	21 (20.0)	11 (32.4)	9 (23.7)	17 (24.3)	18 (25.0)	86 (22.0)
전체	72 (18.4)	105 (26.9)	34 (8.7)	38 (9.7)	70 (17.9)	72 (18.4)	391 (100.0)
$\chi^2=22.920, df=15, p<.1$							
직업**							
교수	10 (13.9)	10 (9.5)	3 (8.8)	5 (13.2)	4 (5.7)	7 (9.7)	39 (10.0)
변호사	(13.9) 5 (6.9)	7 (6.7)	5 (14.7)	3 (7.9)	4 (5.7)	9 (12.5)	33 (8.4)
언론인	2 (2.8)	14 (13.3)	1 (2.9)	1 (2.6)	6 (8.6)	6 (8.3)	30 (7.7)
국회의원	28 (38.9)	45 (42.9)	15 (44.1)	20 (52.6)	30 (42.9)	29 (40.3)	167 (42.7)
정치인	2 (2.8)	5 (4.8)	3 (8.8)	4 (10.5)	8 (11.4)	7 (9.7)	29 (7.4)
공무원	-	5 (4.8)	-	2 (5.3)	7 (10.0)	3 (4.2)	17 (4.3)
시사평론가	7 (9.7)	6(5.7)	5 (14.7)	3 (7.9)	3 (4.3)	3 (4.2)	27 (6.9)
전문가	12 (16.7)	9(8.6)	2 (5.9)	-	4 (5.7)	6 (8.3)	33 (8.4)
기타	6 (8.3)	4(3.8)	-	-	4 (5.7)	2 (2.8)	16 (4.1)
전체	72 (18.4)	105 (26.9)	34 (8.7)	38 (9.7)	70 (17.9)	72 (18.4)	391 (100.0)
$\chi^2=62.858, df=40, p<.05$							
정치 성향***							
보수	12 (40.0)	28 (65.1)	7 (50.0)	5 (25.0)	7 (23.3)	9 (31.0)	68 (41.0)
진보	18 (60.0)	15 (34.9)	7 (50.0)	15 (75.0)	23 (78.7)	20 (69.0)	98 (59.0)
전체	39 (18.1)	43 (25.9)	14 (8.4)	20 (12.0)	30 (18.1)	29 (17.5)	166 (100.0)
$\chi^2=18.002, df=5, p<.01$							

라디오 출연 패널의 직업을 성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 국회의원만 여성 비율이 52.4%로 남성보다 많았고, 다른 직업은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 직업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면, 30대는 정치인이, 40대는 변호사가, 50대는 교수와 국회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회의원은 50대 이상에서 특히 많았다. 30대는 정치인 다음으로 국회의원이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표 4-59] 성별·연령대별 직업 교차분석 결과

성별	교수	변호사	언론인	국회의원	정치인	공무원	시사평론가	전문가	기타	합계
남성	37 (10.6)	28 (8.0)	27 (7.7)	145 (41.5)	26 (7.4)	15 (4.3)	25 (7.2)	32 (9.2)	14 (4.0)	349 (89.3)
여성	2 (4.8)	5 (11.9)	3 (7.1)	22 (52.4)	3 (7.1)	2 (4.8)	2 (4.8)	1 (2.4)	2 (4.6)	42 (10.7)
전체	39 (10.0)	33 (8.4)	30 (7.7)	167 (42.7)	29 (7.4)	17 (4.3)	27 (6.9)	33 (8.4)	16 (4.1)	391 (100.0)

$\chi^2=5.433, df=8$

연령*	1	2	3	4	5	6	7	8	9	10
30대	1 (4.2)	1 (4.2)	3 (12.5)	5 (20.8)	9 (37.5)	0	3 (12.5)	1 (4.2)	1 (4.2)	24 (6.1)
40대	4 (5.1)	22 (27.8)	12 (15.2)	15 (19.0)	4 (5.1)	1 (1.3)	10 (12.7)	7 (8.9)	4 (5.1)	79 (20.2)
50대	25 (12.4)	10 (5.0)	12 (5.9)	93 (46.0)	9 (4.5)	11 (5.4)	11 (5.4)	22 (10.9)	9 (4.5)	202 (51.7)
60대 이상	9 (10.5)	0	3 (3.5)	54 (62.8)	7 (8.1)	5 (5.8)	3 (3.5)	3 (3.5)	2 (2.3)	86 (22.0)
전체	39 (10.0)	33 (8.4)	30 (7.7)	167 (42.7)	29 (7.4)	17 (4.3)	27 (6.9)	33 (8.4)	16 (4.1)	391 (100.0)

$*\chi^2=129.307, df=24, p<.001$

5) 라디오 패널 네트워크 분석 결과 요약 및 함의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CBS, TBS, YTN 등 6개 라디오 채널에 많이 출연한 패널의 영향력을 분석한 주요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디오 패널의 다빈도 출연 직업군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출연 비율이 매우 높았다. 라디오 패널 영향력 상위 40인 중 국회의원이 18명(45%)이었고, 전문가 7명(17.5%), 변호사 3명(7.5%), 시사평론가가 3명(7.5%) 순이었다. 채널별로 국회의원의 출연 비율은 CBS(52.6%)가 가장 높았고, SBS(44.1%), MBC(42.9%)와 TBS(42.9%), YTN(40.3%), KBS(38.9%)의 순으로 나타났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의 출연이 빈번한 이유는, 라디오의 매체적 특성상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지 않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듣는 경우도 많아 출연하는 데 부담이 없고, 현안에 대한 집권당 또는 야당의 의견을 듣고자

국회의원을 패널로 선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 영향력 높은 국회의원 패널의 정치 성향은 진보가 많았다. 이는 라디오 매체에서는 진보 정당의 국회의원이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보다 더 많이 출연했음을 의미하며, 진보 정당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⁶⁹). 구체적으로, 상위 영향력을 차지하는 국회의원 패널을 채널별로 비교해보면, KBS는 진보가 10명(25%), 보수가 3명(7.5%)이었고, MBC는 진보가 11명(28%), 보수가 7명(18%), SBS는 진보가 2명(13%), 보수가 1명(7%)이었다. CBS는 진보 국회의원만 3명(30%)이 출연했다. TBS는 진보가 11명(28%), 보수가 6명(15%)이었고, YTN은 진보가 9명(23%), 보수가 6명(15%)이었다. 특히 진보 정당의 홍익표(현 더불어민주당)와 박지원(전 더불어민주당/민생당)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에서 높은 빈도로 출연하며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앞서 논의한 지상파 TV 결과와 비교해보면, 지상파 TV는 국회의원 패널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와 진보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보이게끔 기계적 중립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적 토론장을 제공하는 라디오 매체에서는 기계적 중립마저 실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라디오가 TV보다 ‘협송’(narrowcasting) 매체에 속하므로 모든 청취자를 소구해야 하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Hall & Cappellar, 2002) 이념적 편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에서 특정 여론과 정보가 많이 전달되는 환경은 자칫 저널리즘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반향실(echo chambers effect)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둘째, 시기별로 라디오 패널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문가와 시사평론가 직업군이 약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변호사 직군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 전문가인 김동환과 변호사인 이인철, 시사평론가인 이종훈의 활약이 많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지훈, 양지열 등의 변호사 직군이 라디오 패널에 자주 출연했다. 이들 패널의 공통점은 오랫동안 KBS, MBC, SBS를 비롯해 여러 방송사의 다양한 시사와 교양 프로그램에서 고정 패널로 출연했을 뿐 아니라 라디오 진행까지 경험한 ‘방송인’으로 높은

69) TBS는 진보 성향의 박원순 시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시사 프로그램을 강화했고, 김여준 같은 진행자의 정치 성향이 프로그램에 강하게 반영된 특성이 있다.

대중적 인지도를 지녔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안경제연구소장이자 유튜브 ‘삼프로TV’의 진행자로 활약하는 김동환은 SBS의 ‘집사부일체’를 비롯해 MBC ‘라디오스타’ 등 TV 출연을 했고, MBC 라디오에서 ‘김동환의 세계는 우리의’을 진행했다. 이인철은 참조은 경제연구소장으로, 지상파 3사와 보도 채널 등에서 경제 이슈의 전문가 패널로 활발히 활동했고, 유튜브에서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변호사 박지훈은 강한 사투리와 재미있는 언변으로 KBS ‘아침 마당’, ‘더라이브’, MBC ‘컬투의 베란다쇼’, ‘실화탐사대’를 비롯해 드라마⁷⁰⁾까지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지금은 YTN라디오 ‘뉴스 킹! 박지훈입니다’와 B급 감성을 내건 TBS의 유튜브 시사교양 ‘짤짤이쇼’에서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다. 기자 출신의 변호사 양지열은 각종 TV 방송에서 패널로 출연해 시사 평론과 법률 분석 등을 해왔고, TBS에서 저품격 시사 만담쇼를 표방한 ‘골방라이브’에서 진행자로 활동했다. 지금은 TBS 시사 중계 ‘더룸’에서 박지훈 변호사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진행자로서 이들 패널은 공적 이슈를 개인의 주관적 시각과 해석이 담긴 논평과 사적 감정을 일상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셋째, 일반 시민 패널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라디오(4.1%)는 현안 관련한 이해 당사자를 출연시키는 경우가 종편(0.5%)과 지상파(2.6%)에 비해 많았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유치원 학부모 등 다양한 단체 종사자들이 출연해 현안과 관련하여 그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독일의 미디어 비평가인 벤야민(Benjamin, 1991)은 라디오의 강점을 ‘누구든지 원한다면 언제라도 마이크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누구나 방송의 발언권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라디오는 TV 방송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입장과 관점을 담아내고 있다고 보인다.

넷째, 라디오에 출연한 영향력 상위 패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보면, 남성 출연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89.3%), 연령대는 50대가 절반을 차지했다. 여성 출연자는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70) tvN 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 (12화)에서 육군 공관병 갑질 사건 재판의 피고인으로 나오는 홍경옥(백현주 분)의 법률대리인으로 출연했다.

여성 국회의원이 52.4%로, 남성 국회의원의 41.5%보다 많았다. 여성이 변호사 직업을 갖고 있을 때에도 남성 변호사보다 출연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하려면 국회의원이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라디오에 출연한 패널의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가장 많았으나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30대도 패널로 출연했다. 40대는 변호사가 가장 많았고, 50대는 국회의원과 교수, 전문가 순이었다.

매체적 특성을 살려 라디오에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현안을 다루고, 현안 관련 공중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 패널을 초청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는 장의 역할을 하기 바란다.

방송의 품질을 평가할 때 다양성은 중요하게 언급되는 기준 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품질 또한 패널의 다양성 여부로 인식되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복잡한 현안에 대해, 서로 다른 지적 배경이나 이력을 보유한 패널들이 방송에 나와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진단하고, 전망하며, 차별화된 해법까지 제시하는 모습은 고(高)품질 방송을 위해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방향이며, 궁극적으로 방송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이에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 종편, 지상파, 보도 채널과 라디오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1,229명을 대상으로, 패널의 속성이 방송의 다양성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과 패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한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체별 속성에 따른 패널의 다양성 : TV vs 라디오

지난 10년간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을 분석한 결과 매체의 특성에 따라 매체에서 선호하는 패널에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 매체가 TV 또는 라디오에 따라 영향력 상위 패널이 달랐다. 국회의원 패널은 모든 매체에서 공히 영향력이 컸으나 라디오에서 그 비중이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라디오, 지상파, 종편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별로 분석한 결과, 지상파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며 표면적으로는 이념적 편향성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라디오와 종편은 패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도드라졌다. 구체적으로, 라디오는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이 보수보다 빈도 높게

출연했고, 종편은 보수 성향이 우세했다.⁷¹⁾ 이러한 결과는 라디오가 진보 정당의 국회의원과 밀접한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는 정책과 현안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방송사에 의존하게 되고, 또 방송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해당 정보를 국회의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언론이 주요 쟁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의존하는 정보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라디오가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 것은 모든 청취자를 소구해야 하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협송 매체라는 점에 기인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여론과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되는 환경은 소셜미디어나 유튜브에서 제기되는 반향실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저널리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라디오에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패널의 공통점은 대중적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TV의 다양한 시사와 교양 프로그램에서 고정 패널로 출연했을 뿐 아니라 라디오에서는 사회자로 활약하는 방송인이었다. 라디오는 청각이라는 하나의 감각기관을 자극하기에 TV 방송에 다수 출연해서 익숙해진 패널의 목소리는 라디오 방송의 신뢰감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라디오는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지명도가 높은 패널을 주로 섭외한 것으로 짐작된다.

라디오의 강점 중 하나는, 사회구성원 누구라도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매체라는 점이다. 분석 결과, 라디오는 TV보다 일반 시민의 패널이 더 자주 출연했음을 알 수 있다. 라디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유치원 학부모 등 다양한 직군의 시민이 라디오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안과 관련하여 그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 것은 TV 패널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다. 라디오는 국회의원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현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적 매체임을 알 수 있다.

71) 보수 성향의 국회의원이 종편에 많은 출연한 이유는 종편 개국 시기에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이 종편 출연 거부를 내부 지침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의도적으로 출연을 거부한 결과로 파악된다.

2. 패널의 다양성 문제 : 영향력 상위 패널의 중복 출연

방송의 다양성 관점에서 소수 패널의 중복 출연은 방송의 품질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분석 결과,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 1,229명 중에서 영향력 상위 40인에 포함하는 패널들은 종편과 지상파, 보도 채널 및 라디오까지 넘나들면서 여러 프로그램에 중복 출연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패널은 두 정부기에 공히 영향력 높은 패널로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은 잦은 방송 출연으로 방송에서 어떻게 발언해야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잘 알고 있으며, 시청자가 듣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한다. 제작자 관점에서, 어느 정도 검증되고 방송에 최적화된 패널을 부르는 것이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다. 패널은 잦은 방송 출연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제작자의 패널의 니즈가 일치하기에 여러 매체와 여러 채널에 중복출연하는 패널이 등장하는 것이다.

영향력 상위 패널의 직업군은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사평론가, 교수,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원 패널의 출연 빈도는 문재인 정부기에 두드러졌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낙천 낙선한 여야 의원들의 활약이 컸다. 현안을 논평할 수 있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낙천 낙선한 여야 의원에게 현실 정치관 대신에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관’으로 작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향력 상위 패널로서 여러 채널과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이른바 ‘비가시화된 정파성’ 직군의 패널들은 ‘시사평론가’, ‘교수’, ‘변호사’, ‘연구소장’ 등의 직함으로 불리면서 방송에 중복 출연하고 있다. 이들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기자, 변호사, 교수-종편, 지상파, 보도, 라디오 패널-각 정당 (공천)후보’를 넘나든다. 다시 말해, 총선 전에 이들은 기자, 변호사, 교수의 직함으로 시사·보도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와 비슷한 맥락으로 각 사안을 평론한다. 이 중 일부는 당의 공천을 받아 정계 진출에 성공하지만 본선 경쟁에 들지 못하고 탈락하는 이들은 다시 기자, 변호사, 교수 등의 직함을 달고 방송사의 패널로 출연해 현안을 논평한다. 그래서 이들이 ‘폴리널리스트’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고, 이들의 발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

패널은 복잡한 현안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사적 자치를 위한 의사결정뿐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앞선 논의와 같이 소수 패널의 중복 출연은 방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방송의 품질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들의 논평은 정파성도, 전문성도 아닌 그저 ‘질 낮은 방송’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청자가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한 식견 있는 시민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3. 패널의 매체 가시성과 인지도·공신력

종편, 지상파, 보도 채널과 라디오 채널에 자주 등장하는 패널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출연한 것만으로도 공신력을 얻게 된다.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면 친숙하게 느끼고,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슈메이커 & 리즈, 1996). 특정 인물이나 조직, 집단이 방송에 얼마나 자주, 두드러지게 등장하는지를 매체 가시성(media visibility)이라고 하는데 매체 가시성이 높을수록 시청자들은 중요한 인물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공신력 측면에서 출연하는 패널의 직업도 중요한데, 교수, 변호사처럼 전문성이 높으면 이들에 대한 공신력도 높아진다. 분석 결과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출연한 직업군이었고, 교수, 변호사의 비중도 컸다. 뉴스 가치 측면에서 국회의원의 매체 가시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집권당 국회의원이, 당 대표나 사무총장 등 직위가 높을수록 언론에 등장하는 빈도가 높았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국회의원이 출연하는 비중이 가장 컸는데, 뉴스 가치 측면에서 영향력 상위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이나 직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패널이 정치 분야에서 활동할 생각이 있다면, 방송에서 얻은 인지도와 신뢰도가 정치 영역에서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에서 패널로 등장한 이준석, 김남국, 이철희, 표창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당의 주요 요직을 맡거나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패널로 영향력이 큰 장예찬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 단장을 맡았다.

정계에 입문하지 않더라도 방송 분야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사례도 볼 수 있다. 변호사 중에서 영향력이 큰 박지훈과 양지열은 YTN라디오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역시 영향력 상위 변호사 중 한 명인 김태현은 2015년부터 3년간 채널A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현재 SBS 러브FM에서 '김태현의 정치쇼'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방송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여기서 쌓은 인지도와 공신력은 이들의 향후 정치 활동이나 방송 출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 패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김광일은 종편 출범 직후부터 패널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TV조선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⁷²⁾. TV조선에서 방영한 '신통방통'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분석대상에서 빠진 진성호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패널로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김광일과 마찬가지로 TV조선에서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맡기도 했다⁷³⁾. 이들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에서 영향력이 큰 패널인 황장수, 박상병, 민영삼, 송국건, 고영신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패널로 출연하지 않거나 출연해도 박근혜 정부만큼 출연 빈도가 잦지 않았는데 이들은 유튜브로 활동 반경을 옮겨 보수 유튜버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⁷⁴⁾. 종편이나 지상파, 보도 채널에서 패널로 자리매김하지 못했으나 온라인으로 옮겨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데에는 종편에 출연하면서 쌓은 인지도도 일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방송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방송 출연을 통해 공신력을 얻으면서 이들은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정치, 시사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72) 김광일의 신통방통(2013년 9월9일~2016년 3월19일), 시사탱크 김광일입니다(2016년 3월21일~5월20일)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73) 돌아온 저격수다(2013년 4월17일~2015년 4월19일), 이봉규진성호의 황금편지(2014년 8월18일~2015년 5월 30일)

74)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박상병의 뉴스편지, 민영삼의 따따부따, 고영신TV를 예로 들 수 있다.

4. 시사·보도 프로그램 패널의 역할 : 긍정적·부정적 기능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패널은 시의적이고, 중요한 정치 사안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주요 쟁점별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쟁점에 대한 의견이 찬반으로 갈릴 수 있는데, 이때 패널은 찬반 입장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시사 프로그램 제작자의 관점에서 여러 명의 패널이 출연하는 것은 편성 시간을 채우고,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도 원하는 포맷이다.

문제는 현재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이 본인의 전문성에 부합하지 않는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패널의 전문성이 담보되는지 확신할 수 없다. 변호사가 법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가 코로나 19나 백신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전직 형사가 범죄 사건의 가해자나 피해자를 설명한다면 패널의 전문성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패널의 전문성과 이슈가 부합하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매체와 채널에 중복출연하는 패널 중에서는 본인의 전공 분야와 무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패널의 전문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여러 매체나 채널에 반복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방송의 다양성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사안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 않을 텐데 비슷한 시기에 여러 번 등장하거나 여러 채널에 등장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 분야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종편의 등장과 함께 시사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직업으로 자리매김한 시사평론가의 역할도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시사평론가는 정치, 사회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이슈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견을 밝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교수, 변호사, 의사같이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지 않아 시사평론가로 분류되는 패널의 범위가 넓다. 종편의 출범은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라는 직업을 부각하고, 이들이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패널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시사평론가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데, 이들의 직업은 전직 기자, 기업인, 연구소 운영, 방송인 등 다양하다. 처음에는 자신의 본래 직업을 내세워 방송에 등장하다가 어느 정도 방송 경력이 쌓이면 시사평론가로

자리매김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평론가로서 이들이 이슈와 관련해 적합한, 옳은 분석과 판단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편에 출연하는 패널에 대해 자주 제기된 비판 중 하나로 패널의 자질과 관련해 이들의 발언 태도, 발언 내용의 편향성, 감정적인 표현 사용 등이 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익을 좇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전문적인 지식은 있는지, 패널로서 품위를 지키는지 방송의 공익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5. 연구의 한계 및 제안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패널 분석을 시도한 이 연구는 종편, 지상파, 보도, 라디오 등 방송 매체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종편 출범 이후 10년간 편성된 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기존 연구들이 방송사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분석 기간을 3~6개월 등 단기간으로 제한해왔기에 패널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분석 기간을 10년으로 상정하고, 이를 네트워크 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장기간 방송에서 활약한 패널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 표본추출을 통해 이 기간에 방영된 프로그램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표본추출을 통해 10년간 출연한 1,300여 명의 패널을 찾고, 이들 중에서 영향력 상위 패널을 추출하고 이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분석한 것도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통해 연구의 보완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10년간 방송에 편성된 모든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에 편성된 시사 프로그램이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프로그램 보다 적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편성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⁷⁵⁾ 분석에서 제외한 프로그램이 다수 있다. 이로 인해 종편

75) 다시 보기 서비스 이용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접근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연구 방법에서 자세하게 기술했다.

출범 직후 종편에 빈번하게 출연한 일부 패널이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이들 패널은 본인의 이름을 내건 라디오 프로그램의 사회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⁷⁶⁾ 만약 이들을 분석에 포함했다면 상위 영향력 패널 순위에 자리했을 것으로 예측하며, 이는 현재의 결과에 변동을 주었을 수도 있다.

둘째, 자료 수집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이 연구는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한 이후를 분석 시기로 삼고, 영향력 상위 패널만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분석했다. 이로 인해 종합편성채널의 출연 이후 시사·보도 프로그램 패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양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 분석대상 패널로 추출된 1,200여 명 전체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이 아닌 영향력 상위 패널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패널의 전반적인 속성을 파악하는 데도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풍부하고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영향력 상위 패널의 포지션 변화나 직업군의 변화를 중심성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면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 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네트워크 접근이 영향력 상위 패널을 찾아내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 판단하고 분석을 수행했다(Menczer, Fortunato, Davis, 2020). 동일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근거로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특정 패널의 상대적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널의 영향력은 이 연구가 주목한 매체 가시성뿐 아니라 매체 속성과 이슈 맥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이 연구는 매체별로 패널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했는데, 채널별로 패널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분석한다면 종편 출범이 패널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다양성 관점에서 제작자가 선호하는 패널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존 연구를 통해 패널의 이념적 편향성과 중복 출연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76) 김광일, 진성호 외에 명지대 교수인 신율도 YTN의 출발 새아침을 2014년 4월28일부터 2018년 2월까지 진행했고, 그 전에 신율의 대선열차(2012년 9월17일~12월 31일), 시사열차(2013년 1월22일~9월27일), 통일로 가는 길(2014년 4월13일~2016년 5월 8일)을 진행해 사회자로 자리매김했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심층면접을 통해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진의 정교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품질과 경쟁력 관점에서 요구되는 패널의 요건과 특성을 도출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Attkisson, S. (2020). *Slanted: How News Media Taught Us to Love Censorship and Hate Journalism*, New York: Harper. 서경의 옮김(2022). 『내러티브 뉴스』. 서울:미래지향.
- Benjamin, W. (1991). Gespräch mit Ernst Schoen. in *Gesammelte Schriften*, Bd. IV/1, Frankfurt A. M., 1972 -1992. (548-551). (고지현 역 (2021). 라디오와 매체. 서울 : 현실문화).
- Brant, K., & Haan, Y. D. (2010). Taking the public seriously: three models of responsiveness in media and journalism. *Media, Culture & Society*, 32(2), 411-428.
- Gans, H. J. (1980). *Deciding what's news*. NY: Vintage Books.
- Grant, A. E. (1994). The promise fulfilled? An empirical analysis of program diversity on television. *Journal of Media Economics*, 7(1), 51~64.
- Hall, A. & Cappellar, J. N. (2002). The Impact of Political Talk Radio Exposure on Attribution About the Outcome of the 1996 U.S.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2(2), 332-350.
- Hansen, D. L., Shneiderman, B. & Smith, M. A. (2011). *Analyzing Social Media Networks with NodeXL: Insights from a Connected World*. (Burlington :MK).
- Litman, B. R. (1979). The television networks, competition, and program diversity. *Journal of Broadcasting*, 24(4), 393-409.
- Lippmann, W. (1922). *Public opinion*. 이동근 역(2013). 『여론』. 서울:아카넷.
- Menczer, F., Fortunato, S. Davis, C. A. (2022). *A First Course in Networ Science*, 2020). 손승우, 엄영호, 이상훈, 이은, 김희태, 이미진(옮김). (2022). 『네트워크 분석: 소셜미디어에서 신경망까지』, 서울: 에이콘,

- Mutz, D. C. (1998). Impersonal Influence : How Perceptions Mass Collectives Affect Political Attitudes. 양승찬 옮김(2000). 『미디어 정치효과:비개인적 영향력』. 서울:한나래.
- Reese, S. & Shoemaker, P.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New York:Long Man, 1991), Second Edition. 김원용(역)(1996), 『미디어사회학』. 서울:나남.
- Tannen, D. (1999). The Argument culture: Stopping America' sof words, New York: Ballantine books.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FreePress. 박홍수 역(1995). 『메이킹 뉴스』. 서울:나남.
- Van der Wurff, R. & Van Cuilenberg, J. (2001). Impact of moderate and ruinous competition on diversity: The Dutch television market. Journal of Media Economics, 14(4), 213-229.
- 강명현 (2016). 지상파와 종편 채널의 뉴스 특성 비교 연구. 『언론과학연구』, 16권 1호, 5-36.
- 강준만 (2013). <증오상업주의: 정치적 소통의 문화정치학>.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강태완(2002). 방송3사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형식, 구성 및 논증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6권 1호, 7-42.
- 금희조·조재호(2015). 종합편성채널 시사 토크쇼 시청이 정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시청의 주 효과 및 정치 성향과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 『한국방송학보』, 29권 3호,
- 김재홍 (2002). 한국 정치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관한 사례 연구: 정치 평론과 선거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9집, 77-113.
- 김환열(2000). 『TV토론의 이해』.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훈순·김은정(2002).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 장르 관습과 한계. 『한국언론정보학보』, 18호, 63-97
- 김희준(1993). 국회의원의 매체 가시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영·김예란·손병우(2014). 종편시사 토크쇼와 사담의 저널리즘:〈쾌도난마〉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2권 2호, 5-63.
- 최석만·국민호·박태진·한규석(1990). 한국에서의 진보-보수적 태도의 구조와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24호 겨울호, 83-102.
- 설진아·이종임·홍주현(2021). 유튜브 뉴스채널의 ‘북한원전 건설 의혹’ 관련 보도 연구:언론사 채널과 개인채널 뉴스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5권 6호, 334-371.
- 손영준·홍주현(2018). 한반도 핵 위기에 대한 신문 사설 프레임 비교 분석:경향·한겨레·조선·동아 4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치정보연구』, 22권 3호, 175-210.
- 심훈(2004). KBS, MBC, SBS 및 YTN의 뉴스프로그램 비교: ‘주제’ 및 ‘인터뷰’의 다양성 측면에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5권 2호, 68-93.
- 원희영·윤석민(2015).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공정성에 관한 연구-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메인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9권 1호, 117-148.
- 윤석민(2020). 『미디어 거버넌스』. 서울:나남.
- 유수정 (2018). 종편 출범 초기의 지상파와 종편 메인뉴스의 주제 구성 및 다양성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권 제10호, 53-64.
- 유의선(2021).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보도 공정성:헤게모니 및 견제와 균형 개념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25권 제1호, 125-171.
- 윤영철 (2007). 방송 저널리즘 프로그램 진행자의 의견 개입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 연구, 44권 1호, 37-64.
- 이기형(2014). 종편 저널리즘의 위상과 함의 - 과잉된 정파적 저널리즘과 흥분하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역할을 중심으로, 『문학과학』, 78호, 104-128.
- 이민웅(1996). 『한국TV저널리즘의 이해』. 서울:나남.
- 이민웅·이창근·김광수(1993). 보도 공정성의 한국적 기준을 위한 연구, 『방송연구』, 여름호 180-213.
- 이영주 (2016). 종합편성채널 저널리즘의 비판적 재조명: 시사토크쇼 정치 매개 엘리트들의 텔레비전 정치.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77호, 36-72.

- 이재경(2005). 방송 저널리즘의 기본 가치와 역사적 변화, 『프로그램/텍스트』, 12호, 11-26.
- 이종수(1997). 선거TV토론과 시민저널리즘:새로운 TV토론 포맷제시를 중심으로, 『정책포럼자료집:1992-1996』, 한국방송학회, 9-31.
- 이준복(2013). 한국 방송 토론프로그램에 나타난 대화연구: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비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준웅(2017). 디지털 뉴스 시대의 언론윤리: 하버마스 담론윤리의 적용, 『커뮤니케이션이론』, 13권 3호, 86-128.
- 이준웅·황유리 (2004). 한국형 방송뉴스도식의 발견. 『한국방송학보』, 18권 3호, 232-292.
- 이진영·박재용(2010). 한국 신문보도의 다양성 연구:한겨레 시장 진입 전후 20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 3호, 301-325.
- 이희은 (2011). 텔레비전 버라이어티쇼의 사적인 이야기 서술. 『언론과 사회』, 19권 2호, 2~48.
- 정수영·구지혜 (2010). 지상파 TV뉴스의 다양성 및 중복성에 관한 연구: KBS, MBC, SBS의 2009년도 저녁 종합뉴스 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권 5호, 415-456.
- 조은영·유선영(2014). 종합편성채널의 도입과 방송뉴스 보도의 다양성: 철도노조 파업 이슈에 대한 지상파 채널과 종합편성채널 보도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권 3호, 433-461.
- 최진호(2022). 뉴스 신뢰 하락과 선택적 뉴스 회피 증가, 『MEDIA ISSUE』 8권 3호, 서울:한국언론진흥재단.
- 최진호(2022. 8. 8.).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 한국> -한국 이용자 3명 중 2명 뉴스 회피 '뉴스 불신' 때문, 『신문과방송』. https://blog.naver.com/kpfjra_/222842628577
- 한진만(2010). 방송환경 변화와 지상파 텔레비전 편성의 다양성 변화, 『미디어 경제와 문화』, 8(1), 7-43.

기사

권순택(2016. 3. 29.). “MBC ‘100분토론’, 종편 시사토크쇼로 전락”, 『미디어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248>

남지원(2016. 3. 14.). 총선 D-30, 종편 시사토크쇼 편향·보도불공정 심각,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1603140600041>